



2021년 지역별 건설시장 전망 1.

- 아시아 -

2020.12.14

정지훈 책임연구원

Contents

1 2021년 세계경제 전망

- 1) 2021년 세계경제 전망
- 2) 2021년 국제원유시장 동향 및 유가 전망

2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(지역별)

3 2020년 해외건설시장 동향

- 1) 해외건설 수주 현황
- 2)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건설 애로사항
- 3) Oil & Gas 분야 투자 확대 기대 및 중동 발주 여건 호전

4 주요 국가별 경제 및 건설시장 전망

- 1) 주요국 건설시장 심층분석(In Depth Analysis) 방법 및 기준
- 2) 주요국 건설시장 심층분석 1, 2

5 해외건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신기술 Trend

- 1)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및 성장률 향상의 당위성
- 2)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
- 3) 주요 신기술 적용 사례
- 4) 우리 기업 주요 신사업 계획

6 결론 및 시사점



Part 1.

2021년 세계경제 전망

1) 2021년 세계경제 전망

(경제 성장) 세계적인 경기 부양책 효과로 '21년 성장률은 '20년 대비 5.2% 증가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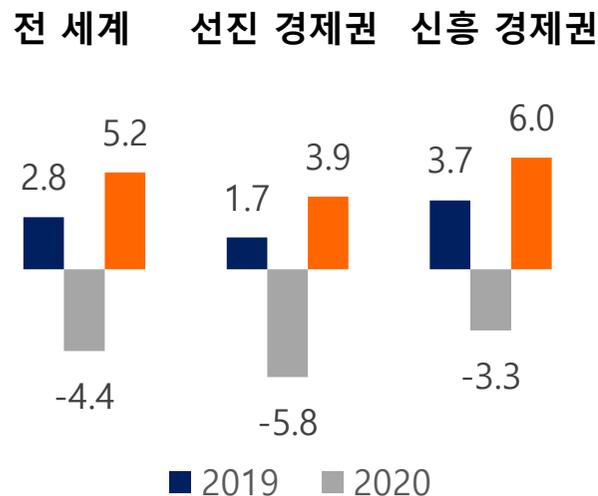
- 미국, 유럽 등 코로나19 충격이 큰 선진 경제권 3.9%, 중국, ASEAN-5 등 신흥 경제권은 6.0% 성장 예상

(경기선행지수) 향후 경제의 건전성을 측정하는 OECD 경기선행지수는 코로나 이전 수준(99.4)으로 개선 중(4월 92.8→10월 99.0)

- 코로나 n차 확산 우려가 지속되나, 백신 개발·치료제 공급 등은 코로나 충격을 완화하고 경제 회복 속도를 가속화하는 기대 요인

(부채 리스크) 단, 전세계 GDP 대비 부채 비중이 지난 해말 대비 45% 포인트 급증함. 이는 특히 신흥국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높이면서 경제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

세계 경제성장률 전망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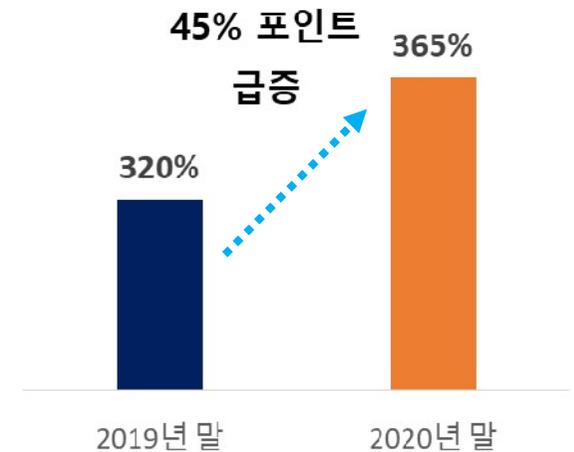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ICAK 정책지원센터]

OECD 경기선행지수



[출처 : OECD, ICAK 정책지원센터]

전세계 GDP 대비 부채 비중 전망



[출처 : IIF(국제금융협회), ICAK 정책지원센터]



2) 2021년 국제원유시장 동향 및 유가 전망

(공급 과잉 해소) '21년 경제 정상화 기대 및 원유 수요의 회복세로 '20년에 나타난 공급 과잉 현상이 다소 해소될 전망

- '21년 일일 원유 소비량은 '20년 대비 6.3% 증가한 9,880만배럴, 원유 생산량은 4.2% 증가한 9,839만배럴로 전망
- 생산량은 2분기 10,150 만배럴로 정점을 기록 후 9,290~9,880만배럴 수준으로 감소 전망. 소비량은 4분기 10,020 만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

(국제유가 소폭 상승) '21년 1분기 40.2불, 2분기부터 45.5불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(WTI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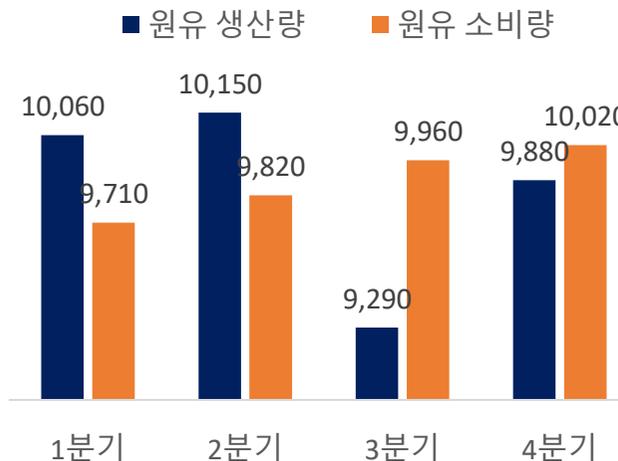
- 전 세계적인 풍력, 태양광 에너지 전환 등 에너지 패러다임 변환 가속화, OPEC+의 감산 계획 지속 여부 등을 주목할 필요

연도별 수급 추이, 전망(만배럴/일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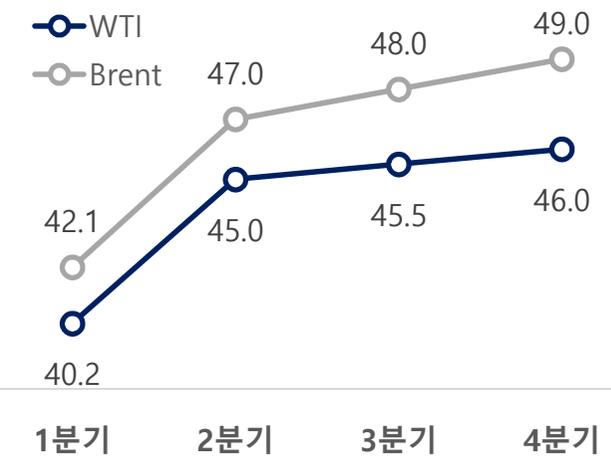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ICAK 정책지원센터]

'21년 분기별 수급 전망(만배럴/일)



[출처 : OECD, ICAK 정책지원센터]

'21년 국제유가 전망(불/배럴)



[출처 : IIF(국제금융협회), ICAK 정책지원센터]



Part 2.

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(지역별)

1)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

(시장 점진적 회복)글로벌시장 조사기업 HIS Markit에 따르면, 코로나19로 역성장에 빠졌던 세계건설시장이 회복세에 진입하여, '21년에는 '20년 대비 4.8% 성장한 11.3조불로 전망

- 미국·유럽 등 주요국을 비롯해 코로나19 n차 확산 리스크는 여전하나, 2020년 상반기와 같은 엄격한 수준의 봉쇄·이동제한 조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
- 점진적인 경제 성장, 건설 투자 심리 회복과 함께 각 국의 경기 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 활성화 전망
- 이에 따라 신규 발주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회복에 따른 기자재·인력 수급 원활화·기존 현장의 정상화 움직임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

(뉴노멀 심화) 단,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유가, 유럽·신흥국과의 경쟁 심화,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역 파괴 등 다양한 이슈가 뉴노멀(New-Normal)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

세계건설시장 규모 추이(단위: 억불, %)



[출처 : IHS Markit, ICAK 정책지원센터]

지역별 건설시장규모 전망(단위: 억불, %)

| 구분 | 2020 | 2021 | 성장률 |
|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|
| 아시아 | 53,644 | 57,183 | 6.6 |
| 중동 | 4,713 | 4,795 | 1.7 |
| 중남미 | 4,278 | 4,514 | 5.5 |
| 아프리카 | 1,073 | 1,096 | 2.2 |
| 북미·태평양 | 18,543 | 18,142 | -2.2 |
| 유럽 | 25,068 | 26,789 | 6.9 |
| 세계 | 107,318 | 112,519 | 4.8 |

[출처 : IHS Markit, ICAK 정책지원센터]

1)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

(아시아) 세계시장의 51.4%를 차지하는 아시아는 '20년 대비 6.6% 성장한 5조 7,183억불로 전망

- 주요 사업 : 정부 최우선 프로젝트인 587억불 규모의 북남고속철도(베트남), 3개의 공항을 연결하는 70억불 규모의 철도사업(태국), 신수도 이전사업, 25개의 신공항사업(인도네시아), 350MW 수준인 태양광 발전 용량(capacity)을 2030년까지 2GW 수준으로 확충 전망(싱가포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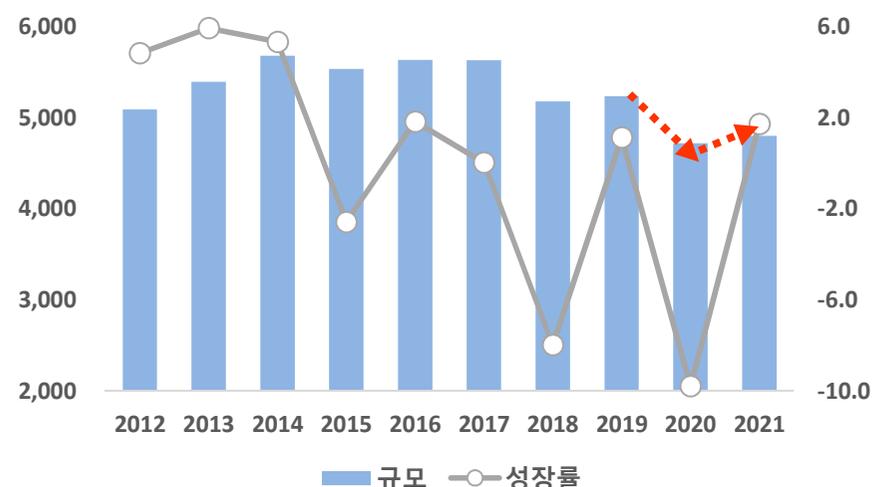
(중동) 세계시장의 4.3%를 차지하는 중동 시장은 '20년 대비 대비 1.7% 성장한 4,795억불로 전망

- 주요 사업 : 탈석유경제체제 추진 및 경기 부양을 위해 133억불을 토목, 건축, 민생사업에 투입할 계획(사우디아라비아), North Field Expansion(가스전 사업)을 비롯해 2022년 월드컵 추진을 위한 1,500억불 규모의 인프라 사업(카타르), 경기 부양을 위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 투자와 금융 분야 지원에 343억불을 투입(UAE)

아시아 건설시장 규모 추이(단위: 억불, %)



중동 건설시장 규모 추이(단위: 억불, %)



[출처 : IHS Markit, ICAK 정책지원센터]

[출처 : IHS Markit, ICAK 정책지원센터]

1)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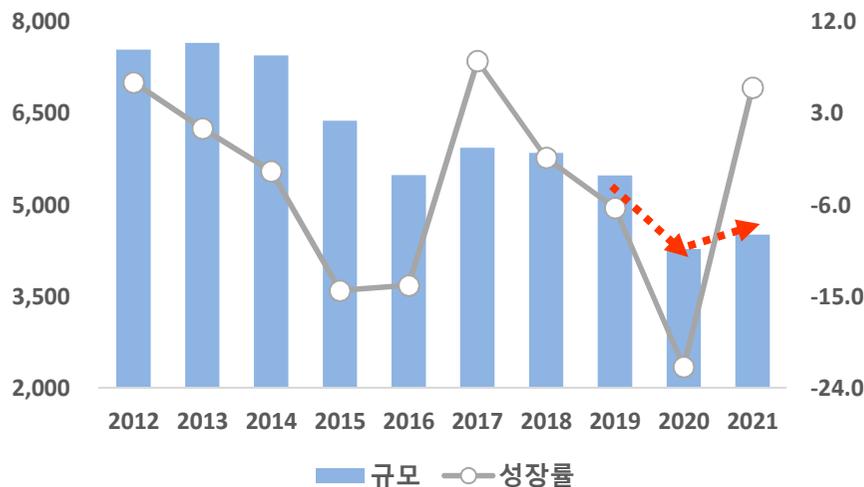
(중남미) 세계시장의 4.0%를 차지하는 중남미 시장은 '20년 대비 5.5% 성장한 4,515억불로 전망

- 주요 사업 : 향후 5~6년간 60억불 규모의 철도망 프로젝트 투자(브라질), 정보통신기술(ICT)을 활용하여 보고타, 칼리, 메데인 등 60개 도시를 스마트시티로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 중(콜롬비아), 리마 국제공항 확장사업(13억불) 및 살라베리 항구 건설사업(1억불)(페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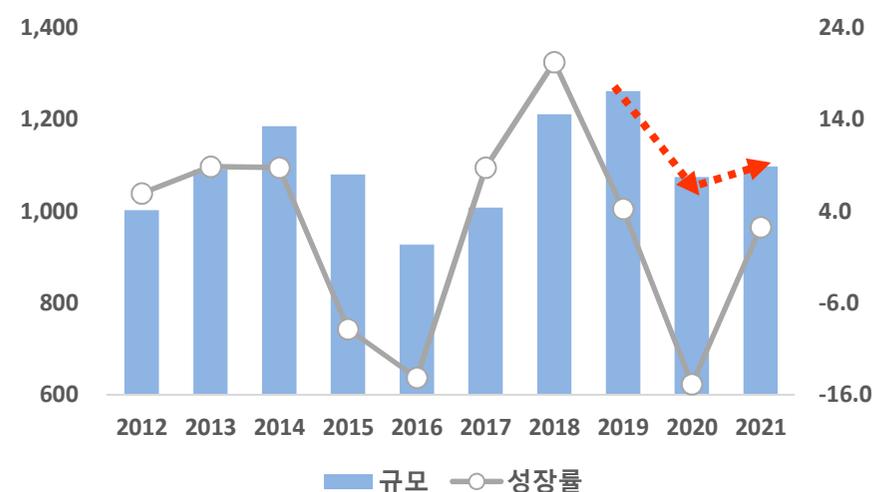
(아프리카) 세계시장의 1.0%를 차지하는 아프리카 시장은 '20년 대비 대비 2.2% 성장한 1,096억불로 전망

- 주요 사업 : 30만호 주택 건설사업, 도로 사업(나이지리아), 향후 10년 동안 25개 에너지 프로젝트에 182억불, 65개 교통 프로젝트에 198억불 투자 예정(남아공), VISION 2030 관련한 LAPSSET(Lamu Port-South Sudan-Ethiopia Transport Corridor Project) 사업과 15억불 규모의 표준궤도철도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(케냐)

중남미 건설시장 규모 추이(단위: 억불, %)



아프리카 건설시장 규모 추이(단위: 억불, %)



[출처 : IHS Markit, ICAK 정책지원센터]

[출처 : IHS Markit, ICAK 정책지원센터]

1) 2021년 세계건설시장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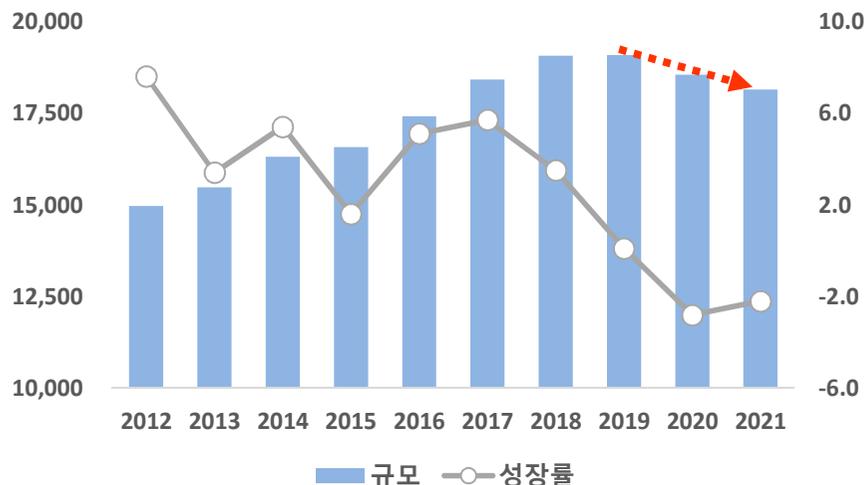
(북미·태평양) 세계시장의 16.1%를 차지하는 북미·태평양 시장은 '20년 대비 2.2% 역성장한 1조 8,142억불로 전망

- 주요 사업 : 4년간 2조불을 재생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이며, 기존 도로, 교량, 댐 등의 인프라를 유지 보수 하는데 2025년까지 1.5조불, 2040년까지 5.0조불이 소요(미국), 37억불 규모의 토론토 지하철 확장 사업 등 교통 인프라 사업 기회가 증가할 전망(캐나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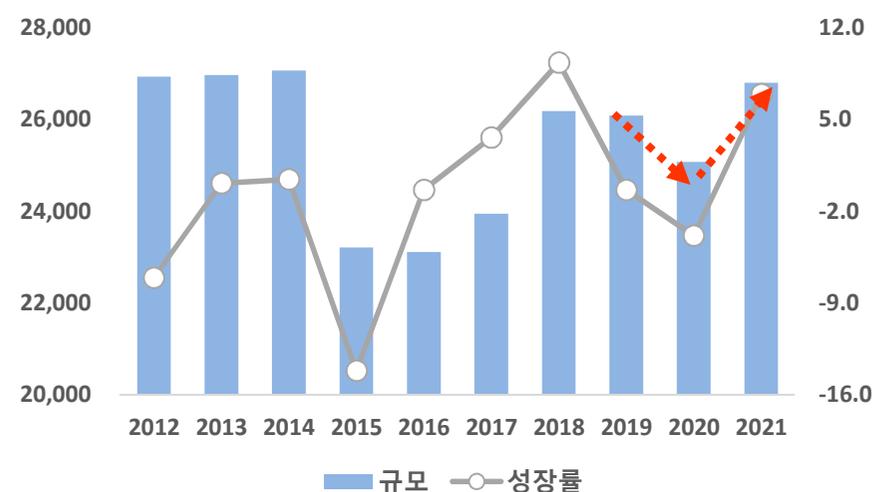
(유럽) 세계시장의 23.8%를 차지하는 유럽 시장은 '20년 대비 대비 6.9% 성장한 2조 6,789억불로 전망

- 주요 사업 : Tri-City 우회도로 PPP사업 및 발트해 연안의 육상풍력발전소(폴란드), 31억불 규모의 키예프 우회도로, 흐멜니츠키 원자력 발전소 확장사업(우크라이나), 2030년까지 40여개 신규 병원 건립 사업 등 (영국)

북미·태평양 건설시장 규모 추이(단위: 억불, %)



유럽 건설시장 규모 추이(단위: 억불, %)



[출처 : IHS Markit, ICAK 정책지원센터]

[출처 : IHS Markit, ICAK 정책지원센터]



Part 3.

2020년 해외건설시장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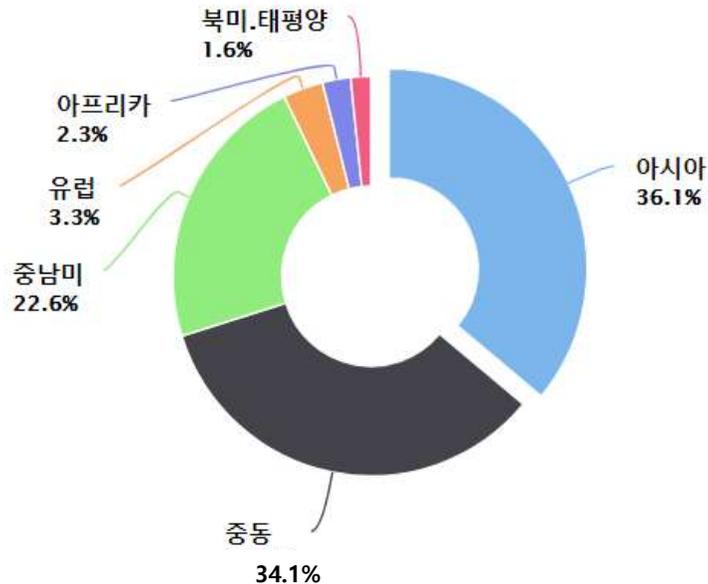
1) 해외건설 수주 현황

(코로나19 위기 속 선방) 올해 수주액은 저유가 및 세계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의한 발주 연기·감소, Lockdown 우려 속에서도 '19년 동기 대비 68% 증가한 306억불 기록 중(12.4일 기준)

- (지역별) 아시아(108→110억불), 중동(44→104억불), 중남미(1→69억불) 등
- (공종별) 산업설비(91→172억불), 토목(37→69억불), 건축(37→49억불) 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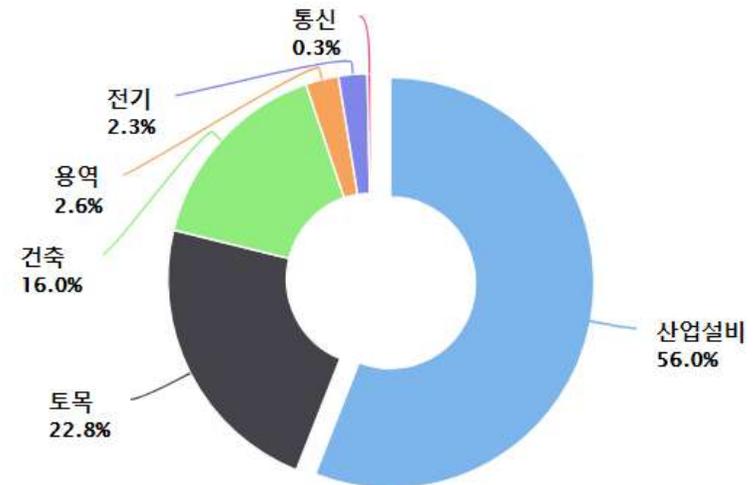
우리 해외건설기업이 정부, 공공기관이 “팀코리아(Team Korea)”를 이루어 총력을 다 한 결과, 연초 중동지역 대규모 토목·플랜트(산업설비) 수주를 시작으로, 11월 중남미지역 대형 인프라사업 수주 성공

지역별 비중



[출처 : ICAK 정책지원센터]

공종별 비중



[출처 : ICAK 정책지원센터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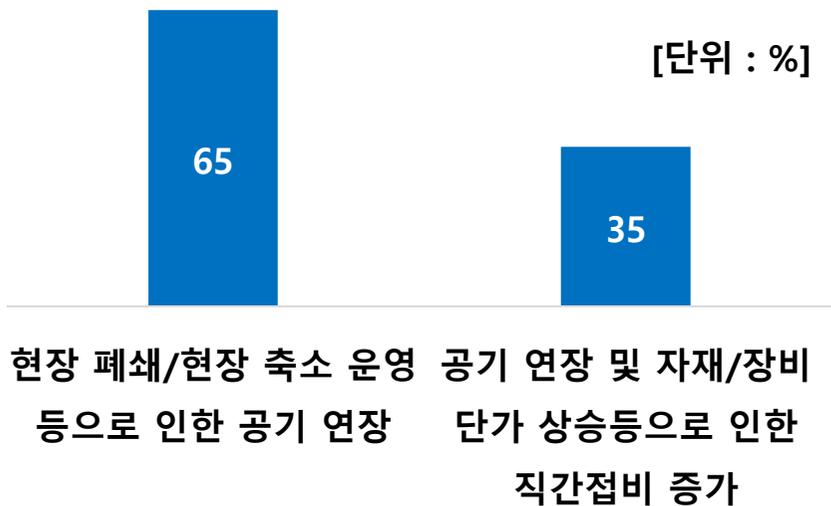
2)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건설 애로사항

코로나19로 인한 우리기업 주요 애로사항(단위: %)



[출처 : 건설산업연구원, ICAK 정책지원센터]

코로나19로 인한 발주처와의 계약 변경 협의시 예상 문제점(단위: %)



[출처 : 건설산업연구원, ICAK 정책지원센터]

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건설사 애로사항(단위: %)

| 구분 | 내용 | 결과 |
|----|------------|----|
| 1 | 회의·협상 등 취소 | 88 |
| 2 | 착공 지연 | 79 |
| 3 | 계약체결 지연 | 78 |
| 4 | 현장 운영 중단 | 68 |
| 5 | 노동력 부족 | 54 |
| 6 | 사업 취소 | 49 |
| 7 | 원자재 부족 | 42 |
| 8 | 장비 부족 | 33 |

[출처 : GlobalData(2020. 3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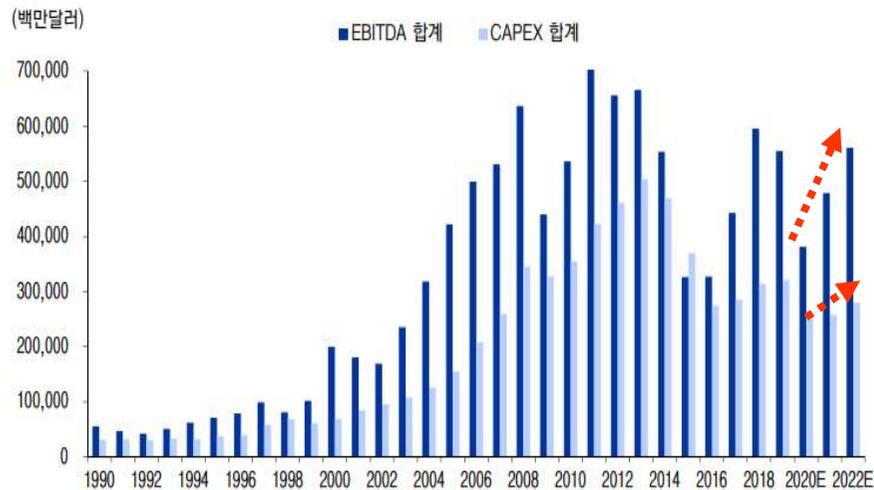
- 영국 Global Data가 코로나 19가 건설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 세계 건설 분야 경영진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임, 'Agree & Strongly agree' 라고 응답한 결과를 취합·수치화함

3) Oil & Gas 분야 투자 확대 기대 및 중동 발주 여건 호전

(Oil & Gas 투자 확대 기대) 플랜트 수주의 전방 산업인 글로벌 에너지 업체들이 '21년부터 CAPEX를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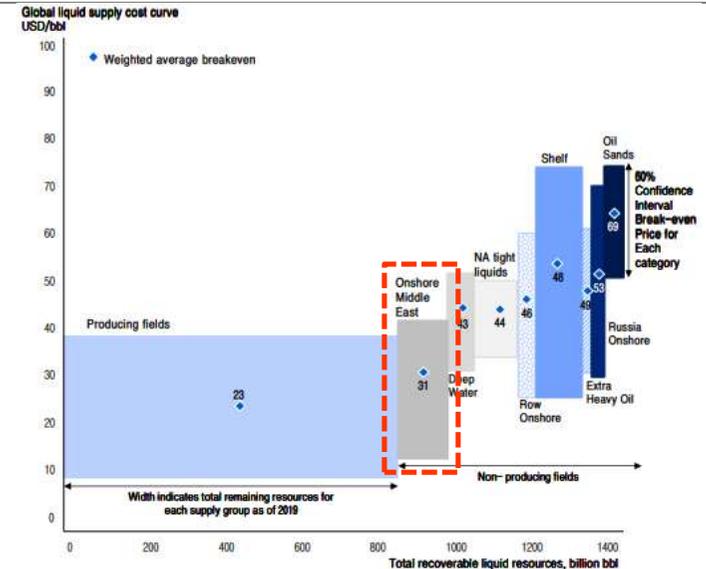
(최악에서 벗어난 중동 발주 여건) OPEC+의 감산 지속, 중동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, 국제유가의 하방 경직성은 중동 발주 여건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힘

상위 30개 에너지사의 EBITDA, CAPEX 전망



[출처 : Bloomberg, 이베스트투자증권, ICAK 정책지원센터]

원유 생산 방식별 손익분기가 되는 유가 수준



[출처 : Rystad Energy, 이베스트투자증권, ICAK 정책지원센터]

- * **EBITDA**(Earning Before Interest, Taxes,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) : 법인세, 이자,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으로, 현금흐름의 총합을 의미
- * **CAPEX**(Capital Expenditures) : 자본적 지출로, 미래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을 의미



Part 4.

아시아 주요 국가별 경제 및 건설시장 전망

1) 주요국 건설시장 심층분석(In Depth Analysis) 방법 및 기준

(주요국 건설시장 In Depth Analysis) 국가별 총 4가지 항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해당 시장의 성장성, 리스크 등을 평가, 분석하여 우리 기업의 시장 분석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지원

(항목별 분석 기준)

1. Economic Risk('21년 경제성장률)

| 평가 | 기준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Positive | If '21년 경제성장률 > 0% |
| Negative | If '21년 경제성장률 < 0% |

2. Pipeline Size(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)

| 평가 | 기준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Positive | If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> 10% |
| Neutral | If 5% <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< 10% |
| Negative | If 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 < 5% |

3. Risk Assessment(단기, 장기 Risk Score)

| 평가 | 기준 |
|----------|--|
| Positive | If 단기, 장기 Score < 세계 평균 단기, 장기 Score(8.9, 6.1) |
| Neutral | If 단기, 장기 Score, 2개 항목 중 하나 > 세계 평균 단기, 장기 Score |
| Negative | If 단기, 장기 Score > 세계 평균 단기, 장기 Score |

4. 수주 기여도(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)

| 평가 | 기준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Positive | If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> 3% |
| Neutral | If 1% <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< 3% |
| Negative | If 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 < 1% |

2) 주요국 건설시장 In Depth Analysis 1.

(분석결과 요약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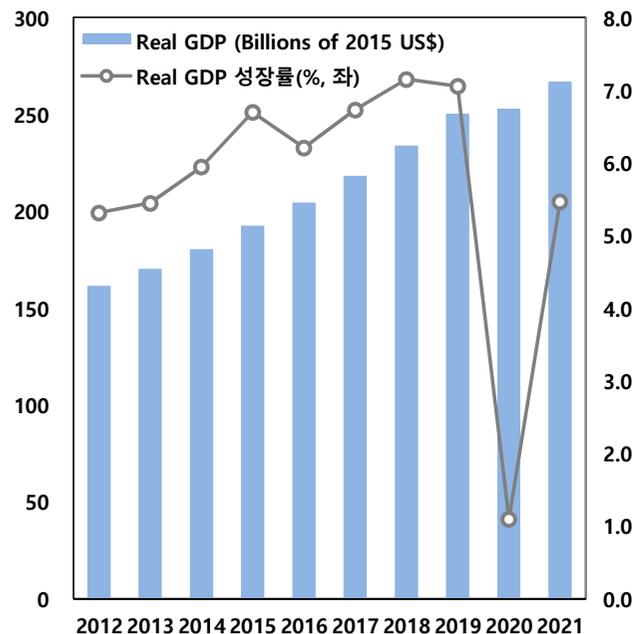
| 구분 | Economic Risk ('20, '21년 경제성장률) | Pipeline Size (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) | Risk Assessment (단기, 장기 Score) | 수주 기여도 (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) | 2021년 시장규모 | 2021년 성장률 | CAGR ('17~'21)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베트남 | Positive (1.1, 5.5) | Positive (13%) | Positive (5.9, 5.1) | Positive (7) | 348 | 12.9 | 8.5 |
| 필리핀 | Positive (-8.3, 7.7) | Positive (13%) | Positive (5.0, 4.9) | Neutral (2.3) | 516 | 9.6 | 7.6 |
| 싱가포르 | Positive (-9.1, 2.8) | Neutral (7%) | Positive (2.1, 2.0) | Positive (5.2) | 239 | 9.0 | -3.5 |
| 인도 | Positive (-6.9, 6.5) | Positive (17%) | Positive (6.4, 5.5) | Neutral (2.0) | 4,525 | 8.7 | -0.2 |
| 중국 | Positive (1.5, 7.1) | Positive (24%) | Negative (7.9, 7.1) | Neutral (2.6) | 37,348 | 7.5 | 4.2 |
| 인도네시아 | Positive (-3.0, 3.3) | Positive (33%) | Neutral (6.9, 6.2) | Neutral (2.6) | 3,495 | 6.1 | 2.7 |
| 태국 | Positive (-8.0, 4.6) | Neutral (9%) | Positive (4.0, 4.0) | Neutral (1.3) | 414 | 5.7 | 4.6 |
| 말레이시아 | Positive (-8.6, 4.6) | Positive (12%) | Positive (2.9, 2.7) | Neutral (2.8) | 409 | 4.5 | -1.4 |
| 방글라데시 | Negative (1.0, -2.7) | Positive (25%) | Neutral (8.5, 7.1) | Neutral (1.4) | 630 | 0.1 | 5.2 |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(경제) '20년 플러스 성장, '21년 5% 중반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정부 지출 증가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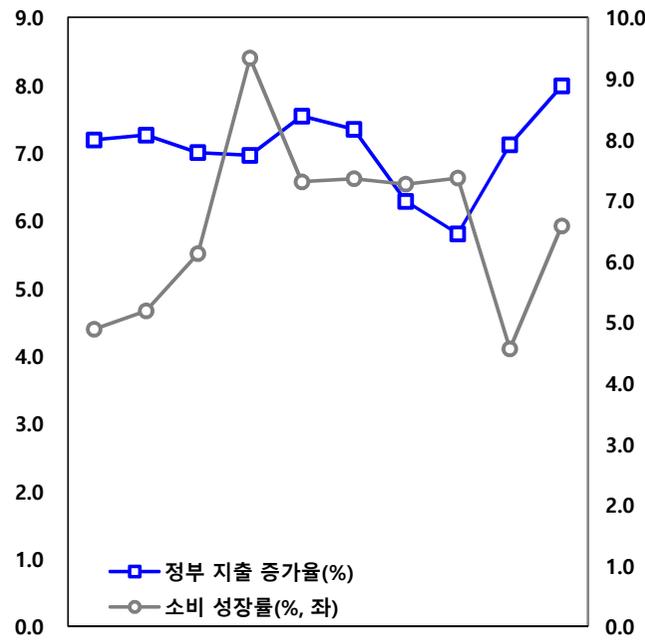
- 코로나19는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생산거점(Manufacturing base)으로 베트남의 매력을 더욱 부각시킴. '20년, '21년 GDP 성장률은 각각 1.1%, 5.5%로 코로나 확산 이전인 7%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나 비교적 양호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
- 정부 지출은 '21년 8.0%, 소비 성장률도 6.6%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정부 지출 및 소비 여력이 양호할 전망
- 고정 투자도 코로나19로 '20년 1.1%로 축소되었으나, '21년에는 8.3%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최근 5년간 평균 실업률과 유사한 2.3%로 예상됨

생산 지표(Real GDP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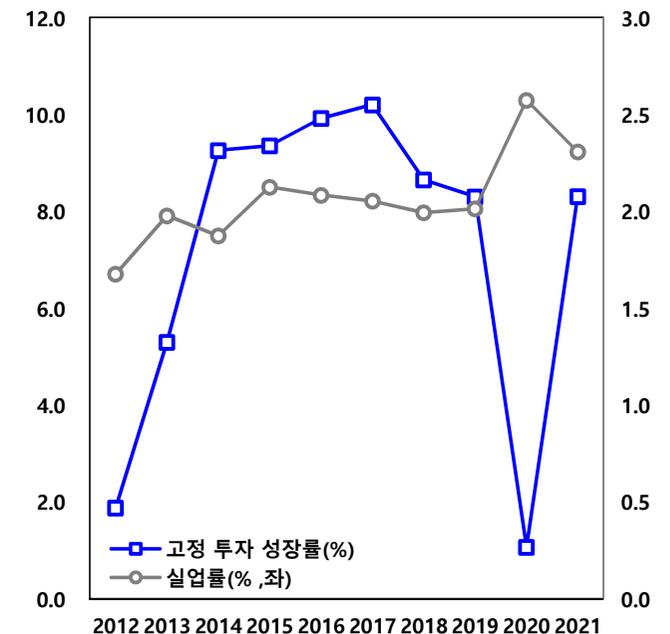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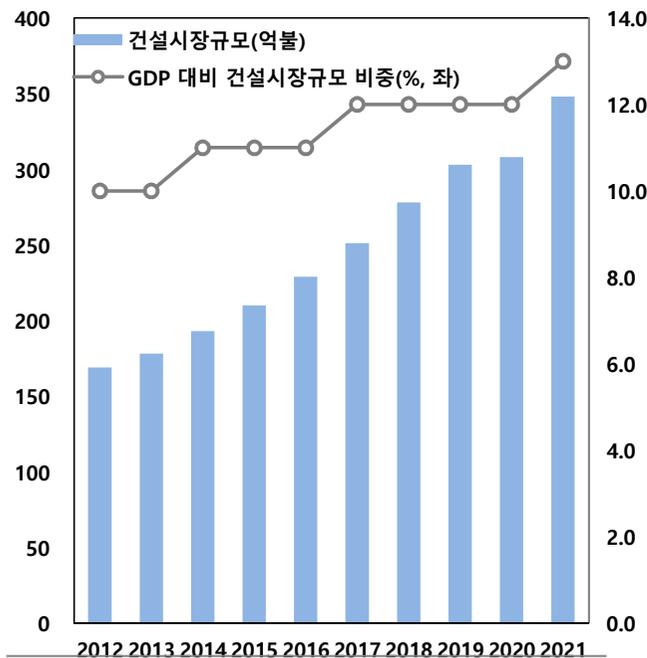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베트남. Pipeline Size

(건설시장규모)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성장세(10→11→12→13%), '21년 348억불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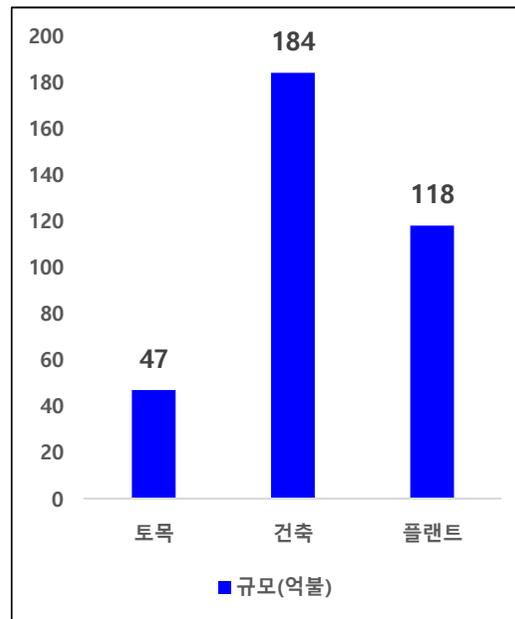
- 양호한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세로 건설시장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으로, '20년 308억불 대비 12.9% 증가한 348억불로 성장 기대
- 특히 인구 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184억불(52.9%), 발전 등 플랜트 118억불(33.9%), 교통 등 토목이 47억불(13.5%)의 규모가 예상
-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(driver)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9.3% 증가한 98백만명으로 1억명에 육박하고 있으며, 도시화율도 38% 수준으로 향후 지속 증가가 예상됨. 즉 베트남의 건설시장 성장 요인은 지속 향상되고 있음

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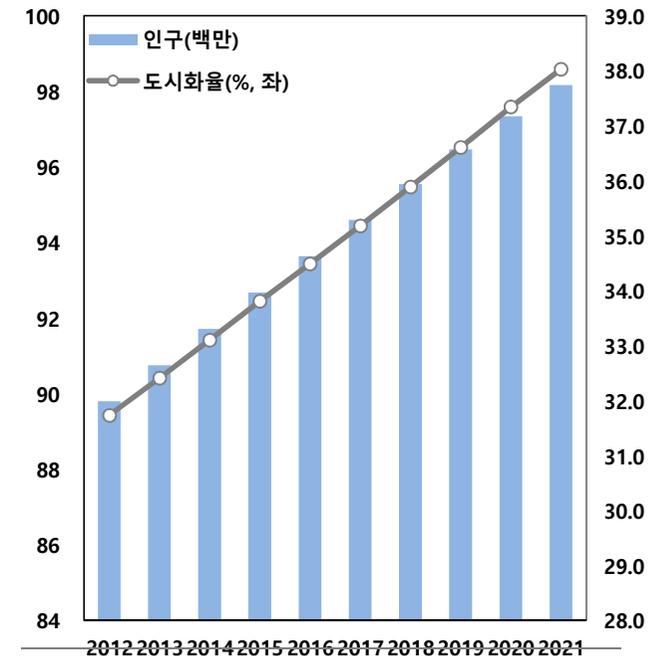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인구수 및 도시화율(Construction Drivers)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(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)

[단위 : 억불]

| 구분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토목 | 21 | 24 | 29 | 31 | 34 | 36 | 40 | 45 | 44 | 47 |
| 교통인프라 | 16 | 19 | 24 | 26 | 28 | 30 | 33 | 37 | 35 | 37 |
| 수처리 | 5 | 5 | 5 | 5 | 6 | 6 | 7 | 8 | 9 | 10 |
| 건축 | 90 | 98 | 101 | 108 | 119 | 131 | 145 | 158 | 162 | 184 |
| 주거용 | 67 | 72 | 78 | 86 | 94 | 103 | 115 | 126 | 129 | 146 |
| 오피스 | 7 | 9 | 7 | 6 | 7 | 7 | 8 | 9 | 9 | 11 |
| 상업시설 | 6 | 7 | 6 | 6 | 6 | 8 | 8 | 9 | 9 | 10 |
| 공공시설 | 10 | 10 | 10 | 10 | 12 | 13 | 14 | 14 | 15 | 17 |
| 플랜트 | 56 | 58 | 62 | 72 | 76 | 83 | 92 | 99 | 103 | 118 |
| 에너지 | 29 | 29 | 27 | 29 | 32 | 35 | 37 | 39 | 41 | 47 |
| 유틸리티 | 5 | 4 | 4 | 4 | 4 | 4 | 5 | 5 | 5 | 6 |
| 통신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
| 정유시설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
| 교통장비 등 | 2 | 2 | 2 | 2 | 2 | 2 | 2 | 2 | 2 | 3 |
| 화학시설 | 2 | 3 | 4 | 5 | 5 | 5 | 6 | 6 | 6 | 6 |
| 전기 | 2 | 3 | 4 | 6 | 7 | 9 | 10 | 13 | 15 | 18 |
| 음식료 공장 | 3 | 3 | 4 | 5 | 5 | 5 | 6 | 6 | 7 | 8 |
| 기타 | 11 | 12 | 15 | 19 | 19 | 21 | 24 | 26 | 25 | 28 |
| 총 시장규모 | 169 | 178 | 193 | 210 | 229 | 251 | 278 | 303 | 308 | 348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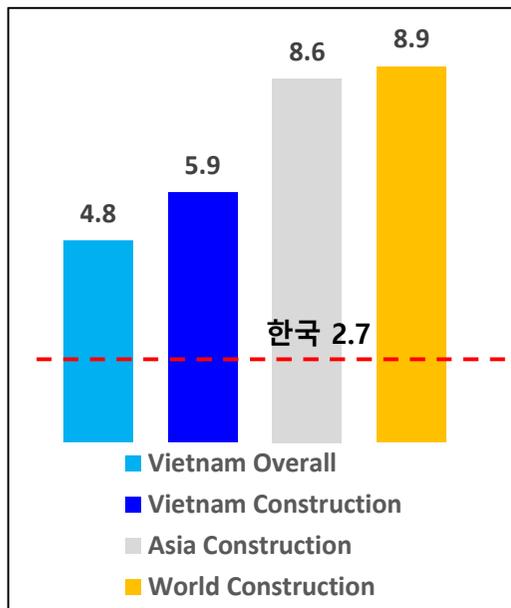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HS Markit, ICAK 등 자료 종합]

베트남. Risk assessment

성장성 뿐만 아니라 단기, 중기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보유한 베트남 건설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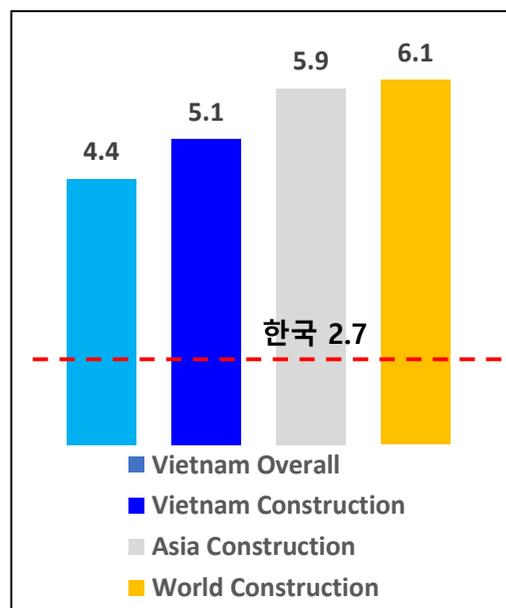
- 단기(12개월) Risk Score는 5.9로 세계건설시장(8.9), 아시아건설시장(8.6)보다 양호한 수준
- 중기(5년) Risk Score도 5.1로 세계건설시장(6.1), 아시아건설시장(5.9)보다 양호한 수준
- 최근 10년간 경상수지(Current Account Balance) 적자를 기록했던 해는 '15년, '17년으로 각각 GDP 대비 1.2%, 0.8% 수준이었으며, '18년부터 흑자가 지속(한국의 '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.9%)
- GDP 대비 외채(Total Foreign Debt) 비중은 '17년 46.5%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'21년에는 35.0% 수준으로 예상됨(한국의 '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.8% 수준)

단기(12개월) Risk Scor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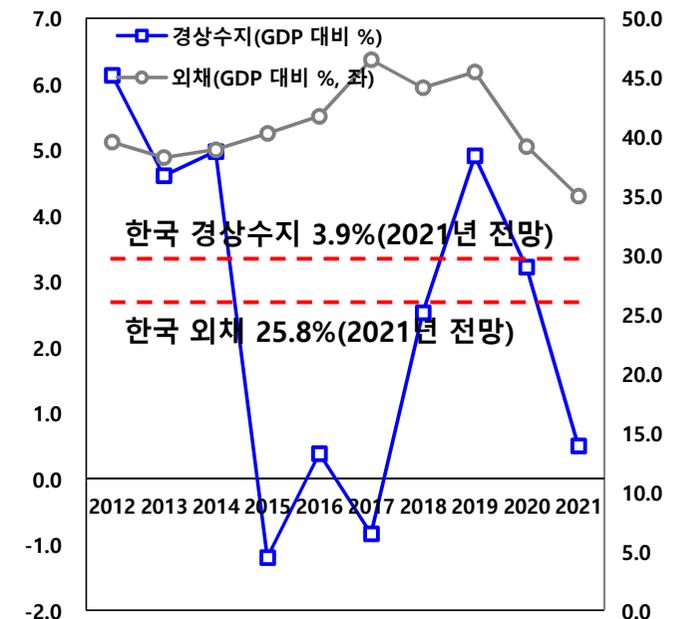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중기(5년) Risk Score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GDP 대비 경상수지, 외채 비중 추이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베트남.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

(수주 기여도)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7.0% 수준임

[단위 : 백만불]

| 구분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국가 수주액(A) | 3,459 | 3,417 | 4,044 | 3,387 | 4,497 | 2,315 | 1,205 | 4,404 | 1,650 | 2,589 | 30,967 |
| 해외건설 수주액(B) | 59,144 | 64,881 | 65,212 | 66,010 | 46,144 | 28,192 | 29,006 | 32,113 | 22,319 | 30,378 | 443,399 |
|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(A/B) | 5.8% | 5.3% | 6.2% | 5.1% | 9.7% | 8.2% | 4.2% | 13.7% | 7.4% | 8.5% | 7.0% |

[출처 : ICAK]

(종합 전망)

| 구분 | Economic Risk ('20, '21년 경제성장률) | Pipeline Size (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) | Risk Assessment (단기, 장기 Score) | 수주 기여도 (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) | 2021년 시장규모 | 2021년 성장률 | CAGR ('17~'21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베트남 | Positive (1.1, 5.5) | Positive (13%) | Positive (5.9, 5.1) | Positive (7.0) | 348 | 12.9 | 8.5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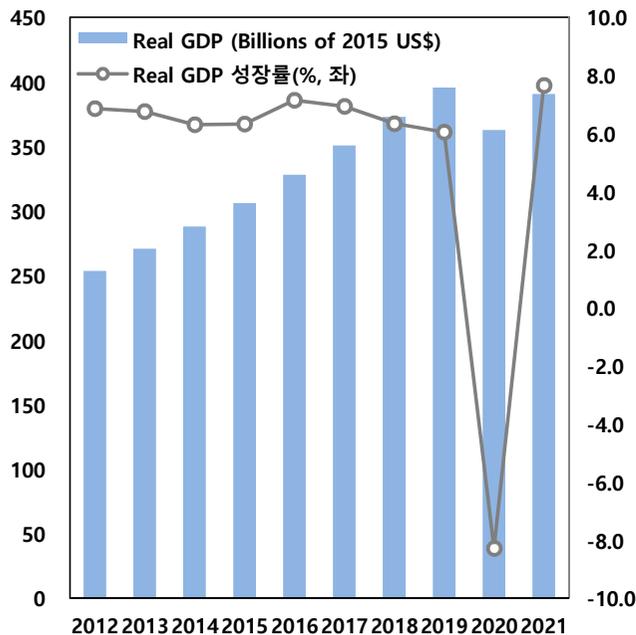
➤ 양호한 경제성장, 13%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,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, 과거 10년 평균 7.0% 수준의 수주 비중 등을 종합해 볼 때, 베트남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됨

➤ 우리 기업은 고속철도, 공항, LNG 사업 발주에 주목할 필요 있음

(경제) '20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'21년 7% 후반대의 경제 성장 및 투자 확대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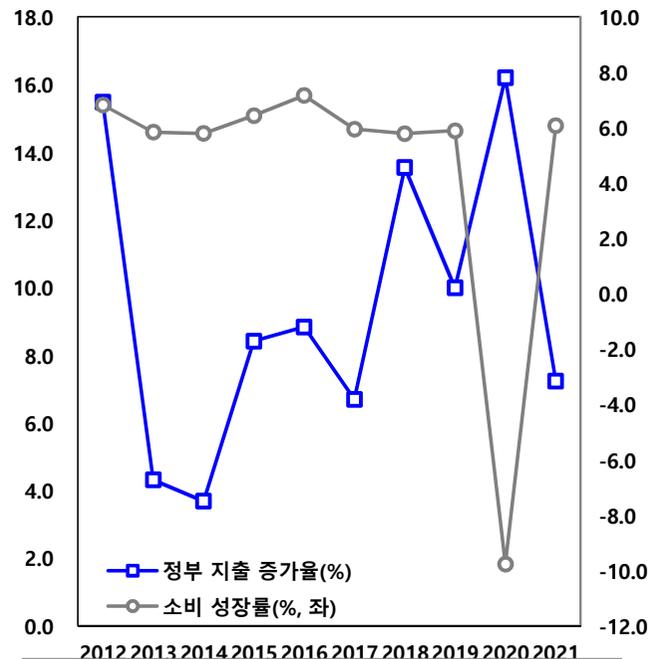
- 최근 10년 동안 매년 6~7%대 성장을 지속했으나,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'20년 8%대의 역성장 예상. 단, '21년 GDP 성장률은 7.7%로 예상되는 등 경제가 회복세로 진입할 전망
- 소비 성장률은 최근 10년 평균과 유사한 6.1%로 예상되나, 정부 지출은 '21년 7.2%로 하락 전망
- 고정 투자는 코로나19로 '20년 25.2% 역성장했으나, '21년에는 11.0%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. 실업률은 '20년을 제외하고 최근 10년간 유지된 5~7%대 실업률보다 다소 높은 7.7%로 전망

생산 지표(Real GDP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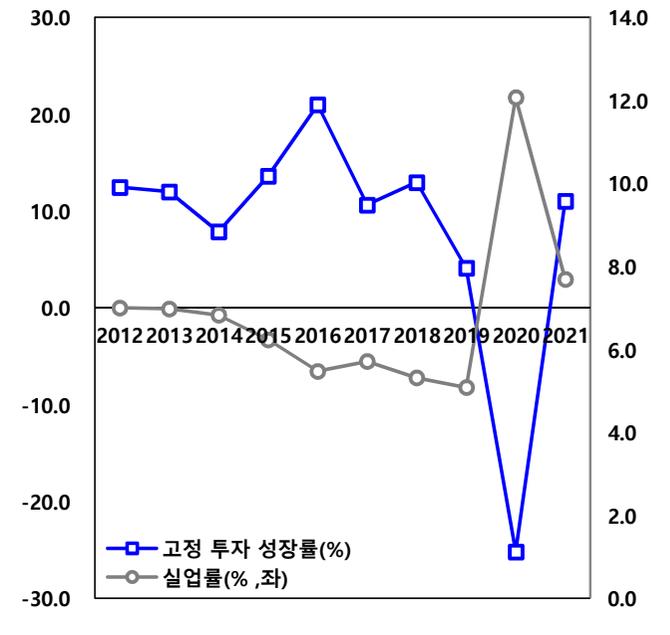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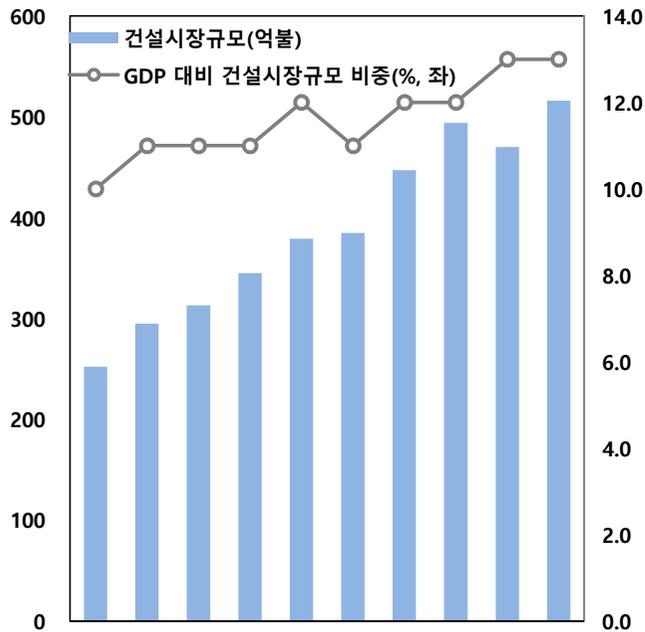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(건설시장규모)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성장세(10→11→12→13%), '21년 516억불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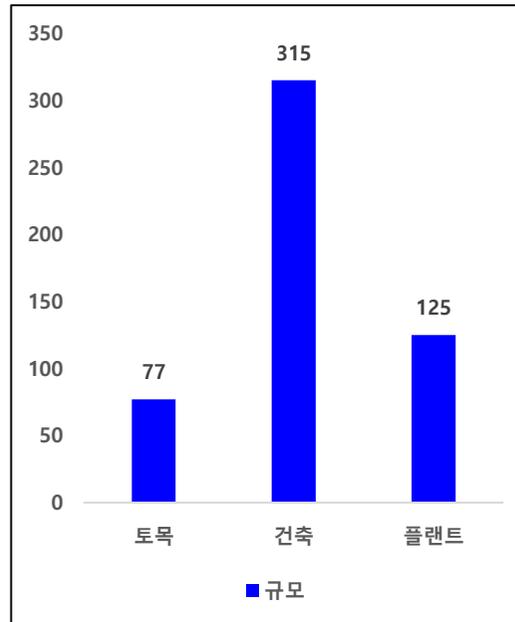
- 양호한 경제 성장 및 인구 증가세로 건설시장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으로, '20년 470억불 대비 9.8% 증가한 516억불로 성장 기대
- 특히 인구 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315억불(61.0%), 발전 등 플랜트 125억불(24.2%), 교통 등 토목이 77억불(14.9%)의 규모가 예상
-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(driver)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14.2% 증가한 111백만명이며, 도시화율도 48% 수준으로 향후 지속 증가가 예상됨. 즉 필리핀 건설시장 성장 요인은 지속 발전되고 있음

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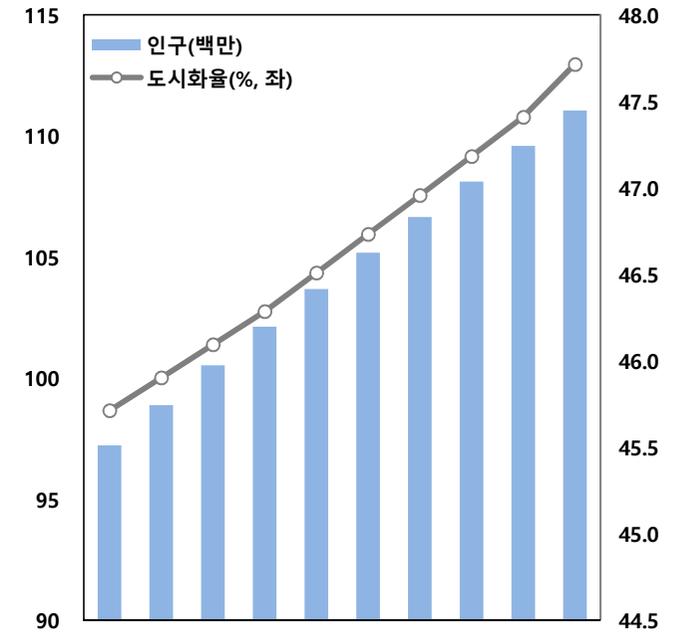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인구수 및 도시화율(Construction Drivers)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(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)

[단위 : 억불]

| 구분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토목 | 30 | 34 | 36 | 41 | 52 | 55 | 65 | 74 | 69 | 77 |
| 교통인프라 | 27 | 31 | 33 | 37 | 48 | 51 | 60 | 68 | 63 | 71 |
| 수처리 | 3 | 3 | 3 | 4 | 4 | 4 | 5 | 6 | 6 | 6 |
| 건축 | 160 | 189 | 200 | 219 | 236 | 237 | 271 | 298 | 293 | 315 |
| 주거용 | 142 | 168 | 178 | 195 | 210 | 210 | 240 | 263 | 260 | 278 |
| 오피스 | 10 | 12 | 13 | 14 | 15 | 16 | 18 | 20 | 20 | 22 |
| 상업시설 | 5 | 6 | 6 | 6 | 7 | 7 | 8 | 9 | 8 | 9 |
| 공공시설 | 3 | 3 | 3 | 4 | 4 | 4 | 5 | 6 | 5 | 6 |
| 플랜트 | 60 | 72 | 77 | 85 | 90 | 93 | 111 | 122 | 109 | 125 |
| 에너지 | 56 | 66 | 70 | 78 | 83 | 86 | 103 | 113 | 101 | 115 |
| 유틸리티 | 2 | 3 | 3 | 3 | 3 | 3 | 3 | 4 | 3 | 4 |
| 통신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2 |
| 정유시설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
| 교통장비 등 | 0 | 0 | 0 | 0 | 0 | 0 | 1 | 1 | 1 | 1 |
| 화학시설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
| 전기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
| 음식료 공장 | 0 | 0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
| 기타 | 0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
| 총 시장규모 | 252 | 295 | 313 | 345 | 379 | 385 | 447 | 494 | 470 | 516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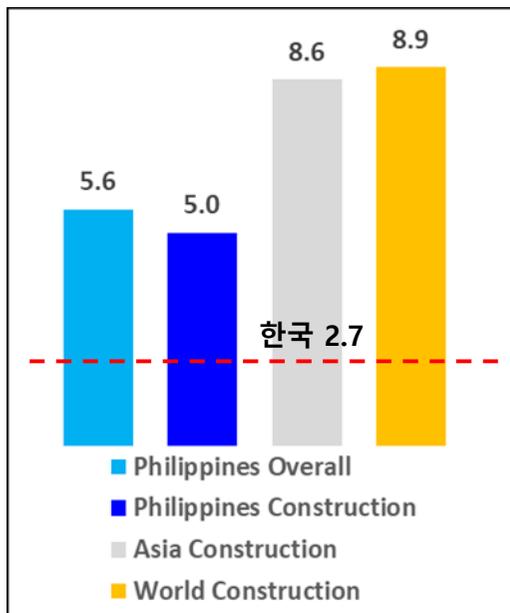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HS Markit, ICAK 등 자료 종합]

필리핀. Risk assessment

성장성 뿐만 아니라 단기, 중기 측면에서도 비교적 안정성을 보유한 필리핀 건설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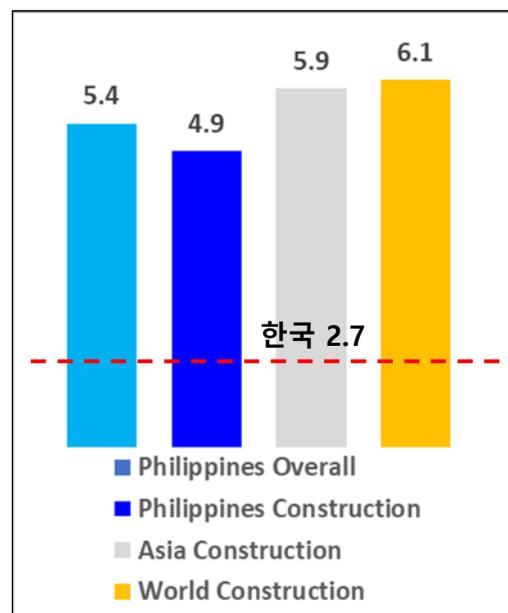
- 단기(12개월) Risk Score는 5.0로 세계건설시장(8.9), 아시아건설시장(8.6)보다 양호한 수준
- 중기(5년) Risk Score도 4.9로 세계건설시장(6.1), 아시아건설시장(5.9)보다 양호한 수준
- 최근 10년간 경상수지(Current Account Balance)를 보면, '16년 이후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(한국의 '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.9%)
- GDP 대비 외채(Total Foreign Debt) 비중은 '12년 30.5% 이후 대체적으로 감소하며 '21년에는 24.1% 수준으로 예상됨(한국의 '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.8% 수준)

단기(12개월) Risk Scor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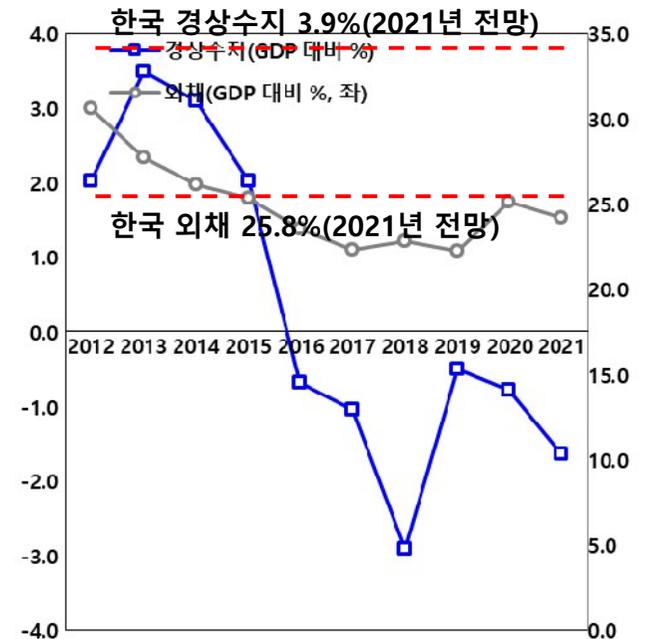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중기(5년) Risk Score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GDP 대비 경상수지, 외채 비중 추이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필리핀.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

(수주 기여도)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2.3% 수준임

[단위 : 백만불]

| 구분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국가 수주액(A) | 2,580 | 721 | 480 | 1,604 | 919 | 1,584 | 357 | 772 | 175 | 1,128 | 10,320 |
| 해외건설 수주액(B) | 59,144 | 64,881 | 65,212 | 66,010 | 46,144 | 28,192 | 29,006 | 32,113 | 22,319 | 30,378 | 443,399 |
|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(A/B) | 4.4% | 1.1% | 0.7% | 2.4% | 2.0% | 5.6% | 1.2% | 2.4% | 0.8% | 3.7% | 2.3% |

[출처 : ICAK]

(종합 전망)

| 구분 | Economic Risk ('20, '21년 경제성장률) | Pipeline Size (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) | Risk Assessment (단기, 장기 Score) | 수주 기여도 (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) | 2021년 시장규모 | 2021년 성장률 | CAGR ('17~'21) |
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필리핀 | Positive (-8.3, 7.7) | Positive (13%) | Positive (5.0, 4.9) | Neutral (2.3) | 516 | 9.6 | 7.6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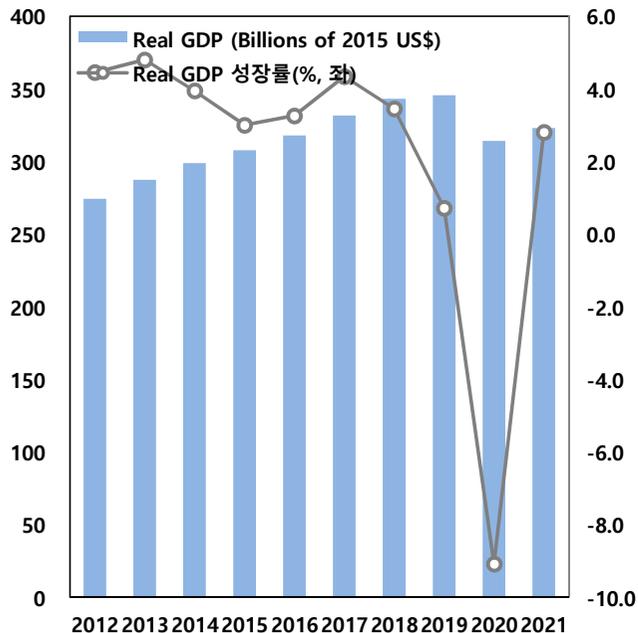
➤ 7%대의 경제성장, 13%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,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를 분석해 볼 때 긍정적인 사업 환경으로 평가됨. 단, 과거 10년 평균 2.3% 수준의 수주 비중을 볼 때 앞서 살펴본 항목보다는 다소 중립적으로 평가. 종합적으로 볼 때, 필리핀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됨

➤ 도로 등 교통인프라, 제철소, 정유 플랜트 사업 기회가 풍부해질 전망

(경제) '20년 마이너스 성장에서 벗어나 '21년 2% 후반대의 경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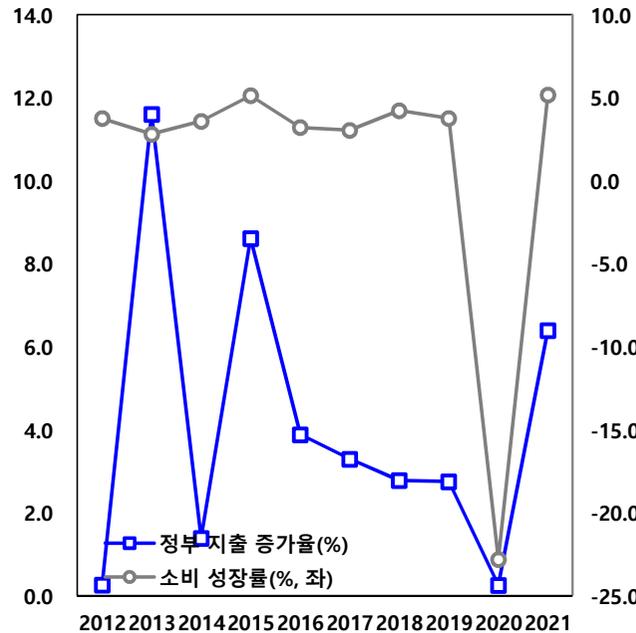
- 최근 10년 동안 매년 3~4%대 성장을 지속했으나,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'20년 9%대의 역성장 예상. 단, '21년 GDP 성장률은 2.8%로 예상되는 등 경제가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
- 소비 성장률은 5.2%로 예상되며, 정부 지출 증가율은 코로나 이전보다 다소 높은 6.4%로 전망
- 고정 투자 성장률은 1.5%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, 2%대를 유지하던 실업률은 3.5%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

생산 지표(Real GDP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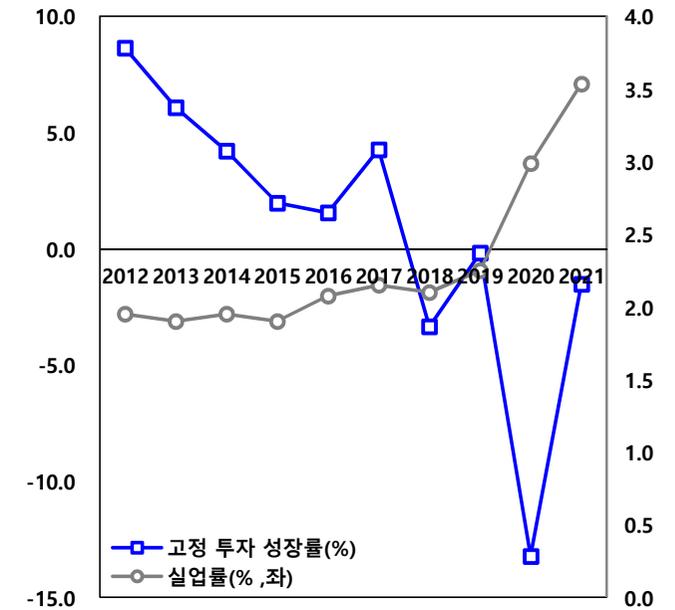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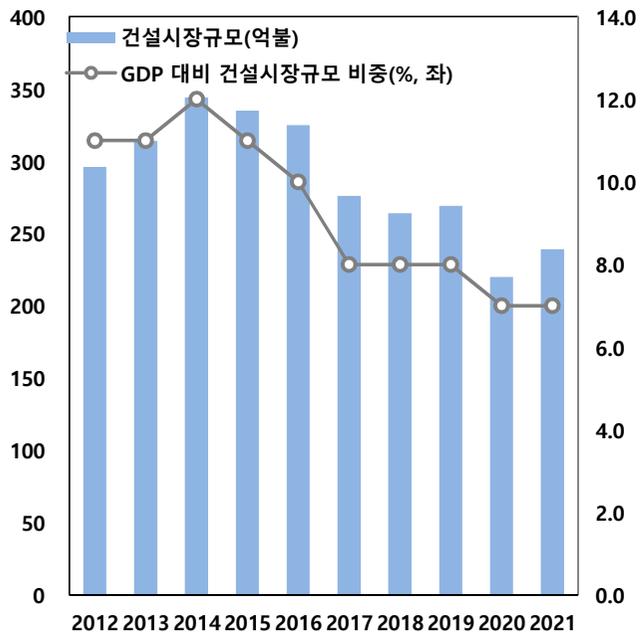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싱가포르. Pipeline Size

(건설시장규모)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감소세(11→12→8→7%), '21년 239억불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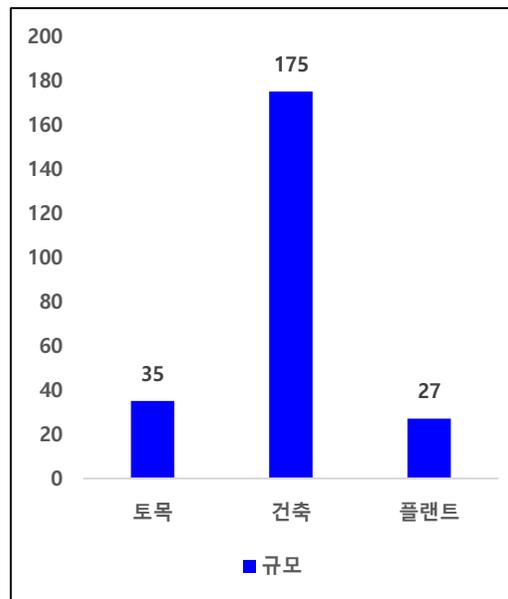
- 5만불대의 1인당 GDP 규모, 2~3%대의 경제 성장률,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감소세 등을 볼 때, 싱가포르 건설시장규모가 지속 성장하기 보다는 사업 안정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됨. '20년 220억불 대비 8.6% 증가한 239억불로 전망
-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175억불(73.2%), 발전 등 플랜트 27억불(11.3%), 교통 등 토목이 35억불(14.6%)의 규모가 예상
-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(driver)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9.8% 증가한 5.9백만명이며, 도시화율은 100%로 향후 건설시장 성장성은 다소 부족

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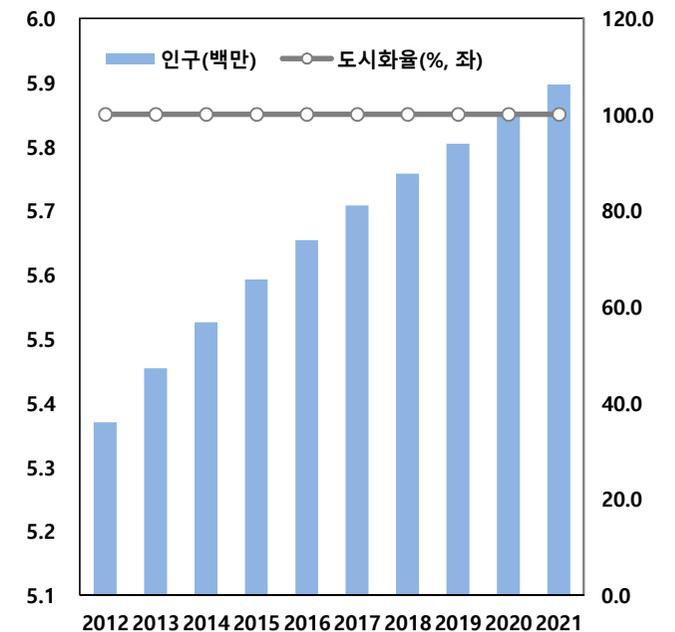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인구수 및 도시화율(Construction Drivers)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(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)

[단위 : 억불]

| 구분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토목 | 34 | 34 | 42 | 42 | 44 | 39 | 39 | 42 | 32 | 35 |
| 교통인프라 | 29 | 29 | 36 | 36 | 37 | 34 | 34 | 36 | 27 | 30 |
| 수처리 | 5 | 5 | 6 | 6 | 7 | 5 | 5 | 6 | 5 | 5 |
| 건축 | 223 | 244 | 264 | 258 | 244 | 201 | 188 | 189 | 159 | 175 |
| 주거용 | 144 | 161 | 173 | 169 | 155 | 122 | 113 | 111 | 93 | 101 |
| 오피스 | 52 | 55 | 61 | 60 | 59 | 53 | 51 | 54 | 45 | 51 |
| 상업시설 | 14 | 14 | 15 | 14 | 15 | 13 | 12 | 12 | 10 | 11 |
| 공공시설 | 13 | 14 | 15 | 15 | 15 | 13 | 12 | 12 | 11 | 12 |
| 플랜트 | 38 | 36 | 39 | 37 | 38 | 32 | 34 | 36 | 27 | 27 |
| 에너지 | 9 | 8 | 10 | 10 | 11 | 9 | 9 | 10 | 8 | 9 |
| 유틸리티 | 2 | 2 | 2 | 2 | 2 | 1 | 1 | 2 | 1 | 1 |
| 통신 | 3 | 3 | 3 | 3 | 3 | 2 | 2 | 2 | 2 | 2 |
| 정유시설 | 1 | 1 | 1 | 1 | 1 | 0 | 0 | 0 | 0 | 0 |
| 교통장비 등 | 1 | 1 | 1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
| 화학시설 | 6 | 6 | 7 | 7 | 9 | 7 | 7 | 7 | 5 | 5 |
| 전기 | 14 | 13 | 13 | 12 | 10 | 12 | 14 | 14 | 10 | 9 |
| 음식료 공장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
| 기타 | 2 | 2 | 2 | 2 | 2 | 1 | 1 | 1 | 1 | 1 |
| 총 시장규모 | 296 | 314 | 344 | 335 | 325 | 276 | 264 | 269 | 220 | 239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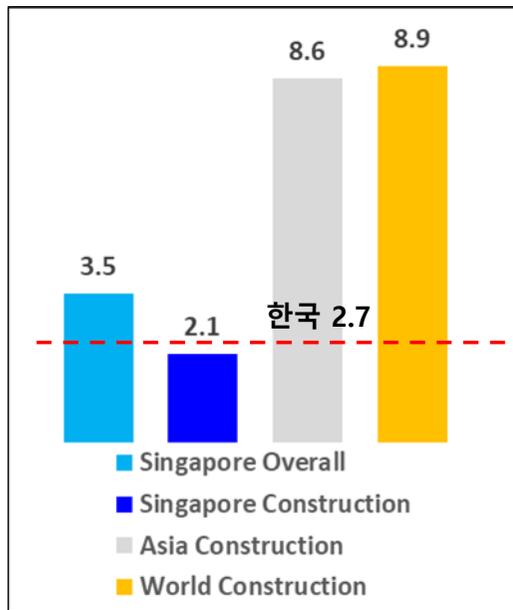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HS Markit, ICAK 등 자료 종합]

싱가포르. Risk assessment

성장성 뿐만 아니라 단기, 중기 측면에서도 매우 안정적인 필리핀 건설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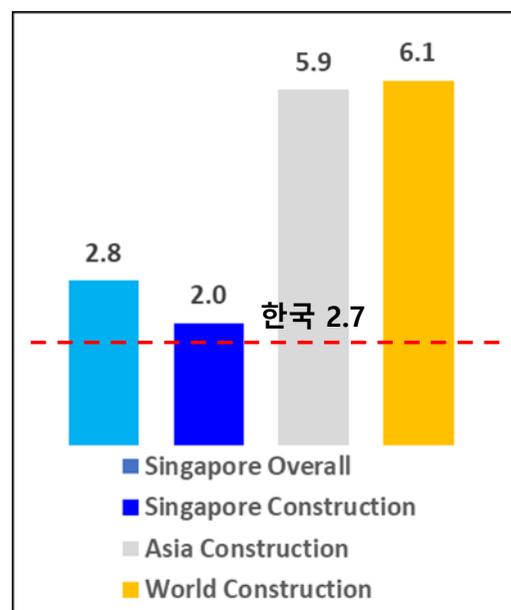
- 단기(12개월) Risk Score는 2.1로 세계건설시장(8.9), 아시아건설시장(8.6)보다 상당히 수준
- 중기(5년) Risk Score도 2.0로 세계건설시장(6.1), 아시아건설시장(5.9)보다 상당히 수준
- 최근 10년간 경상수지(Current Account Balance)를 보면,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, '21년에는 GDP의 19.2%임(한국의 '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.9%)
- GDP 대비 외채(Total Foreign Debt) 비중은 400% 이상이나, 외환보유액 등을 고려할 때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됨(한국의 '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.8% 수준)

단기(12개월) Risk Scor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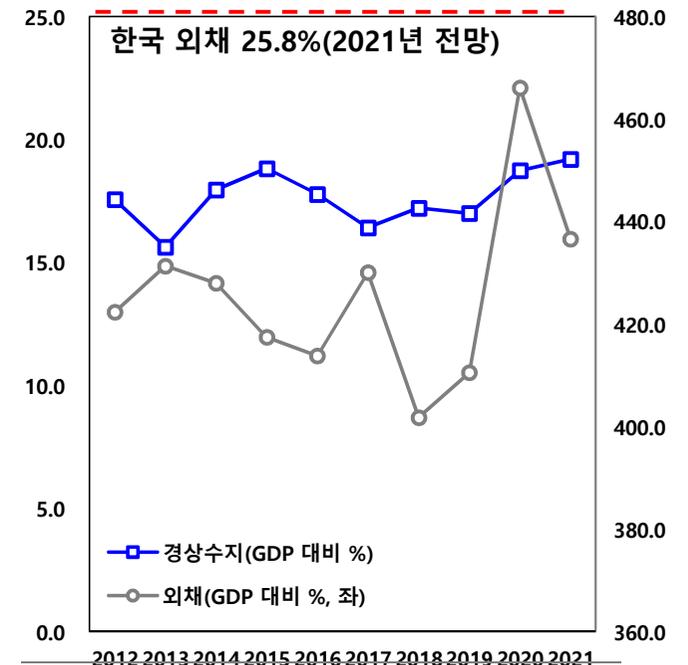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중기(5년) Risk Score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GDP 대비 경상수지, 외채 비중 추이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싱가포르.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

(수주 기여도)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5.2% 수준임

[단위 : 백만불]

| 구분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국가 수주액(A) | 3,290 | 3,345 | 3,516 | 1,770 | 2,578 | 2,787 | 944 | 2,584 | 1,288 | 1,034 | 23,136 |
| 해외건설 수주액(B) | 59,144 | 64,881 | 65,212 | 66,010 | 46,144 | 28,192 | 29,006 | 32,113 | 22,319 | 30,378 | 443,399 |
|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(A/B) | 5.6% | 5.2% | 5.4% | 2.7% | 5.6% | 9.9% | 3.3% | 8.0% | 5.8% | 3.4% | 5.2% |

[출처 : ICAK]

(종합 전망)

| 구분 | Economic Risk (’20, ’21년 경제성장률) | Pipeline Size (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) | Risk Assessment (단기, 장기 Score) | 수주 기여도 (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) | 2021년 시장규모 | 2021년 성장률 | CAGR (’17~’21)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싱가포르 | Positive (-9.1, 2.8) | Neutral (7.0%) | Positive (2.1, 2.0) | Positive (5.2) | 239 | 9.0 | -3.5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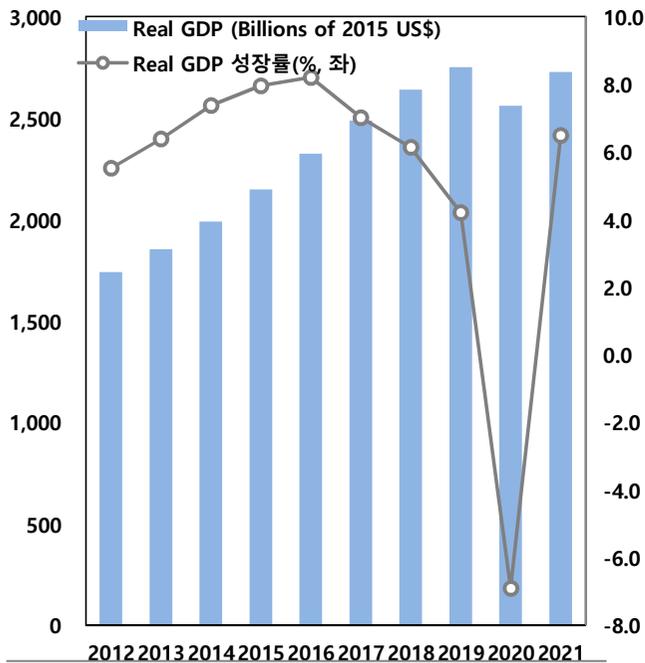
- 2%대 후반의 경제성장,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, 과거 10년 평균 5.2% 수준의 수주 비중을 볼 때 긍정적으로 평가. 단, 7%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으로 본 건설시장규모는 다소 아쉬우나, 성숙기에 접어든 건설시장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으로 평가됨

➤ **메트로, 교량, LNG 플랜트 사업 기회가 풍부해질 전망**

(경제) '20년 역성장, '21년 6% 중반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점진적 경제 회복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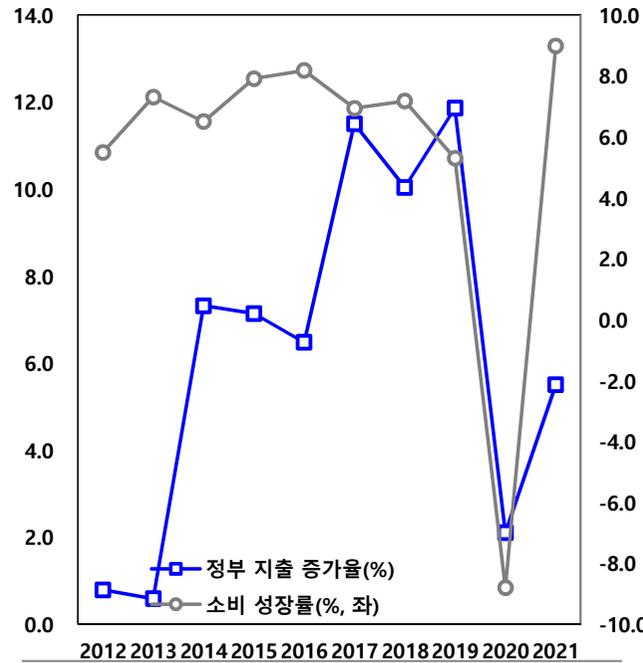
- '20년, '21년 GDP 성장률은 각각 -6.9%, 6.5%로 코로나 확산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이며, 백신 개발 완료 및 상용화 시기가 앞당겨진다면 그 성장세는 더욱 빨라질 전망
- 정부 지출 증가율은 '21년 5.5%, 소비 성장률도 9.0%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정부 지출 및 소비 여력이 양호할 전망
- 고정 투자 성장률은 코로나19로 '20년 13.9% 역성장했으나, '21년에는 4.9%로 다소 회복할 것으로 예상됨. 단. 실업률은 11%대로 높아질 전망

생산 지표(Real GDP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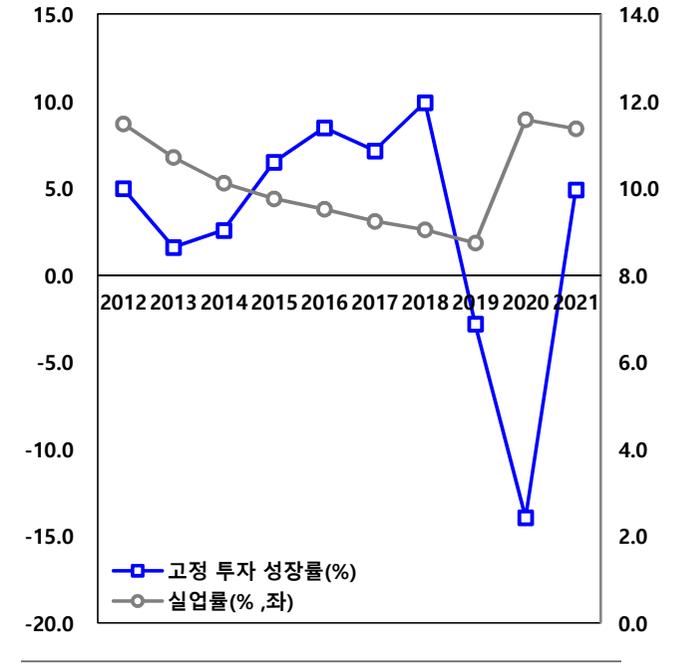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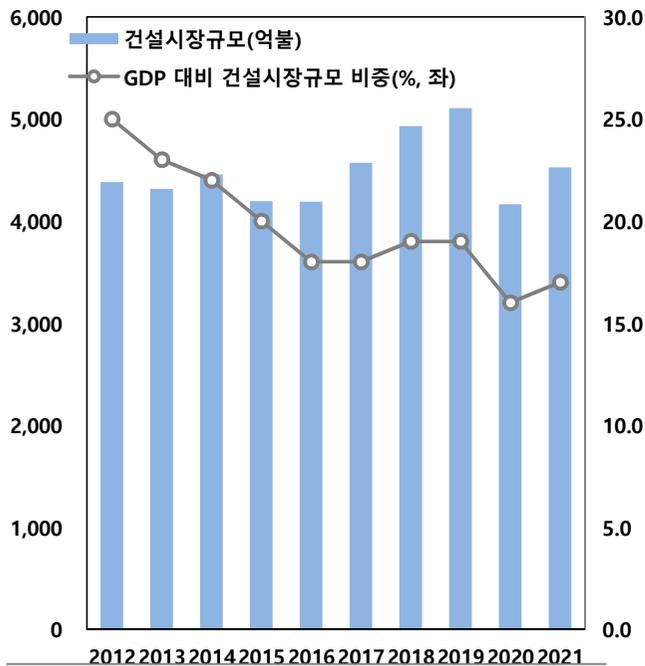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인도. Pipeline Size

(건설시장규모)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(25→18→16→17%), '21년 4,525억불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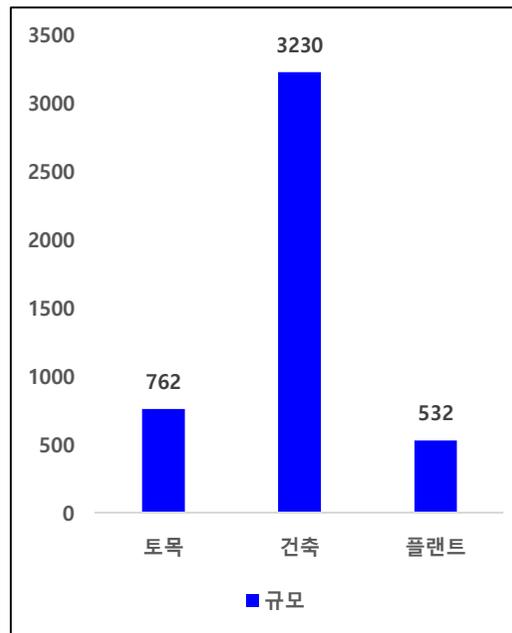
- 14억에 이르는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이 다소 감소 하고 있으나, 타국가 대비 높은 수준임. '20년 4,164억불 대비 8.7% 증가한 4,525억불로 성장 기대
- 특히 인구 증가 및 도시화율 상승 등으로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3,230억불(71.4%), 발전 등 플랜트 532억불(11.8%), 교통 등 토목이 762억불(16.8%)의 규모가 예상
-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(driver)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10.1% 증가한 13억 93백만명으로 14억명에 육박하고 있으며, 도시화율도 35% 수준으로 향후 지속 증가가 예상됨

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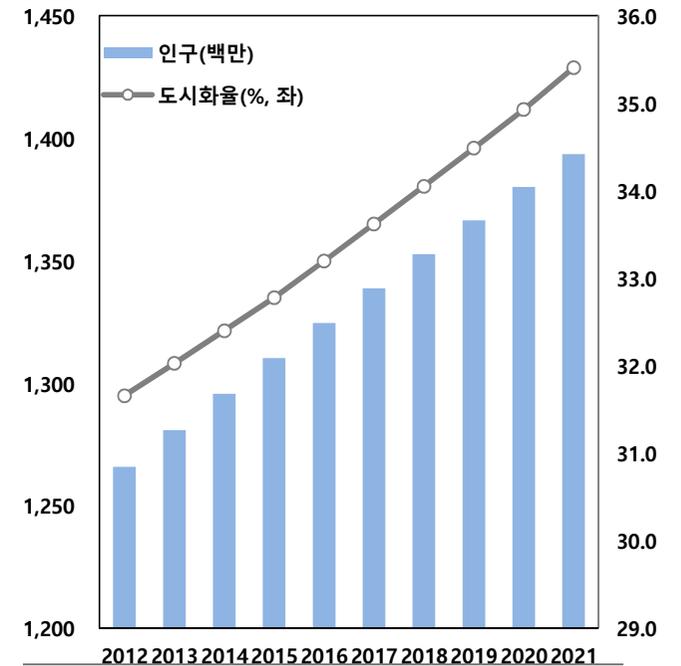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인구수 및 도시화율(Construction Drivers)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(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)

[단위 : 억불]

| 구분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토목 | 436 | 424 | 487 | 495 | 547 | 648 | 741 | 819 | 669 | 762 |
| 교통인프라 | 248 | 223 | 249 | 253 | 317 | 439 | 508 | 574 | 453 | 516 |
| 수처리 | 188 | 201 | 238 | 242 | 230 | 209 | 233 | 245 | 216 | 246 |
| 건축 | 3,424 | 3,267 | 3,402 | 3,148 | 3,130 | 3,400 | 3,617 | 3,695 | 3,008 | 3,230 |
| 주거용 | 2,564 | 2,380 | 2,439 | 2,262 | 2,232 | 2,417 | 2,556 | 2,605 | 2,088 | 2,248 |
| 오피스 | 485 | 560 | 583 | 497 | 487 | 528 | 572 | 585 | 478 | 512 |
| 상업시설 | 191 | 121 | 176 | 166 | 173 | 202 | 195 | 197 | 164 | 167 |
| 공공시설 | 184 | 206 | 204 | 223 | 238 | 253 | 294 | 308 | 278 | 303 |
| 플랜트 | 523 | 623 | 566 | 551 | 512 | 521 | 572 | 589 | 486 | 532 |
| 에너지 | 274 | 348 | 329 | 305 | 287 | 291 | 319 | 318 | 251 | 287 |
| 유틸리티 | 81 | 86 | 80 | 88 | 73 | 64 | 72 | 77 | 68 | 70 |
| 통신 | 10 | 21 | 9 | 19 | 16 | 27 | 27 | 30 | 28 | 28 |
| 정유시설 | 8 | 22 | 24 | 25 | 28 | 29 | 33 | 32 | 23 | 26 |
| 교통장비 등 | 25 | 18 | 14 | 13 | 12 | 12 | 14 | 14 | 11 | 12 |
| 화학시설 | 27 | 26 | 23 | 27 | 27 | 29 | 32 | 35 | 33 | 34 |
| 전기 | 5 | 5 | 4 | 4 | 4 | 4 | 4 | 4 | 4 | 4 |
| 음식료 공장 | 14 | 14 | 15 | 13 | 11 | 11 | 13 | 15 | 15 | 15 |
| 기타 | 79 | 83 | 68 | 57 | 54 | 54 | 58 | 64 | 53 | 56 |
| 총 시장규모 | 4,382 | 4,314 | 4,457 | 4,194 | 4,188 | 4,569 | 4,930 | 5,106 | 4,164 | 4,525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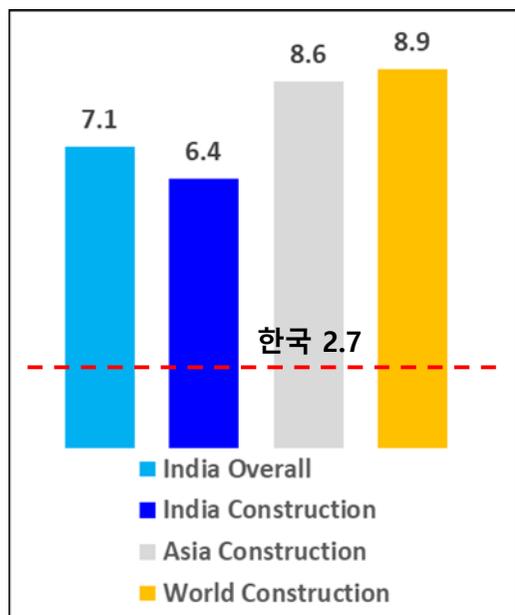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HS Markit, ICAK 등 자료 종합]

인도. Risk assessment

단기보다는 중기적 측면에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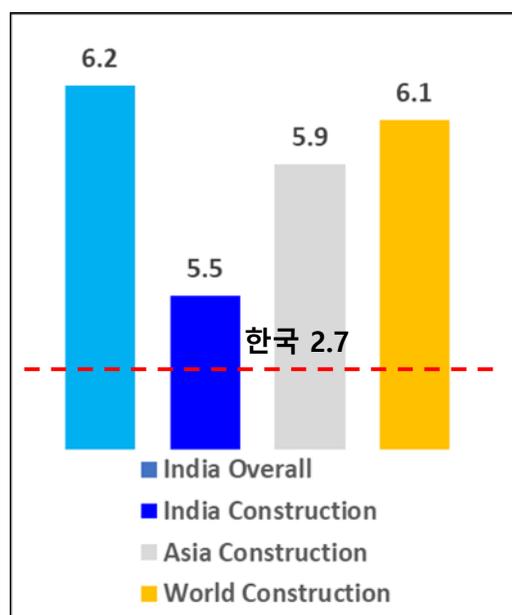
- 단기(12개월) Risk Score는 6.4로 세계건설시장(8.9), 아시아건설시장(8.6)보다 양호한 수준
- 중기(5년) Risk Score도 5.5로 세계건설시장(6.1), 아시아건설시장(5.9)보다 양호한 수준
- 최근 10년간 경상수지(Current Account Balance)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나, GDP 대비 1~2% 수준(한국의 '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.9%)
- GDP 대비 외채(Total Foreign Debt) 비중은 지속 상승 추세로 '21년에는 28.2% 수준으로 예상됨(한국의 '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.8% 수준)

단기(12개월) Risk Scor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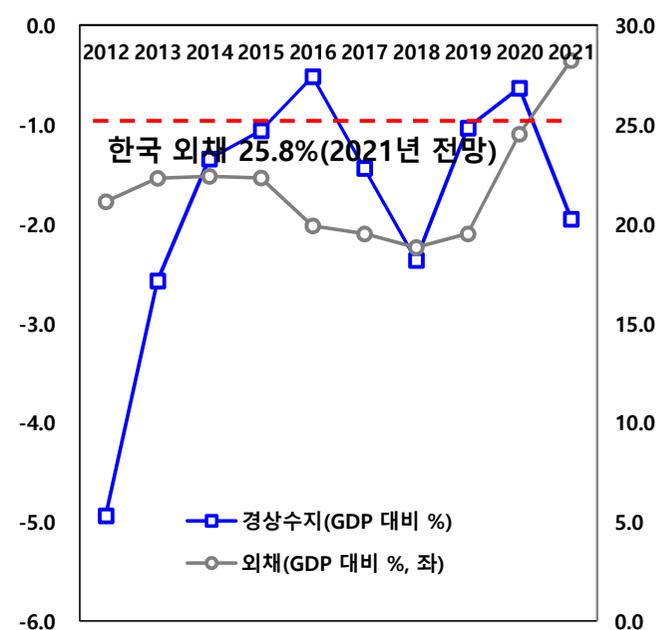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중기(5년) Risk Score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GDP 대비 경상수지, 외채 비중 추이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인도.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

(수주 기여도)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2.0% 수준임

[단위 : 백만불]

| 구분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국가 수주액(A) | 977 | 759 | 1,294 | 888 | 70 | 764 | 2,916 | 895 | 366 | 70 | 8,999 |
| 해외건설 수주액(B) | 59,144 | 64,881 | 65,212 | 66,010 | 46,144 | 28,192 | 29,006 | 32,113 | 22,319 | 30,378 | 443,399 |
|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(A/B) | 1.7% | 1.2% | 2.0% | 1.3% | 0.2% | 2.7% | 10.1% | 2.8% | 1.6% | 0.2% | 2.0% |

[출처 : ICAK]

(종합 전망)

| 구분 | Economic Risk ('20, '21년 경제성장률) | Pipeline Size (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) | Risk Assessment (단기, 장기 Score) | 수주 기여도 (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) | 2021년 시장규모 | 2021년 성장률 | CAGR ('17~'21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인도 | Positive (-6.9, 6.5) | Positive (17%) | Positive (6.4, 5.5) | Neutral (2.0) | 4,525 | 8.7 | -0.2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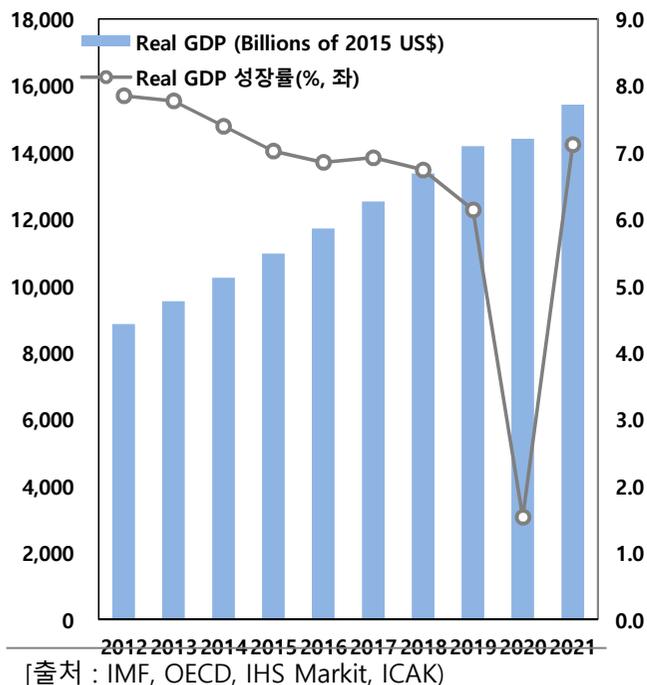
- 6%대 중반의 경제성장, 17%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,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를 분석해 볼 때 긍정적인 사업 환경으로 평가됨. 단, 과거 10년 평균 2.3% 수준의 수주 비중을 볼 때 앞서 살펴본 항목보다는 다소 중립적으로 평가. 하지만 인도의 큰 시장규모 및 우리기업의 신시장 진출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볼 때, 인도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됨

➤ 고속철도, 태양광 등 신재생발전, 제철소 사업 발주가 기대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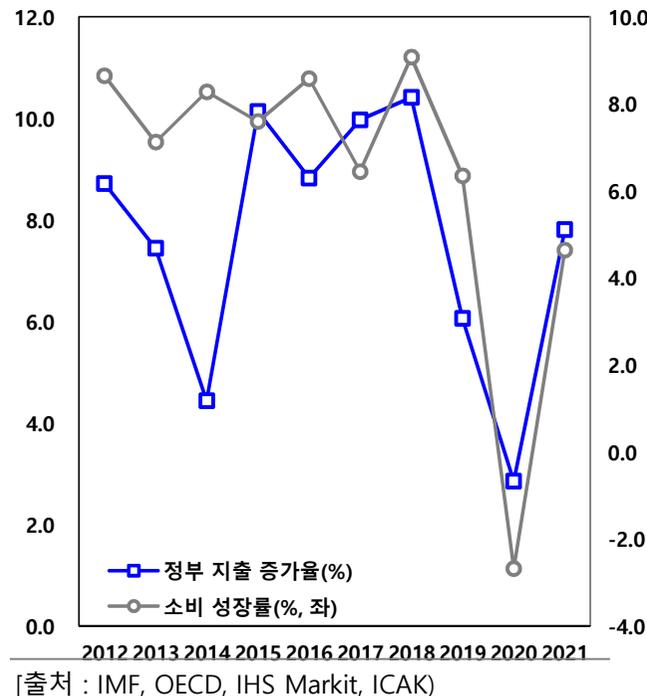
(경제) '20년 플러스 성장, '21년 7%대의 경제 성장 및 정부 지출, 고정 투자 증가세

- 최근 10년 동안 매년 6~8%대 성장을 지속했으나,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'20년 1.5% 성장 예상. 단, '21년 GDP 성장률은 7.1%로 예상되는 등 전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
- 소비 성장률은 4.6%로 예상되며, 정부 지출 증가율은 '21년 7.8%로 증가 전망
- 고정 투자 성장률은 7.5%로 성장폭이 클 것으로 전망되나, 3~4%대를 유지하던 실업률은 4.2%로 다소 상승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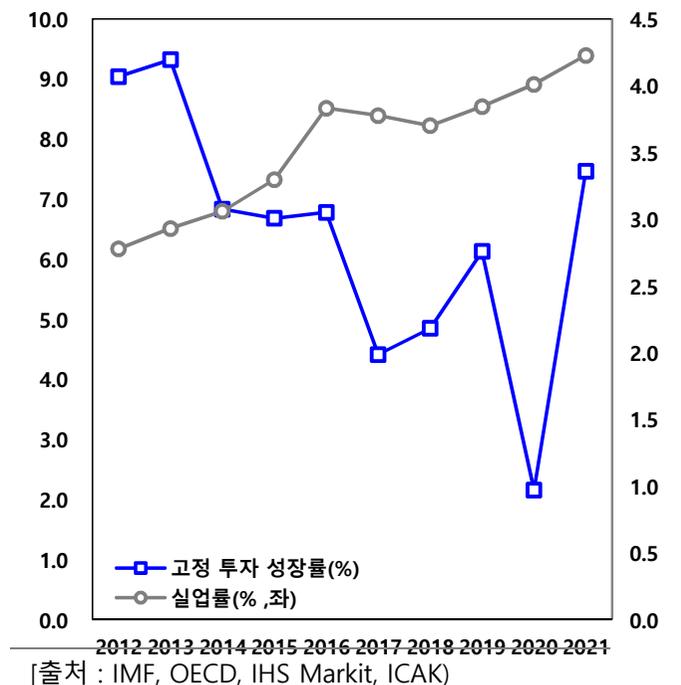
생산 지표(Real GDP 등)



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



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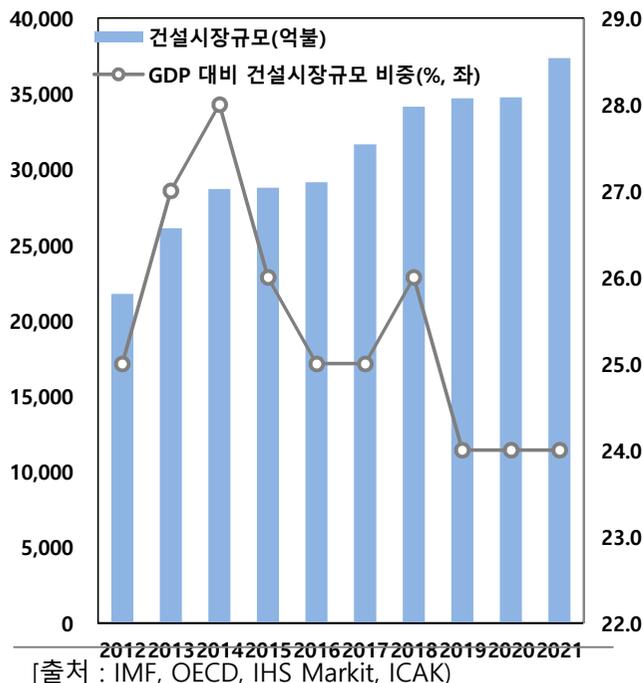


중국. Pipeline Siz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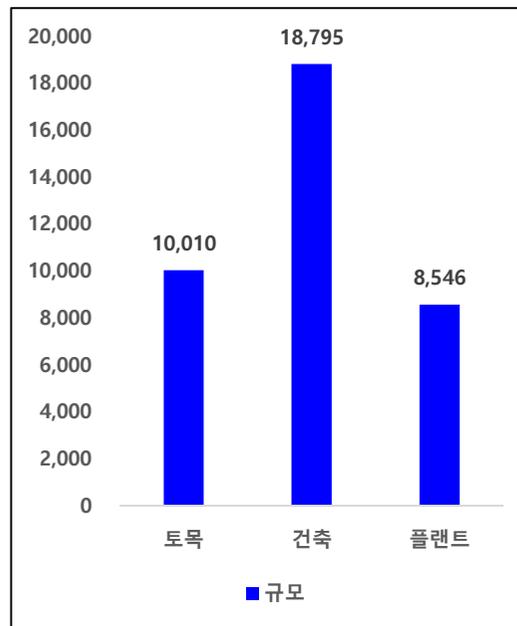
(건설시장규모)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은 24% 이상으로,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임. '21년 '20년 대비 7.5% 증가한 3조 7,348억불 예상

- 14억명 이상의 인구 및 7%대 경제 성장 등으로 건설시장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으로, '20년 3조 4,746억 불 대비 7.5% 증가한 3조 7,348억불로 성장 기대
- 특히 인구 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1조 8,795억불(50.3%), 발전 등 플랜트 8,546억 불(22.9%), 교통 등 토목이 1조 10억불(26.8%)의 규모가 예상
-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(driver)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4.3% 증가한 14억 44백만명으로 지속 증가 하고 있으며, 도시화율은 62.4% 수준으로 지속 증가가 예상됨. 즉 중국의 건설시장 성장 요인은 지속 향상 되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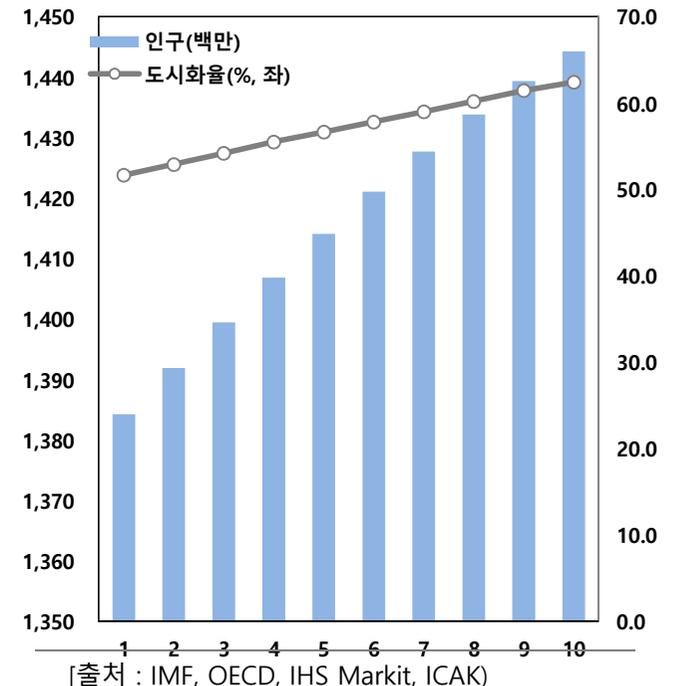
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



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



인구수 및 도시화율(Construction Drivers)



(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)

[단위 : 억불]

| 구분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토목 | 4,287 | 5,047 | 5,792 | 6,244 | 6,866 | 8,179 | 9,092 | 9,349 | 9,465 | 10,010 |
| 교통인프라 | 3,406 | 3,938 | 4,501 | 4,776 | 5,110 | 6,071 | 6,612 | 6,633 | 6,741 | 7,188 |
| 수처리 | 881 | 1,109 | 1,291 | 1,468 | 1,756 | 2,108 | 2,480 | 2,716 | 2,724 | 2,822 |
| 건축 | 12,215 | 14,563 | 15,820 | 15,391 | 15,245 | 16,195 | 17,397 | 17,676 | 17,625 | 18,795 |
| 주거용 | 8,307 | 9,553 | 10,283 | 9,735 | 9,547 | 10,079 | 10,888 | 11,048 | 11,083 | 11,802 |
| 오피스 | 2,529 | 3,226 | 3,465 | 3,386 | 3,334 | 3,465 | 3,829 | 4,042 | 3,998 | 4,262 |
| 상업시설 | 359 | 482 | 549 | 586 | 522 | 495 | 426 | 370 | 329 | 345 |
| 공공시설 | 1,020 | 1,302 | 1,523 | 1,684 | 1,842 | 2,156 | 2,254 | 2,216 | 2,215 | 2,386 |
| 플랜트 | 5,249 | 6,472 | 7,068 | 7,127 | 7,024 | 7,279 | 7,646 | 7,667 | 7,656 | 8,546 |
| 에너지 | 1,918 | 2,251 | 2,505 | 2,596 | 2,665 | 2,770 | 2,743 | 2,812 | 2,817 | 3,399 |
| 유틸리티 | 338 | 421 | 469 | 502 | 504 | 496 | 469 | 470 | 489 | 592 |
| 통신 | 38 | 41 | 49 | 47 | 55 | 52 | 54 | 55 | 57 | 60 |
| 정유시설 | 56 | 75 | 78 | 56 | 55 | 55 | 61 | 66 | 58 | 63 |
| 교통장비 등 | 247 | 310 | 324 | 328 | 308 | 337 | 348 | 331 | 322 | 329 |
| 화학시설 | 480 | 613 | 653 | 633 | 591 | 577 | 628 | 615 | 592 | 621 |
| 전기 | 377 | 465 | 496 | 506 | 524 | 597 | 689 | 715 | 721 | 743 |
| 음식료 공장 | 305 | 411 | 457 | 450 | 442 | 445 | 455 | 430 | 456 | 489 |
| 기타 | 1,490 | 1,885 | 2,037 | 2,009 | 1,880 | 1,950 | 2,199 | 2,173 | 2,144 | 2,250 |
| 총 시장규모 | 21,751 | 26,082 | 28,680 | 28,763 | 29,135 | 31,654 | 34,136 | 34,691 | 34,746 | 37,348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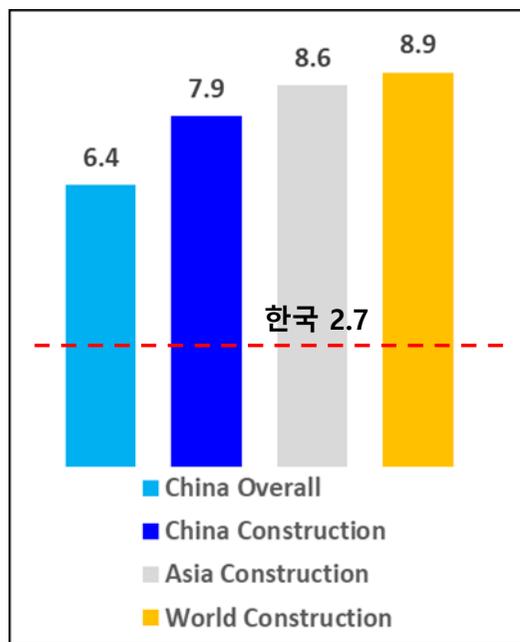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HS Markit, ICAK 등 자료 종합]

중국. Risk assessment

최고의 성장성을 지닌 시장이지만 단기, 중기 측면에서 리스크가 높은 건설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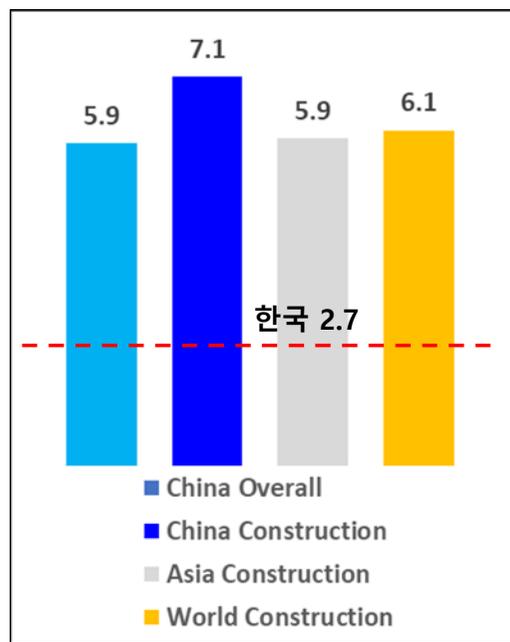
- 단기(12개월) Risk Score는 7.9로 세계건설시장(8.9), 아시아건설시장(8.6)보다 상당히 수준
- 중기(5년) Risk Score도 7.1로 세계건설시장(6.1), 아시아건설시장(5.9)보다 상당히 수준
- 최근 10년간 경상수지(Current Account Balance)를 보면,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, '21년에는 GDP의 0.2%임(한국의 '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.9%)
- GDP 대비 외채(Total Foreign Debt) 비중은 10%대임(한국의 '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.8% 수준)

단기(12개월) Risk Scor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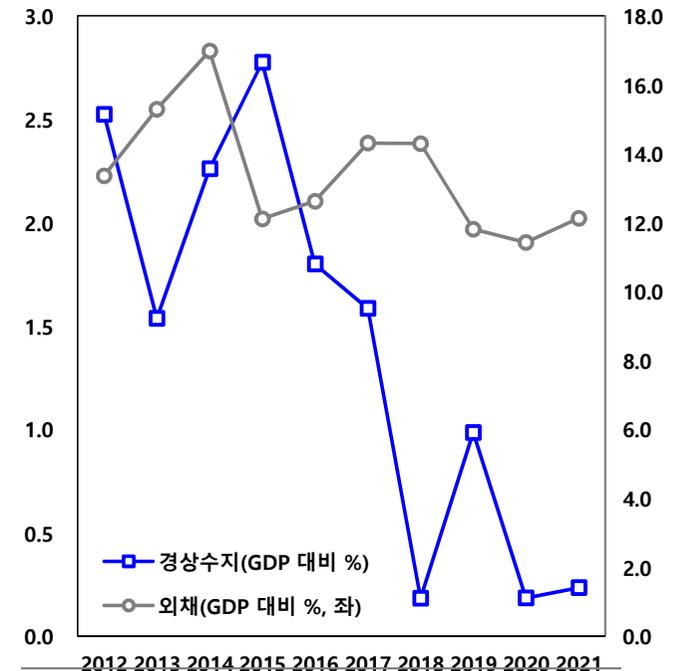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중기(5년) Risk Score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GDP 대비 경상수지, 외채 비중 추이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중국.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

(수주 기여도)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2.6% 수준임

[단위 : 백만불]

| 구분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국가 수주액(A) | 1,058 | 1,563 | 537 | 793 | 1,512 | 641 | 245 | 1,313 | 2,365 | 1,301 | 11,328 |
| 해외건설 수주액(B) | 59,144 | 64,881 | 65,212 | 66,010 | 46,144 | 28,192 | 29,006 | 32,113 | 22,319 | 30,378 | 443,399 |
|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(A/B) | 1.8% | 2.4% | 0.8% | 1.2% | 3.3% | 2.3% | 0.8% | 4.1% | 10.6% | 4.3% | 2.6% |

[출처 : ICAK]

(종합 전망)

| 구분 | Economic Risk ('20, '21년 경제성장률) | Pipeline Size (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) | Risk Assessment (단기, 장기 Score) | 수주 기여도 (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) | 2021년 시장규모 | 2021년 성장률 | CAGR ('17~'21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중국 | Positive (1.5, 7.1) | Positive (24%) | Negative (7.9, 7.1) | Neutral (2.6) | 37,348 | 7.5 | 4.2 |

➤ 7%대 경제성장, 24%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을 종합해 보면, 성장성과 그 규모에서는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됨. 단,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 및 과거 10년 평균 2.6% 수준의 수주 비중을 볼 때, 현지 기업의 경쟁력 및 법제도 차이가 우리 기업에게 여전히 장애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어 종합적으로 다소 중립적으로 전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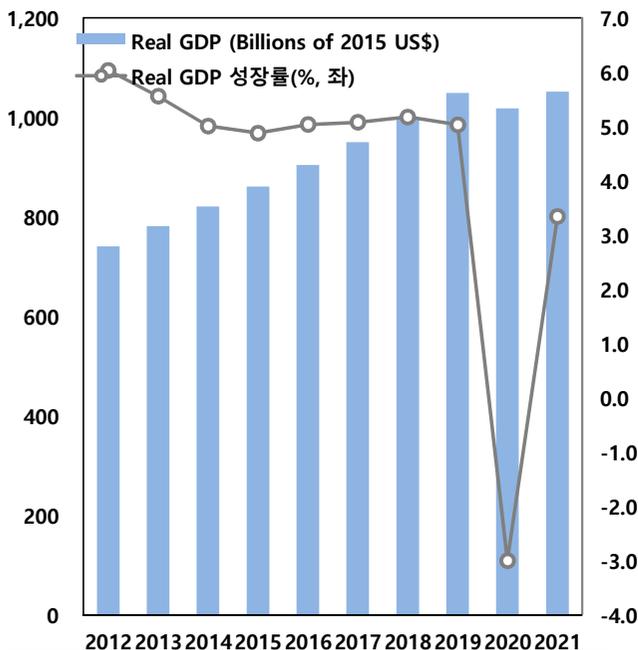
➤ **전기차 제조공장 등 그룹사 발주 공사 기회에 주목**

인도네시아. Economic Risk

(경제) '20년 역성장, '21년 3% 초반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정부 지출 증가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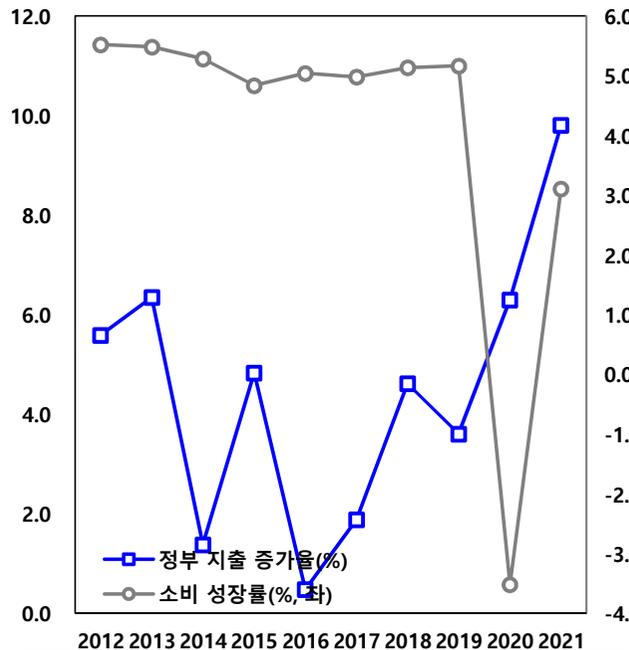
- '20년, '21년 GDP 성장률은 각각 -3.0%, 3.3%로 코로나 확산 이전인 5%대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나 완만한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음
- 정부 지출 증가율은 '21년 9.8%, 소비 성장률도 3.1%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정부 지출 및 소비 여력이 양호할 전망
- 고정 투자 성장률도 코로나19로 '20년 -5.4%로 감소되었으나, '21년에는 5.4%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최근 5년간 평균 실업률보다 다소 높지만 7%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

생산 지표(Real GDP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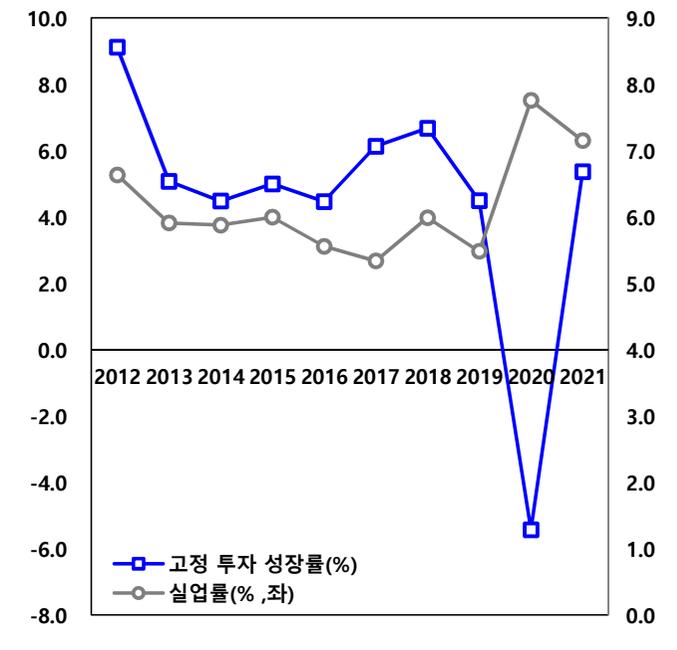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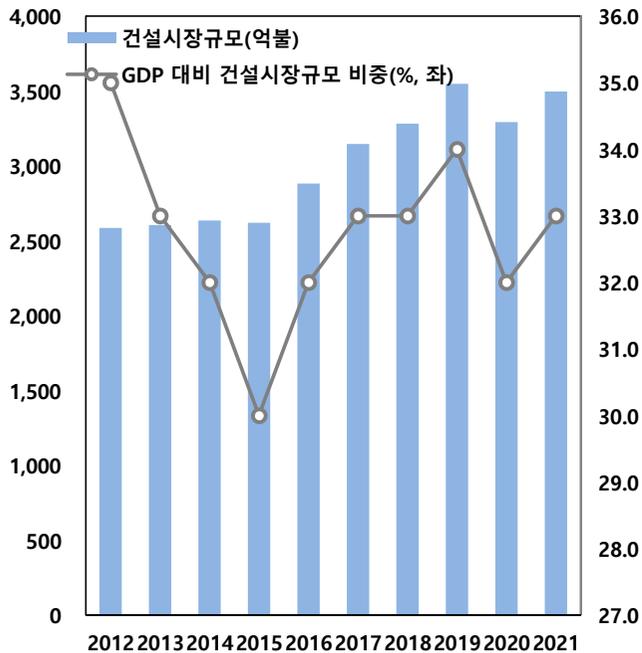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인도네시아. Pipeline Size

(건설시장규모)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이 30%대로 매우 높음. '21년 3,495억불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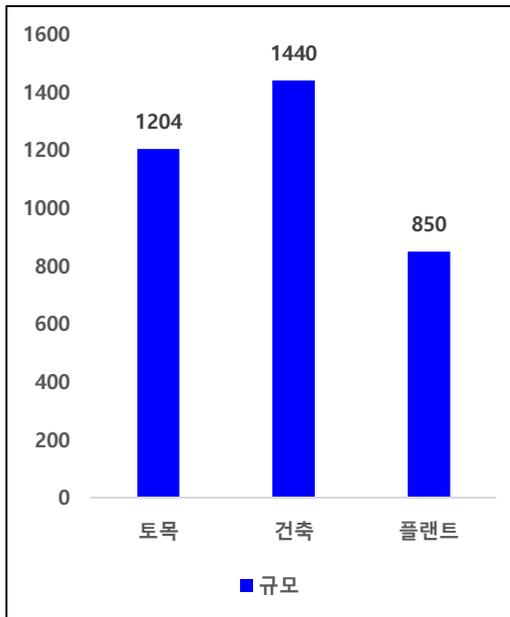
- 경제 규모 및 성장률 모두 양호하며, 인구 증가로 건설시장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으로, '20년 3,292억불 대비 6.2% 증가한 3,495억불로 성장 기대
- 특히 인구 증가 및 도시화 등으로 상업용 시설 등 건축이 1,440억불(34.4%), 발전 등 플랜트 850억불(24.3%), 교통 등 토목이 1,204억불(34.4%)의 규모가 예상
-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(driver)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11.2% 증가한 2억 76백만명이며, 도시화율도 57% 수준으로 향후 지속 증가가 예상됨

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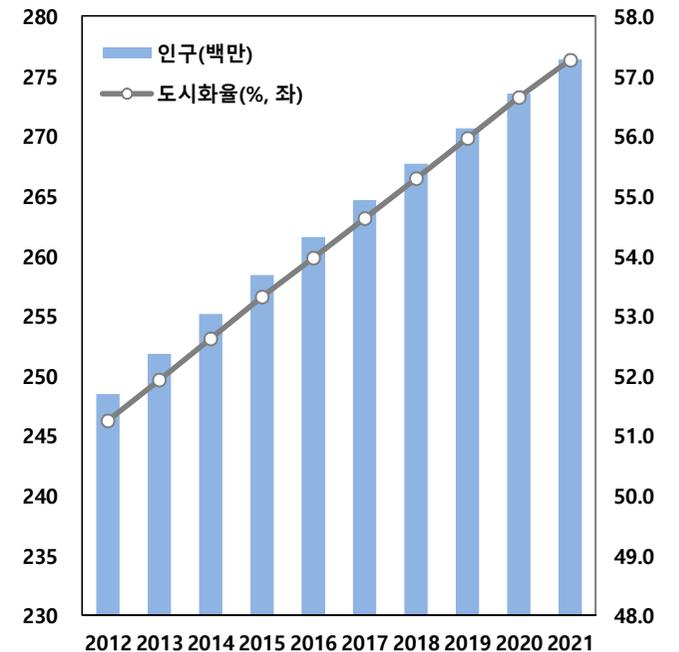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인구수 및 도시화율(Construction Drivers)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인도네시아

(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)

[단위 : 억불]

| 구분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토목 | 610 | 677 | 721 | 780 | 948 | 1,072 | 1,100 | 1,239 | 1,157 | 1,204 |
| 교통인프라 | 583 | 652 | 695 | 757 | 921 | 1,043 | 1,071 | 1,206 | 1,122 | 1,168 |
| 수처리 | 27 | 25 | 26 | 23 | 27 | 29 | 29 | 33 | 35 | 36 |
| 건축 | 1,061 | 1,078 | 1,105 | 1,099 | 1,200 | 1,299 | 1,345 | 1,456 | 1,356 | 1,440 |
| 주거용 | 329 | 328 | 327 | 317 | 343 | 366 | 374 | 399 | 380 | 400 |
| 오피스 | 176 | 183 | 191 | 198 | 223 | 248 | 257 | 276 | 265 | 281 |
| 상업시설 | 370 | 380 | 391 | 382 | 414 | 449 | 467 | 502 | 432 | 449 |
| 공공시설 | 186 | 187 | 196 | 202 | 220 | 236 | 247 | 279 | 279 | 310 |
| 플랜트 | 914 | 851 | 807 | 741 | 733 | 775 | 836 | 853 | 779 | 850 |
| 에너지 | 651 | 597 | 562 | 500 | 470 | 483 | 530 | 539 | 479 | 534 |
| 유틸리티 | 18 | 18 | 18 | 19 | 21 | 24 | 25 | 25 | 24 | 27 |
| 통신 | 91 | 86 | 86 | 82 | 93 | 107 | 115 | 119 | 115 | 116 |
| 정유시설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
| 교통장비 등 | 13 | 13 | 8 | 8 | 8 | 9 | 9 | 9 | 7 | 8 |
| 화학시설 | 24 | 23 | 22 | 17 | 18 | 19 | 19 | 19 | 17 | 19 |
| 전기 | 11 | 11 | 7 | 8 | 8 | 8 | 7 | 7 | 6 | 7 |
| 음식료 공장 | 44 | 43 | 45 | 45 | 49 | 55 | 58 | 61 | 62 | 67 |
| 기타 | 62 | 60 | 59 | 62 | 66 | 70 | 73 | 74 | 69 | 72 |
| 총 시장규모 | 2,585 | 2,605 | 2,634 | 2,620 | 2,882 | 3,146 | 3,281 | 3,547 | 3,292 | 3,495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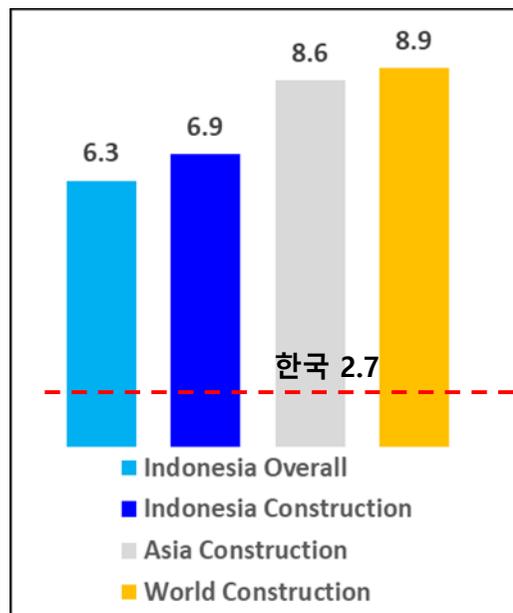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HS Markit, ICAK 등 자료 종합]

인도네시아. Risk assessment

시장 규모는 크지만, 중기 측면에서는 다소 리스크가 있는 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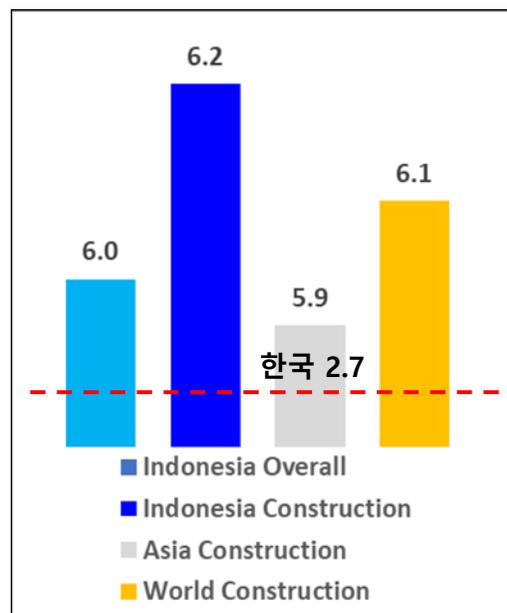
- 단기(12개월) Risk Score는 6.9로 세계건설시장(8.9), 아시아건설시장(8.6)보다 양호한 수준
- 중기(5년) Risk Score도 6.2로 세계건설시장(6.1), 아시아건설시장(5.9)보다 높은 수준
- 최근 10년간 경상수지(Current Account Balance) 적자를 기록중으로 '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.3% 수준으로 전망(한국의 '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.9%)
- GDP 대비 외채(Total Foreign Debt) 비중은 '12년 이후 증가세로 '21년에는 41.8% 수준으로 예상됨(한국의 '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.8% 수준)

단기(12개월) Risk Scor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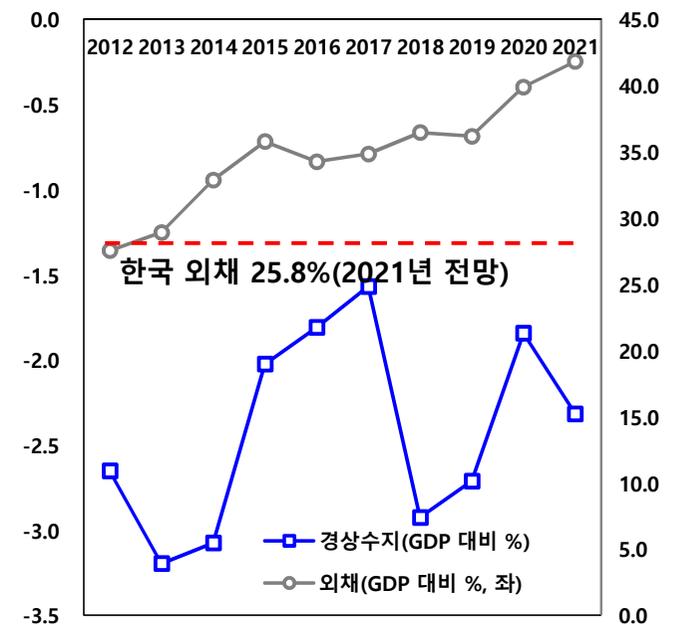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중기(5년) Risk Score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GDP 대비 경상수지, 외채 비중 추이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인도네시아.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

(수주 기여도)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2.6% 수준임

[단위 : 백만불]

| 구분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국가 수주액(A) | 224 | 1,710 | 759 | 999 | 1,504 | 132 | 947 | 877 | 3,744 | 681 | 11,577 |
| 해외건설 수주액(B) | 59,144 | 64,881 | 65,212 | 66,010 | 46,144 | 28,192 | 29,006 | 32,113 | 22,319 | 30,378 | 443,399 |
|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(A/B) | 0.4% | 2.6% | 1.2% | 1.5% | 3.3% | 0.5% | 3.3% | 2.7% | 16.8% | 2.2% | 2.6% |

[출처 : ICAK]

(종합 전망)

| 구분 | Economic Risk ('20, '21년 경제성장률) | Pipeline Size (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) | Risk Assessment (단기, 장기 Score) | 수주 기여도 (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) | 2021년 시장규모 | 2021년 성장률 | CAGR ('17~'21)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인도네시아 | Positive (-3.0, 3.3) | Positive (33%) | Neutral (6.9, 6.2) | Neutral (2.6) | 3,495 | 6.1 | 2.7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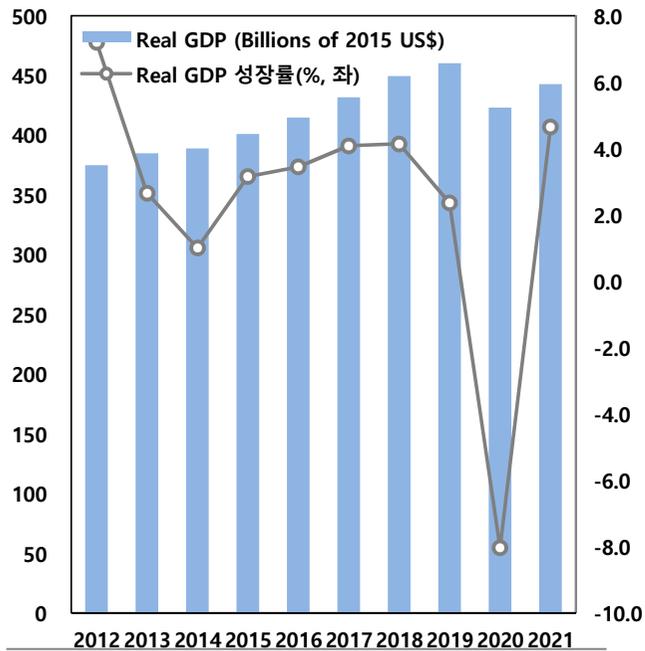
➤ 3%대 경제성장, 33%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을 종합해 보면, 성장성과 그 규모에서는 유망한 시장으로 평가됨. 물론,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 및 과거 10년 평균 2.6% 수준의 수주 비중은 앞서 살펴본 항목의 긍정적 측면을 소폭 상쇄시키는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음

➤ 하지만 증장기적으로 신수도이전 Mega 프로젝트 추진을 놓고 볼 때, 우리 기업에게 풍부한 사업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시장으로 기대됨

(경제) '20년 8% 역성장, '21년 4% 중반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경제 정상화 기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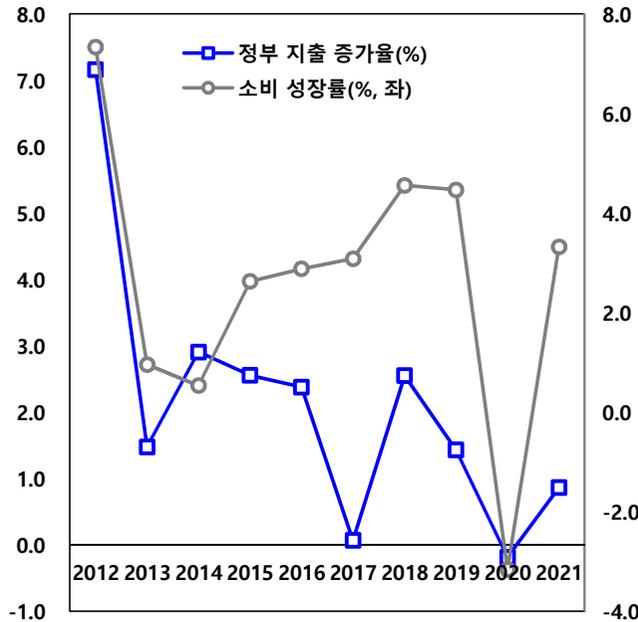
- '20년, '21년 GDP 성장률은 각각 -8.0%, 4.6% 전망. 코로나 확산 이전인 2~4%보다 다소 높은 수준의 경제 성장이 예상되며, 점진적인 경제 회복을 이룰 것으로 전망
- 정부 지출 증가율은 '21년 0.9%, 소비 성장률도 3.3%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되는 등 정부 지출 및 소비 여력이 회복할 전망
- 고정 투자 성장률은 코로나19로 '20년 -11.2%로 축소되었으나, '21년에는 1.8%로 과거 평균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되며, 평균 실업률은 1.0%로 예상됨

생산 지표(Real GDP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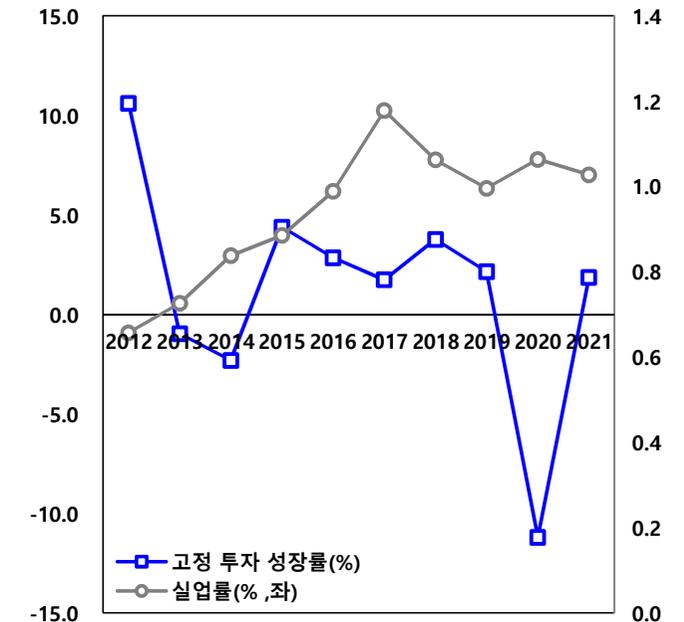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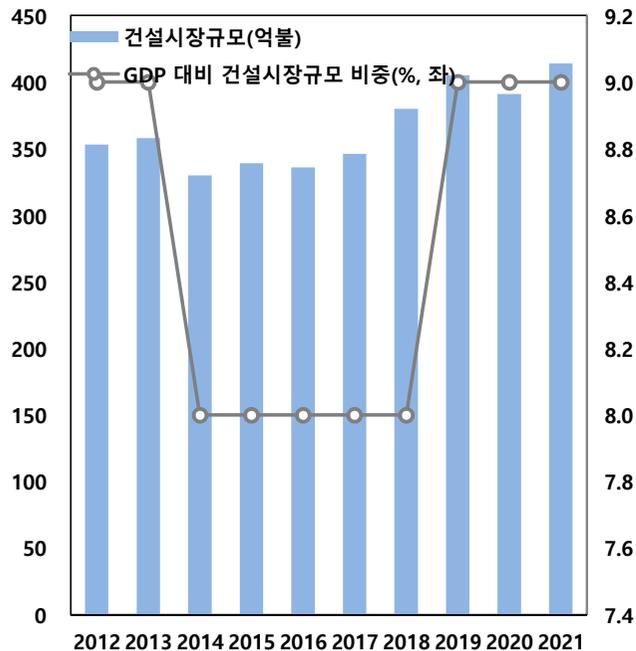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태국. Pipeline Size

(건설시장규모)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 8~9%대 유지, '21년 414억불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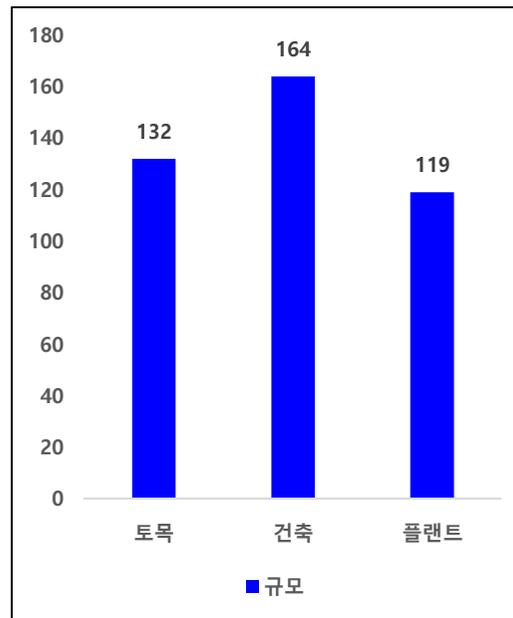
- 인구 증가 및 도시화 지속으로 건설시장규모는 지속 증가할 전망으로, '20년 391억불 대비 5.9% 증가한 348억불로 성장 기대
-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164억불(39.6%), 발전 등 플랜트 119억불(28.7%), 교통 등 토목이 132억불(31.9%)의 규모가 예상
-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(driver)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3.1% 증가한 70백만명으로 수준이며, 도시화율도 52% 수준으로 향후 지속 증가가 예상됨

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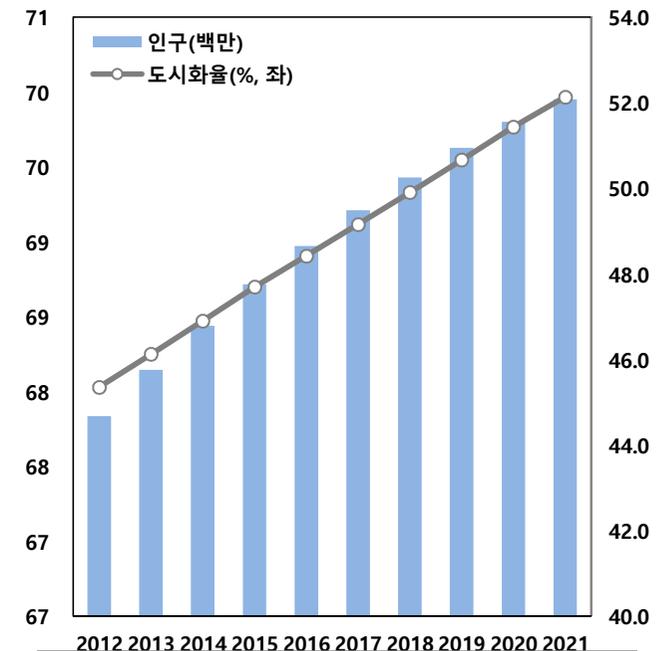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인구수 및 도시화율(Construction Drivers)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(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)

[단위 : 억불]

| 구분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토목 | 81 | 83 | 78 | 88 | 92 | 97 | 113 | 128 | 128 | 132 |
| 교통인프라 | 79 | 81 | 76 | 86 | 89 | 94 | 110 | 125 | 125 | 128 |
| 수처리 | 2 | 2 | 2 | 2 | 3 | 3 | 3 | 3 | 3 | 4 |
| 건축 | 164 | 166 | 151 | 151 | 149 | 152 | 163 | 173 | 154 | 164 |
| 주거용 | 111 | 112 | 101 | 102 | 101 | 103 | 111 | 117 | 106 | 112 |
| 오피스 | 16 | 17 | 16 | 16 | 15 | 15 | 15 | 16 | 15 | 16 |
| 상업시설 | 29 | 29 | 26 | 26 | 26 | 27 | 31 | 34 | 27 | 29 |
| 공공시설 | 8 | 8 | 8 | 7 | 7 | 7 | 6 | 6 | 6 | 7 |
| 플랜트 | 108 | 109 | 100 | 99 | 96 | 99 | 103 | 105 | 109 | 119 |
| 에너지 | 82 | 84 | 78 | 78 | 77 | 80 | 82 | 83 | 87 | 96 |
| 유틸리티 | 5 | 5 | 4 | 4 | 4 | 4 | 6 | 6 | 6 | 7 |
| 통신 | 4 | 4 | 3 | 3 | 3 | 3 | 3 | 3 | 3 | 3 |
| 정유시설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
| 교통장비 등 | 5 | 4 | 3 | 3 | 3 | 3 | 3 | 3 | 3 | 3 |
| 화학시설 | 3 | 3 | 3 | 3 | 2 | 2 | 2 | 2 | 2 | 2 |
| 전기 | 2 | 2 | 2 | 2 | 2 | 2 | 2 | 2 | 2 | 2 |
| 음식료 공장 | 2 | 2 | 2 | 2 | 1 | 1 | 1 | 2 | 2 | 2 |
| 기타 | 5 | 5 | 5 | 4 | 4 | 4 | 4 | 4 | 4 | 4 |
| 총 시장규모 | 353 | 358 | 330 | 339 | 336 | 346 | 380 | 405 | 391 | 414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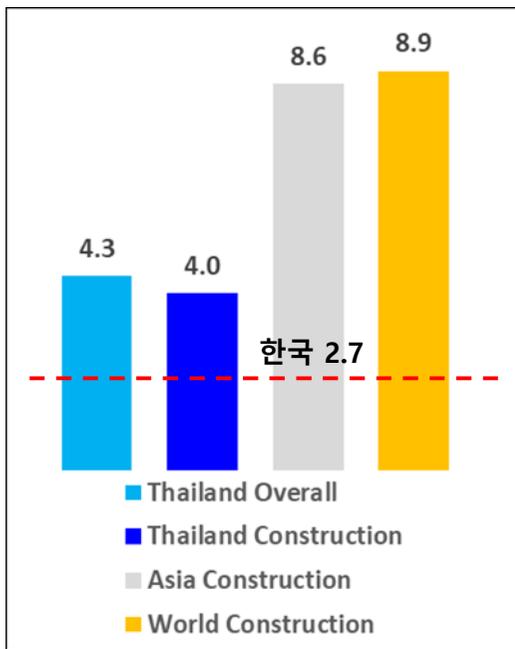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HS Markit, ICAK 등 자료 종합]

태국. Risk assessment

단기, 중기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보유한 태국 건설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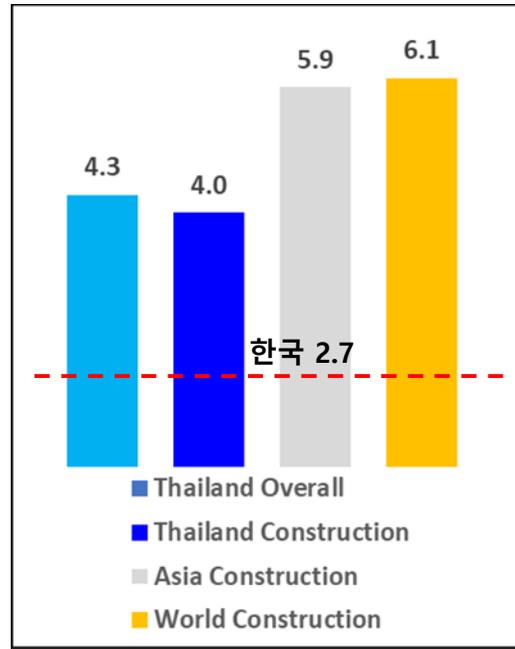
- 단기(12개월) Risk Score는 4.0로 세계건설시장(8.9), 아시아건설시장(8.6)보다 양호한 수준
- 중기(5년) Risk Score도 4.0로 세계건설시장(6.1), 아시아건설시장(5.9)보다 양호한 수준
- 최근 10년간 경상수지(Current Account Balance)는 '14년부터 흑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'21년에는 GDP 대비 5%대로 전망(한국의 '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.9%)
- GDP 대비 외채(Total Foreign Debt) 비중은 '12년 37.3%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세로 '21년에는 28.7% 수준으로 예상됨(한국의 '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.8% 수준)

단기(12개월) Risk Scor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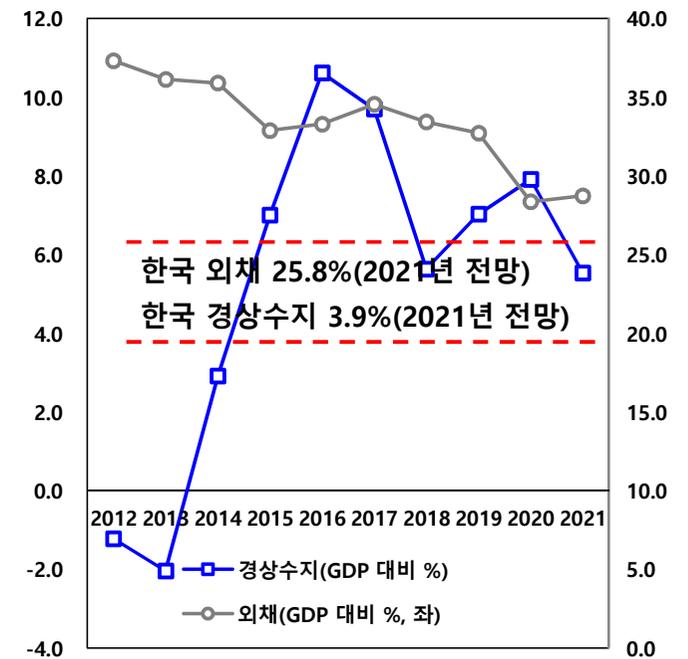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중기(5년) Risk Score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GDP 대비 경상수지, 외채 비중 추이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태국.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

(수주 기여도)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2.6% 수준임

[단위 : 백만불]

| 구분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국가 수주액(A) | 376 | 1,163 | 979 | 393 | 336 | 80 | 75 | 1,971 | 302 | 78 | 5,753 |
| 해외건설 수주액(B) | 59,144 | 64,881 | 65,212 | 66,010 | 46,144 | 28,192 | 29,006 | 32,113 | 22,319 | 30,378 | 443,399 |
|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(A/B) | 0.6% | 1.8% | 1.5% | 0.6% | 0.7% | 0.3% | 0.3% | 6.1% | 1.4% | 0.3% | 1.3% |

[출처 : ICAK]

(종합 전망)

| 구분 | Economic Risk ('20, '21년 경제성장률) | Pipeline Size (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) | Risk Assessment (단기, 장기 Score) | 수주 기여도 (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) | 2021년 시장규모 | 2021년 성장률 | CAGR ('17~'21)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태국 | Positive (-8.0, 4.6) | Neutral (9.0%) | Positive (4.0, 4.0) | Neutral (1.3) | 414 | 5.7 | 4.6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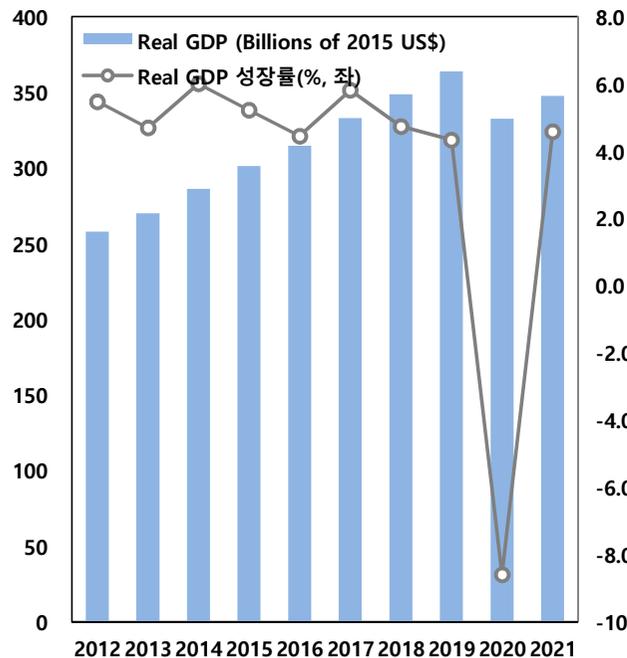
➤ 4%대 중반의 경제성장,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는 긍정적 요소임. 단, 9% 수준으로 높지 않은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, 과거 10년 평균 수주 비중 1.3%는 앞서 살펴본 긍정적 요소를 다소 상쇄시킬 수 있으나, 종합적으로 볼 때,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

➤ 가스화력발전소, LNG 사업, 고속철도 사업기회가 풍부해질 전망

(경제) '20년 8.6% 역성장, '21년 4% 중반의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한 소비, 투자 회복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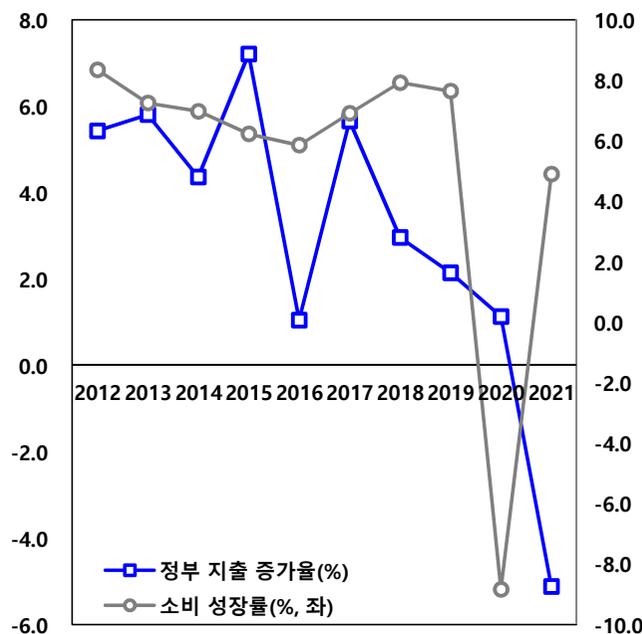
- '20년, '21년 GDP 성장률은 각각 -8.6%, 4.6%로 코로나 확산 이전인 5% 성장에는 미치지 못하나 비교적 양호한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음
- 정부 지출 성장률은 '21년 -5.1%, 소비 성장률도 4.9%로 반등할 것으로 예측됨. 즉 소비 여력이 양호할 전망
- 고정 투자 코로나19로 '20년 -17.3%로 축소되었으나, '21년에는 16.2%로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. 최근 5년간 평균 실업률보다 다소 높은 3.7%로 예상됨

생산 지표(Real GDP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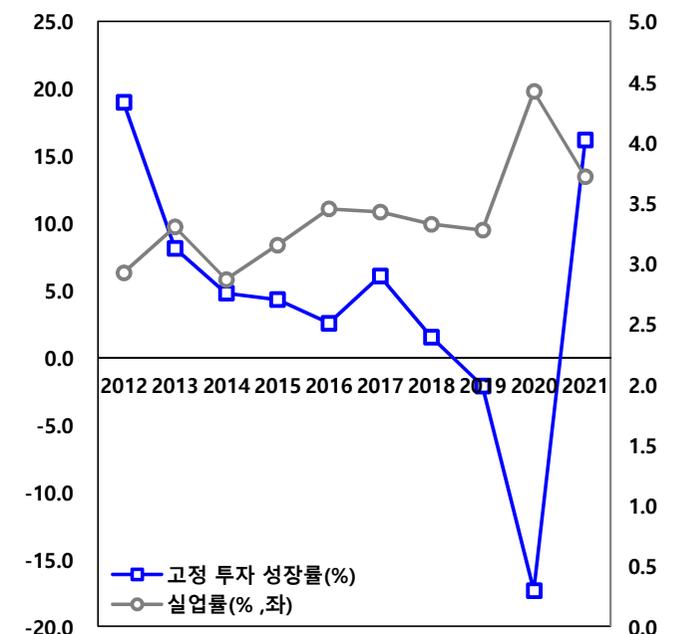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정부 지출 증가율 및 소비 성장률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고정 투자 성장률 및 실업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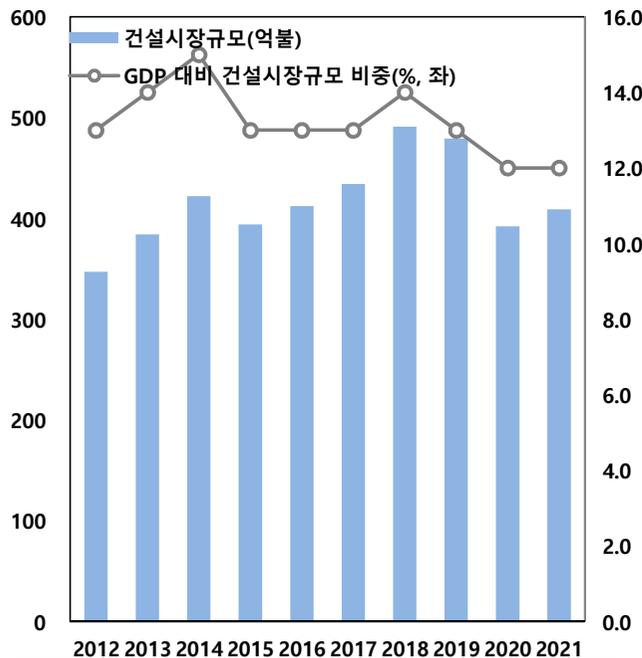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말레이시아. Pipeline Size

(건설시장규모)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(13→15→13→12%), '21년 409억불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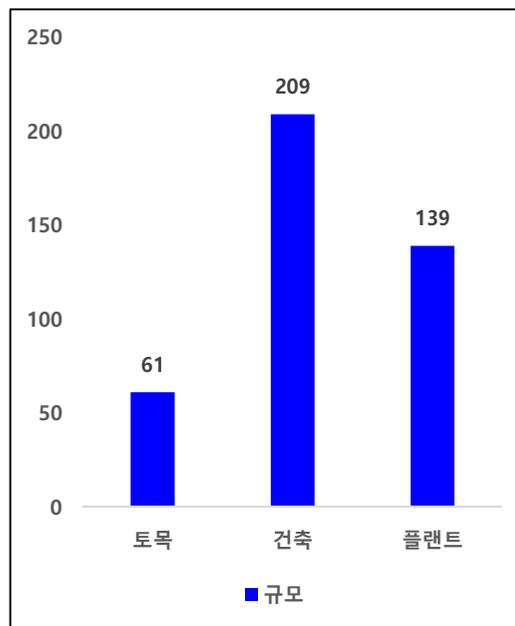
- 향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세로 건설시장규모는 다소 증가할 전망으로, '20년 392억불 대비 4.3% 증가한 409억불로 성장 기대
- 특히 인구 증가 및 도시화율 증가 등으로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209억불(51.1%), 발전 등 플랜트 139억불(34.0%), 교통 등 토목이 61억불(14.9%)의 규모가 예상
-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(driver) 중 하나인 인구는 2012년 대비 12.8% 증가한 33백만명으로 증가 추세이며, 도시화율은 78% 수준으로 향후 지속 증가가 예상됨

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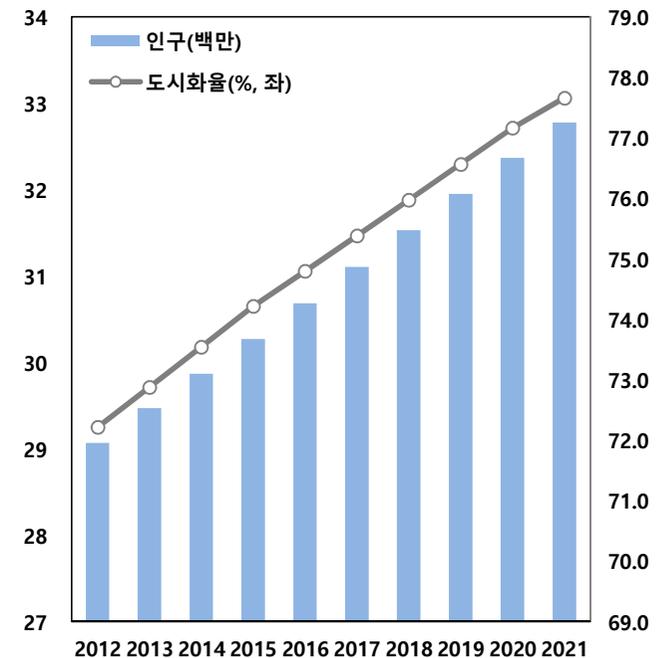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인구수 및 도시화율(Construction Drivers)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(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)

[단위 : 억불]

| 구분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토목 | 41 | 48 | 49 | 48 | 54 | 57 | 63 | 67 | 58 | 61 |
| 교통인프라 | 39 | 45 | 46 | 45 | 51 | 53 | 59 | 62 | 54 | 56 |
| 수처리 | 2 | 3 | 3 | 3 | 3 | 4 | 4 | 5 | 4 | 5 |
| 건축 | 178 | 198 | 222 | 205 | 210 | 220 | 244 | 237 | 198 | 209 |
| 주거용 | 95 | 111 | 124 | 113 | 119 | 127 | 142 | 137 | 117 | 122 |
| 오피스 | 47 | 49 | 55 | 52 | 52 | 53 | 59 | 60 | 50 | 52 |
| 상업시설 | 9 | 10 | 12 | 11 | 11 | 12 | 13 | 13 | 10 | 11 |
| 공공시설 | 27 | 28 | 31 | 29 | 28 | 28 | 30 | 27 | 21 | 24 |
| 플랜트 | 127 | 138 | 152 | 140 | 147 | 156 | 182 | 174 | 133 | 139 |
| 에너지 | 86 | 96 | 101 | 93 | 100 | 108 | 126 | 118 | 87 | 92 |
| 유틸리티 | 12 | 12 | 15 | 13 | 13 | 13 | 16 | 16 | 12 | 13 |
| 통신 | 12 | 14 | 17 | 15 | 16 | 17 | 19 | 19 | 17 | 17 |
| 정유시설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1 | 0 | 0 |
| 교통장비 등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 1 |
| 화학시설 | 4 | 3 | 4 | 4 | 3 | 3 | 4 | 4 | 3 | 3 |
| 전기 | 6 | 6 | 7 | 7 | 7 | 7 | 8 | 7 | 6 | 6 |
| 음식료 공장 | 2 | 2 | 2 | 2 | 2 | 2 | 2 | 2 | 2 | 2 |
| 기타 | 4 | 4 | 5 | 5 | 5 | 5 | 6 | 6 | 5 | 5 |
| 총 시장규모 | 347 | 384 | 422 | 394 | 412 | 434 | 491 | 479 | 392 | 409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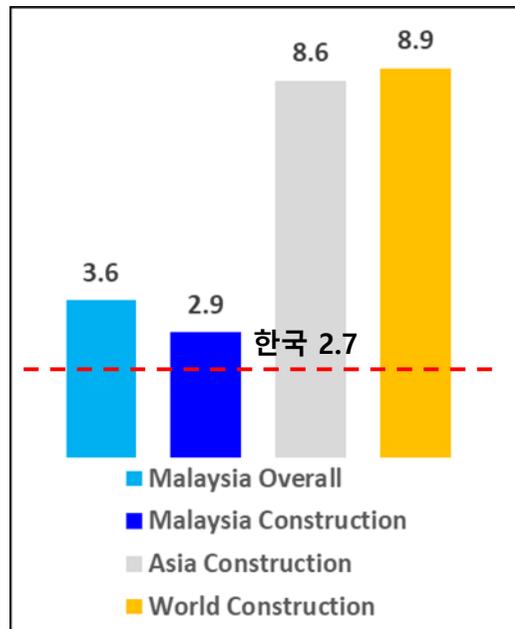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HS Markit, ICAK 등 자료 종합]

말레이시아. Risk assessment

단기, 중기 측면에서도 한국 건설시장과 유사한 안정성을 보유한 건설시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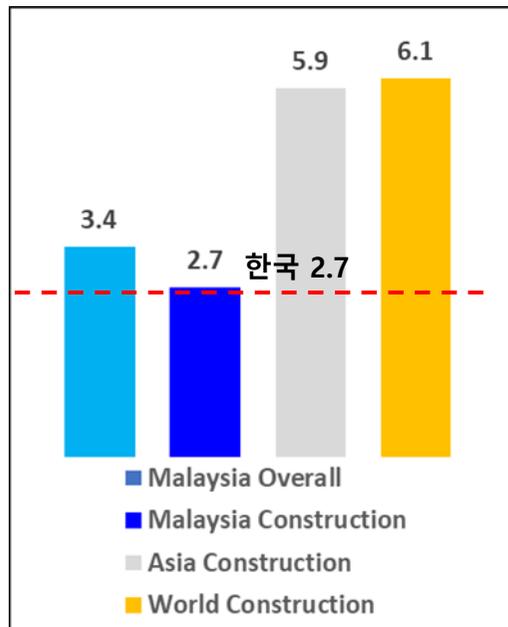
- 단기(12개월) Risk Score는 2.9로 세계건설시장(8.9), 아시아건설시장(8.6)보다 양호한 수준
- 중기(5년) Risk Score도 2.7로 세계건설시장(6.1), 아시아건설시장(5.9)보다 양호한 수준
- 최근 10년간 경상수지(Current Account Balance) 흑자를 기록 중이나 GDP 대비 비중은 지속 감소세로, '21년 1.0%로 전망(한국의 '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.9%)
- GDP 대비 외채(Total Foreign Debt) 비중은 '17년 68.4%로 정점을 찍은 후 감소, '21년에는 62.5% 수준으로 예상됨(한국의 '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.8% 수준)

단기(12개월) Risk Scor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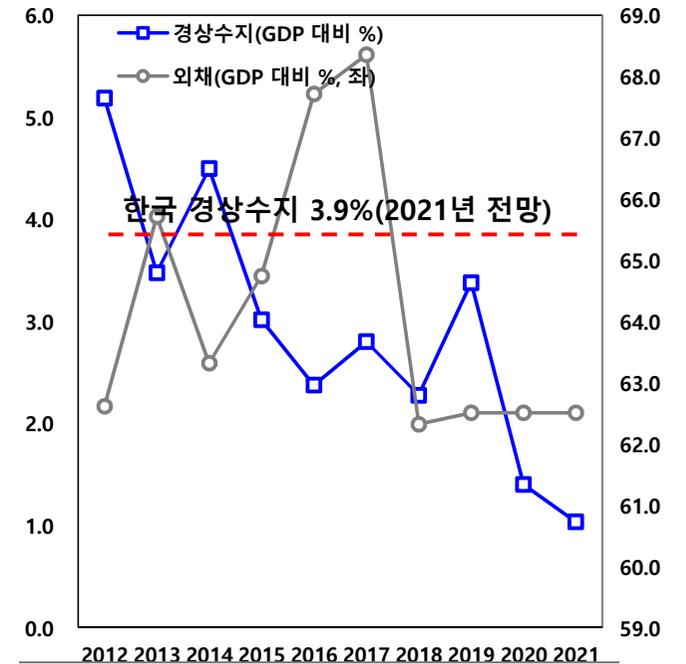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중기(5년) Risk Score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GDP 대비 경상수지, 외채 비중 추이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말레이시아.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

(수주 기여도)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2.6% 수준임

[단위 : 백만불]

| 구분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국가 수주액(A) | 746 | 563 | 3,476 | 2,439 | 155 | 1,600 | 1,707 | 943 | 392 | 383 | 12,404 |
| 해외건설 수주액(B) | 59,144 | 64,881 | 65,212 | 66,010 | 46,144 | 28,192 | 29,006 | 32,113 | 22,319 | 30,378 | 443,399 |
|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(A/B) | 1.3% | 0.9% | 5.3% | 3.7% | 0.3% | 5.7% | 5.9% | 2.9% | 1.8% | 1.3% | 2.8% |

[출처 : ICAK]

(종합 전망)

| 구분 | Economic Risk ('20, '21년 경제성장률) | Pipeline Size (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) | Risk Assessment (단기, 장기 Score) | 수주 기여도 (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) | 2021년 시장규모 | 2021년 성장률 | CAGR ('17~'21)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말레이시아 | Positive (-8.6, 4.6) | Positive (12%) | Positive (2.9, 2.7) | Neutral (2.8) | 409 | 4.5 | -1.4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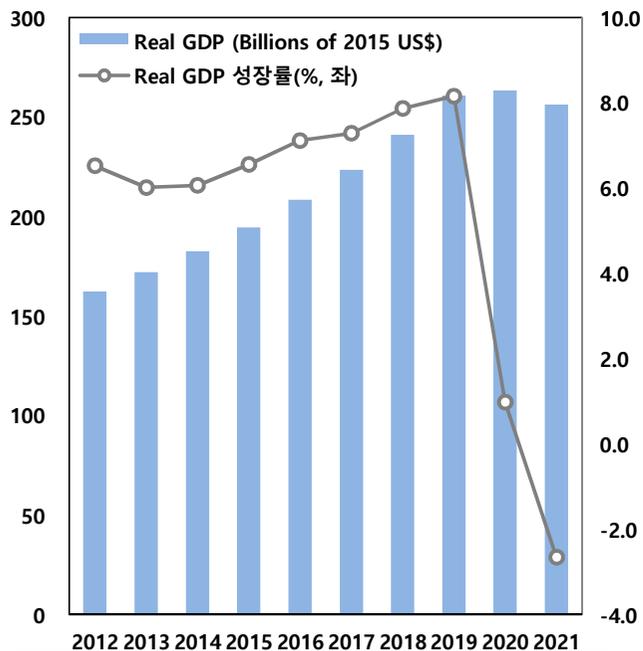
- 4%대 중반의 경제성장, 12%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, 세계건설시장 평균 대비 낮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를 분석해 볼 때 긍정적인 사업 환경으로 평가됨. 단, 과거 10년 평균 2.8% 수준의 수주 비중을 볼 때 앞서 살펴본 항목보다는 다소 중립적으로 평가되나 종합적으로 볼 때, 말레이시아 건설시장에 대한 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됨

➤ **항만, 석유화학, 태양광 사업 발주에 주목할 필요**

(경제) '20년 1%대 성장을 했으나, '21년 2% 후반의 역성장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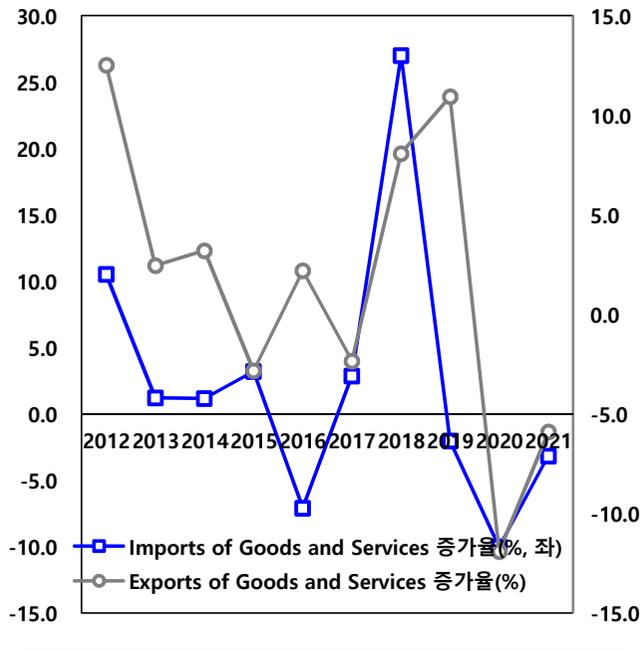
- '20년, '21년 GDP 성장률은 각각 1.0%, -2.7%로 코로나 확산 이전인 7~8%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제 상황이 전개될 전망
-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영향이 조속히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. 이에 따라 수출, 수입 증가율은 각각 -5.9%, -3.2%로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됨
- 실물 경제 침체에 따라 4%대의 실업률은 '20년 10.5%, '21년 14.0%로 대폭 증가할 전망이다

생산 지표(Real GDP 등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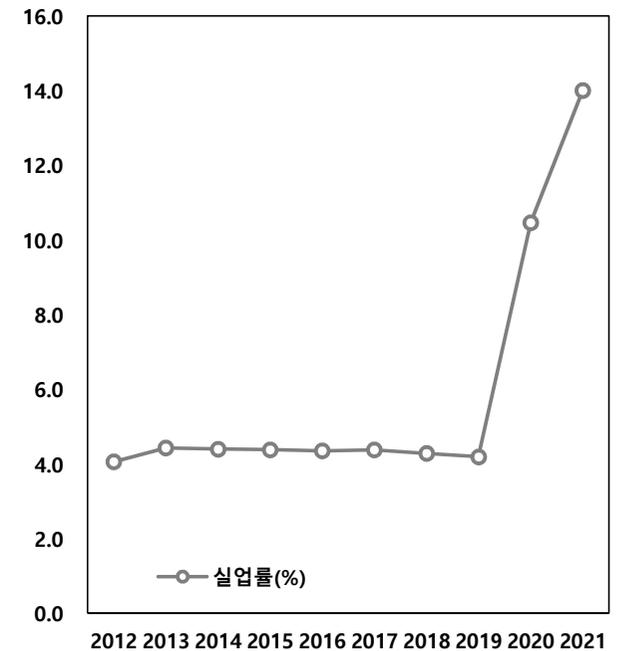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수출입 추이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실업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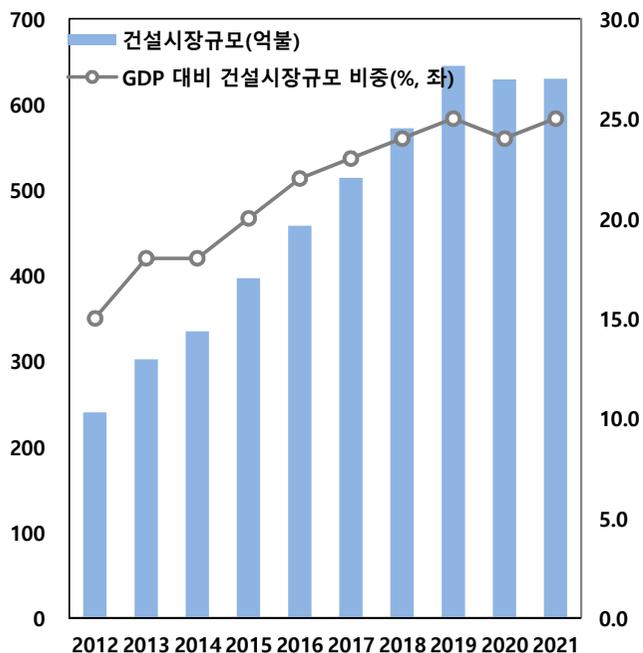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방글라데시. Pipeline Size

(건설시장규모) 최근 10년간 GDP 대비 건설시장 성장세(15→22→25%), '21년 630억불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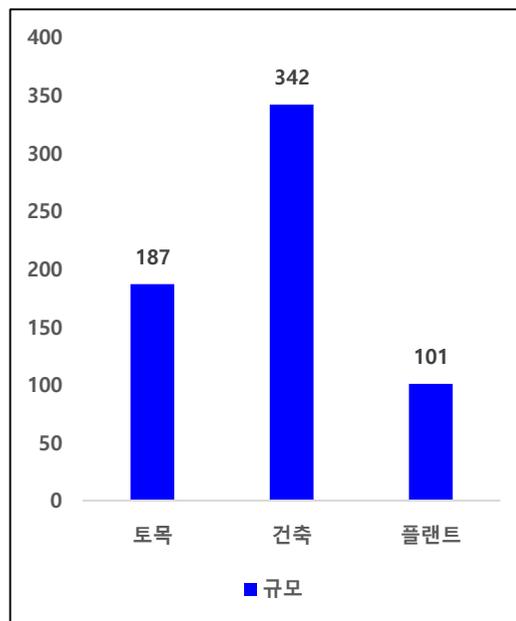
- 최근 3년간 건설시장규모는 다소 정체하고 있으나, 10년 전 대비 2.6배 커지는 등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임. '20년과 유사한 630억불로 성장 기대
- 주거용 건물 등 건축이 342억불(54.3%), 발전 등 플랜트 101억불(16.0%), 교통 등 토목이 187억불(29.7%)의 규모가 예상
- 건설시장의 성장 동력(driver) 중 하나인 인구는 세계 8위 규모로, 1억5천만명을 넘어섰음. 도시화율은 37% 수준으로 향후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함

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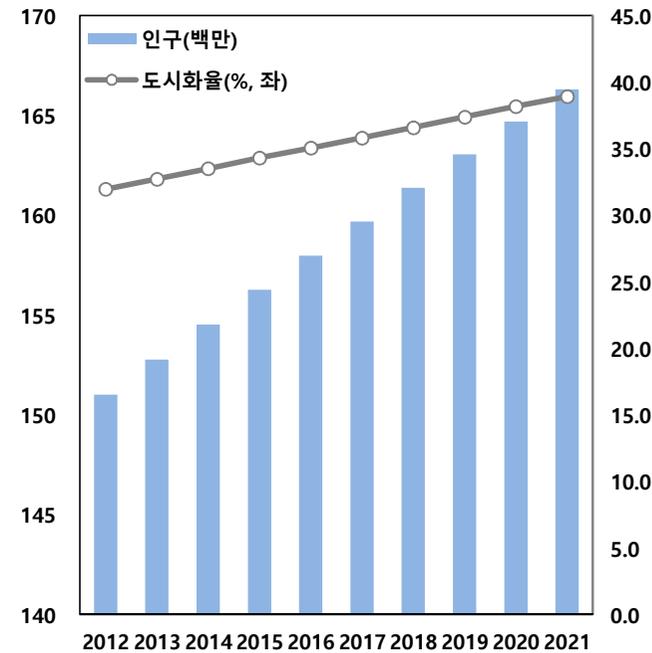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주요 공종별 건설시장규모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인구수 및 도시화율(Construction Drivers)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방글라데시

(공종별 건설시장규모 추이)

[단위 : 억불]

| 구분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2021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|
| 토목 | 59 | 76 | 85 | 106 | 124 | 138 | 155 | 185 | 186 | 187 |
| 교통인프라 | 52 | 66 | 74 | 93 | 108 | 120 | 134 | 159 | 158 | 158 |
| 수처리 | 7 | 10 | 11 | 13 | 16 | 18 | 21 | 26 | 28 | 29 |
| 건축 | 140 | 175 | 192 | 224 | 257 | 286 | 315 | 353 | 347 | 342 |
| 주거용 | 53 | 66 | 74 | 85 | 97 | 110 | 121 | 138 | 136 | 131 |
| 오피스 | 37 | 46 | 51 | 61 | 71 | 79 | 86 | 97 | 94 | 97 |
| 상업시설 | 20 | 25 | 26 | 31 | 34 | 37 | 41 | 45 | 43 | 40 |
| 공공시설 | 30 | 38 | 41 | 47 | 55 | 60 | 67 | 73 | 74 | 74 |
| 플랜트 | 41 | 50 | 56 | 66 | 76 | 88 | 101 | 107 | 95 | 101 |
| 에너지 | 20 | 26 | 31 | 35 | 40 | 50 | 57 | 57 | 47 | 49 |
| 유틸리티 | 1 | 1 | 1 | 1 | 2 | 2 | 2 | 2 | 2 | 2 |
| 통신 | 4 | 4 | 4 | 5 | 6 | 6 | 7 | 8 | 8 | 8 |
| 정유시설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 0 |
| 교통장비 등 | 2 | 2 | 2 | 3 | 3 | 3 | 4 | 4 | 4 | 4 |
| 화학시설 | 1 | 1 | 1 | 2 | 2 | 2 | 3 | 4 | 4 | 5 |
| 전기 | 1 | 1 | 1 | 2 | 2 | 2 | 2 | 2 | 2 | 2 |
| 음식료 공장 | 2 | 2 | 2 | 2 | 2 | 3 | 3 | 3 | 3 | 4 |
| 기타 | 10 | 13 | 14 | 16 | 19 | 20 | 23 | 27 | 25 | 27 |
| 총 시장규모 | 240 | 302 | 335 | 397 | 458 | 514 | 572 | 645 | 629 | 63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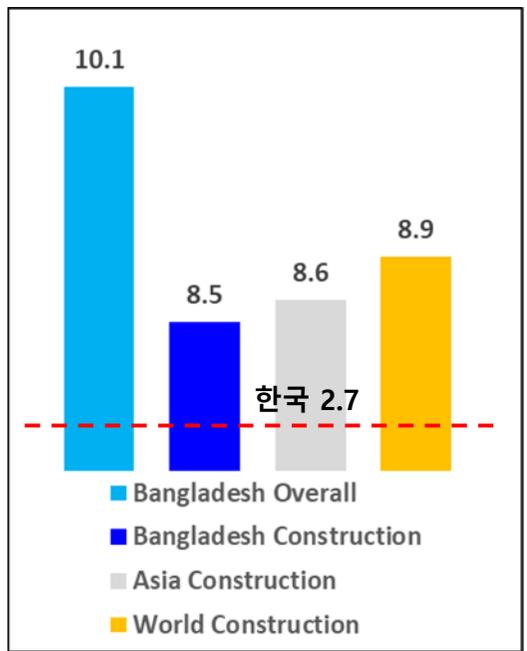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HS Markit, ICAK 등 자료 종합]

방글라데시. Risk assessment

성장 잠재력은 매우 뛰어나지만, 단기, 중기 측면에서 리스크는 존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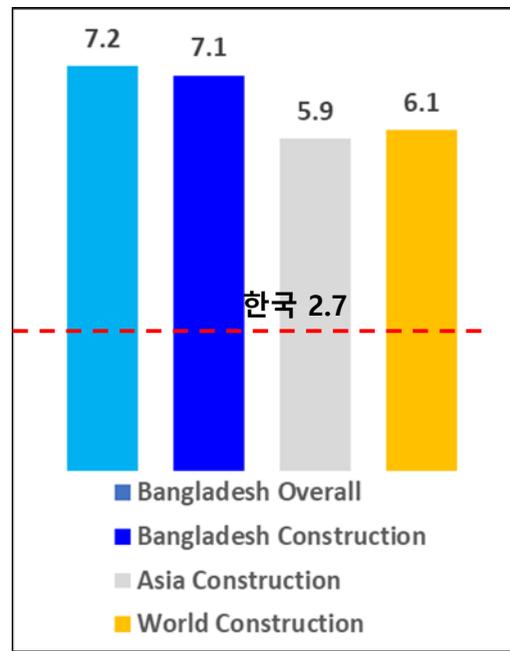
- 단기(12개월) Risk Score는 8.5로 세계건설시장(8.9), 아시아건설시장(8.6)과 유사한 수준
- 중기(5년) Risk Score도 7.1로 세계건설시장(6.1), 아시아건설시장(5.9)보다 리스크가 높은 수준
- 최근 10년간 경상수지(Current Account Balance) 적자를 기록하기 시작한 '17년 이후 GDP 대비 1~3%, 대의 적자가 지속(한국의 '21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중 전망치는 3.9%)
- GDP 대비 외채(Total Foreign Debt) 비중은 '12년 22.2% 이후 다소 감소하고 있으며, '21년에는 18.8% 수준으로 예상됨(한국의 '21년 GDP 대비 외채 비중 전망치는 25.8% 수준)

단기(12개월) Risk Scor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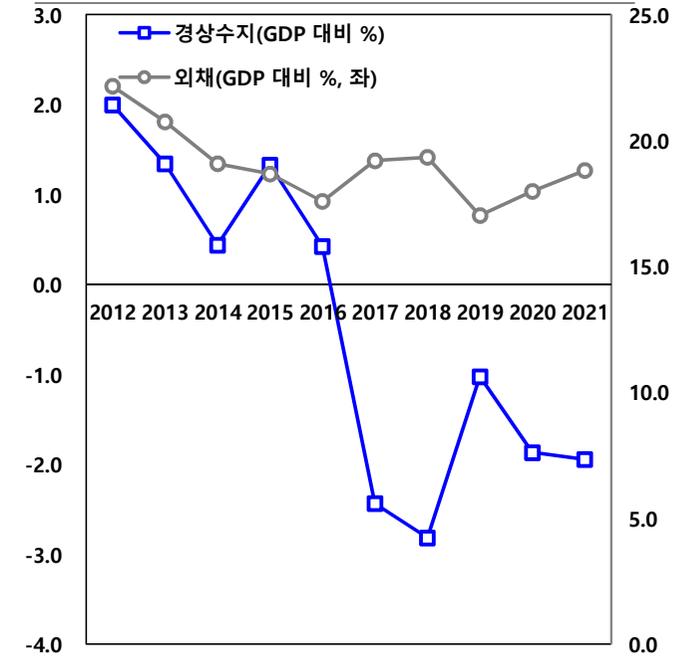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중기(5년) Risk Score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GDP 대비 경상수지, 외채 비중 추이



[출처 : IMF, OECD, IHS Markit, ICAK]

방글라데시. 수주 기여도 및 종합 전망

(수주 기여도) 최근 10년 평균 수주 기여도는 1.4% 수준임

[단위 : 백만불]

| 구분 | 2011 | 2012 | 2013 | 2014 | 2015 | 2016 | 2017 | 2018 | 2019 | 2020 | 합계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
| 국가 수주액(A) | 736 | 474 | 34 | 126 | 156 | 145 | 1,654 | 172 | 886 | 1,716 | 6,099 |
| 해외건설 수주액(B) | 59,144 | 64,881 | 65,212 | 66,010 | 46,144 | 28,192 | 29,006 | 32,113 | 22,319 | 30,378 | 443,399 |
| 해당 국가의 수주 기여도(A/B) | 1.2% | 0.7% | 0.1% | 0.2% | 0.3% | 0.5% | 5.7% | 0.5% | 4.0% | 5.6% | 1.4% |

[출처 : ICAK]

(종합 전망)

| 구분 | Economic Risk ('20, '21년 경제성장률) | Pipeline Size (GDP 대비 건설시장규모 비중) | Risk Assessment (단기, 장기 Score) | 수주 기여도 (최근 10년 평균 수주 비중) | 2021년 시장규모 | 2021년 성장률 | CAGR ('17~'21)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방글라데시 | Negative (1.0, -2.7) | Positive (25%) | Neutral (8.5, 7.1) | Neutral (1.4) | 630 | 0.1 | 5.2 |

➤ 25% 수준의 GDP 대비 건설시장 비중은 상당히 긍정적이나, -2.7% 수준의 경제성장률, 세계 건설시장 평균 대비 소폭 높은 수준의 리스크 지수, 과거 10년 평균 1.4% 수준의 수주 비중은 다소 중립적인 평가를 받게 함

➤ 하지만 최근 KIND - 방글라데시 민관협력사업청(PPPA)간 업무 협약을 통해 도로, 발전, 항만 사업 공동개발에 대한 유리한 환경에 있는 만큼 우리 기업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전망됨



Part 5.

해외건설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중장기 신기술 Trend

1) 건설업의 노동생산성 및 성장률 향상의 당위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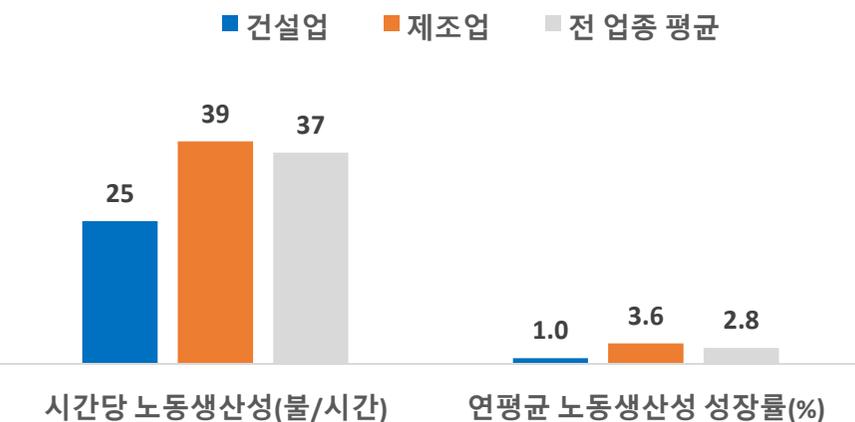
(생산성 향상의 당위성)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있는 뉴노멀 상황에서, 대부분의 산업계에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업역 붕괴 등 혁신의 움직임이 보편화되고 있음

- 글로벌 Big-Tech.기업이 업역을 확장하며, 기존 산업 구조를 뒤흔들고 있는 상황에서, 건설업도 다양한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점은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. 이에 따라 건설업에서도 다양한 데이터 구축 및 활용, BIM, 드론, 자동화기기, 클라우드 컴퓨팅 등 신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음

(건설업의 생산성 이슈) 전 세계 건설업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25불 수준으로, 제조업이 39불, 전 업종 평균 37불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

- 연평균 노동생산성 성장률(1995년~2014년)을 살펴 보면, 건설업의 연평균 노동 생산성 성장률은 1.0%로 제조업 3.6%, 전 업종 평균 2.8%에 비해 열위한 수준으로 분석됨. 우리나라 건설업은 노동생산성이 시간당 15불, 생산성 성장률은 0.2~7.0% 수준의 가속기(Accelerator) Group에 속함. 즉 현재는 생산성이 열위하나 그 성장속도는 다소 높은 수준임

건설업의 노동생산성 및 성장률 분석



[출처 : McKinsey, ICAK 정책지원센터]

생산성 및 생산성장률 관련 Group 분류

| 그룹 | 국가 | 노동 생산성(불) | 생산성 성장률(%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탁월한 수행자 (Outperformer) | 벨기에, 영국, 캐나다 | 35~45 | 0.2~2.0 |
| 쇠퇴하는 리더 (Declining leaders) | 미국, 스페인, 프랑스 | 30~40 | -0.5~-1.5 |
| 가속기(Accelerator) | 싱가포르, 한국, 터키 | 15 | 0.2~7.0 |
| 느림보(Laggards) | 멕시코, 브라질, 말레이시아 | 10 | -0.5~-2.0 |

[출처 : McKinsey, ICAK 정책지원센터]

2)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

(코로나19 충격과 수익) 영국 시장조사기업 Globaldata 설문에 따르면, 코로나19 충격이 기업 수익(Revenues) 감소에 영향을 주었다는 응답이 44%, 증가로 나타났다는 쪽이 39%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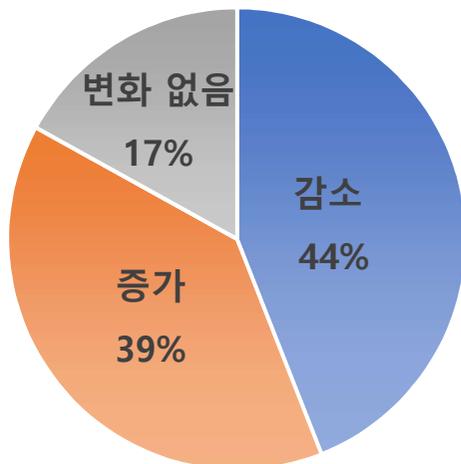
- 44%(감소) 중 매우 큰 감소라고 답한 비율은 15%, 다소 감소는 29%로 나타남. 그리고 39%(감소) 중 매우 큰 증가라고 답한 비율은 19%, 다소 증가는 20%로 나타남. 변화가 없다고 답한 비율은 17%임

코로나19와 신기술(Emerging Technology Trend) 관련 설문조사 개요

대상 : 글로벌 23개 산업군 CEO 등 리더 1,776명

- ✓ 지역별 : 아시아, 태평양 29%, 유럽 35%, 중동 및 북아프리카 8%, 중남미 10%, 북미 16% 등
- ✓ 산업별 : 우주, 방산 4%, 의류 4%, 자동차 5%, 금융 5%, 건설 5%, 소비 4%, 음식료 4%, 헬스케어 5%, 보험 4%, 제조 5%, 미디어 4%, 의료기기 4%, 광업 4%, 오일&가스 4%, 포장 4%, 제약 4%, 발전 4%, 전문 서비스 4%, 소매 4%, 스포츠 4%, 기술 4%, 통신 4%, 여행 4%,

코로나19가 기업 수익(Revenues)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설문 결과



코로나19가 기업 수익(Revenues)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세부 설문 결과

| 구분 | 결과 |
|---------|-----|
| 매우 큰 감소 | 15% |
| 다소 감소 | 29% |
| 매우 큰 증가 | 19% |
| 다소 증가 | 20% |
| 변화 없음 | 17% |

[출처 : Globaldata, ICAK 정책지원센터]

[출처 : Globaldata, ICAK 정책지원센터]

2)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

(Winners vs Losers in the COVID-19)

- 코로나19 충격은 산업별로 균등하게 가해지지 않음
- 전문 서비스, 여행업, 건설업이 가장 큰 부정적 충격을 받음

✓ 수익 감소 Top 3 업종 응답 결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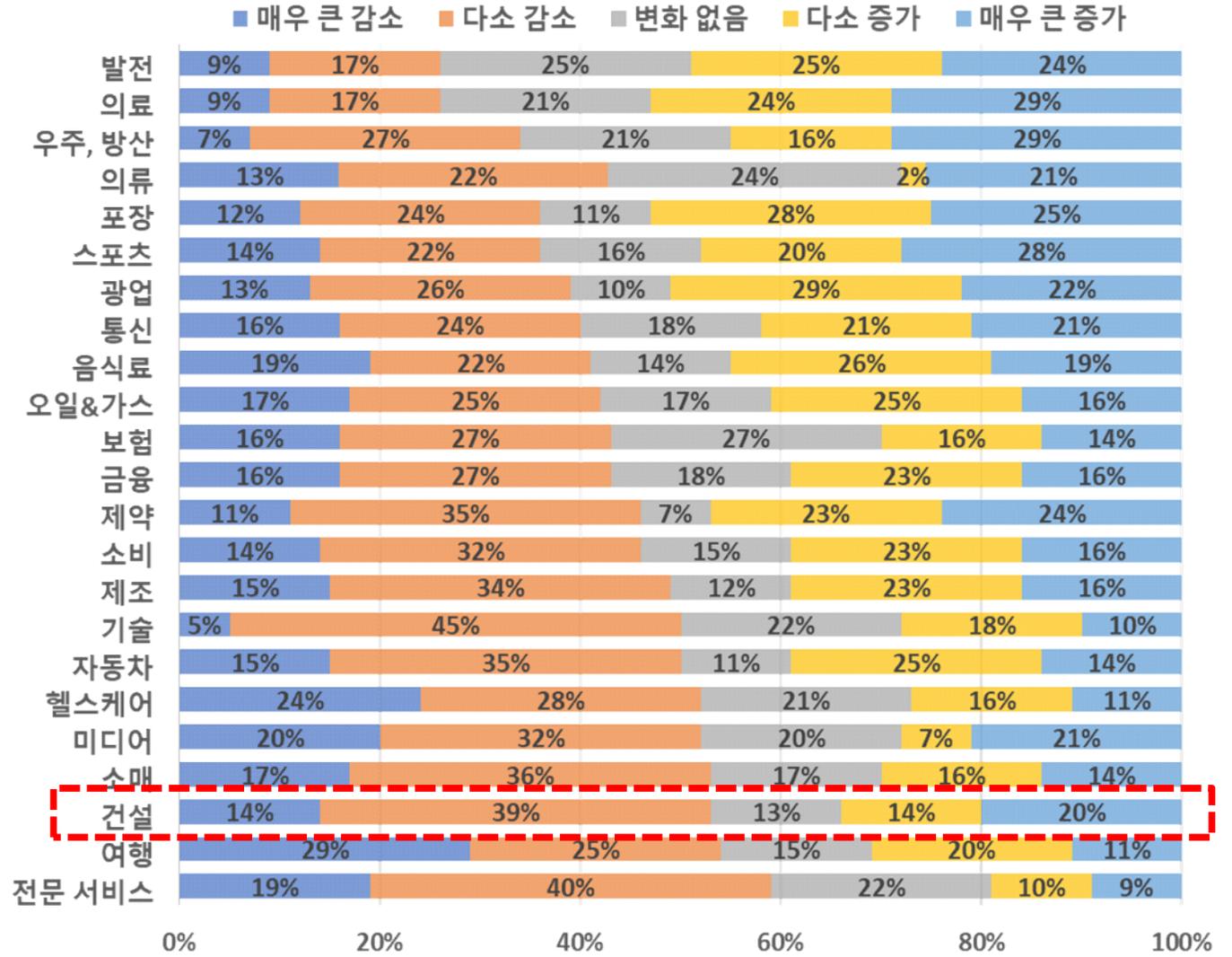
| 구분 | '수익 감소' 응답 |
|--------|------------|
| 전문 서비스 | 59% |
| 여행 | 54% |
| 건설 | 53% |

- 오히려 의료기기, 발전, 방산업은 수익이 증가했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높았음

✓ 수익 증가 Top 3 업종 응답 결과

| 구분 | '수익 증가' 응답 |
|------|------------|
| 의료기기 | 53% |
| 발전 | 49% |
| 방산 | 45% |

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수익 영향



[출처 : Globaldata, ICAK 정책지원센터]

2)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

(포스트 코로나 시대, 신기술에 대한 기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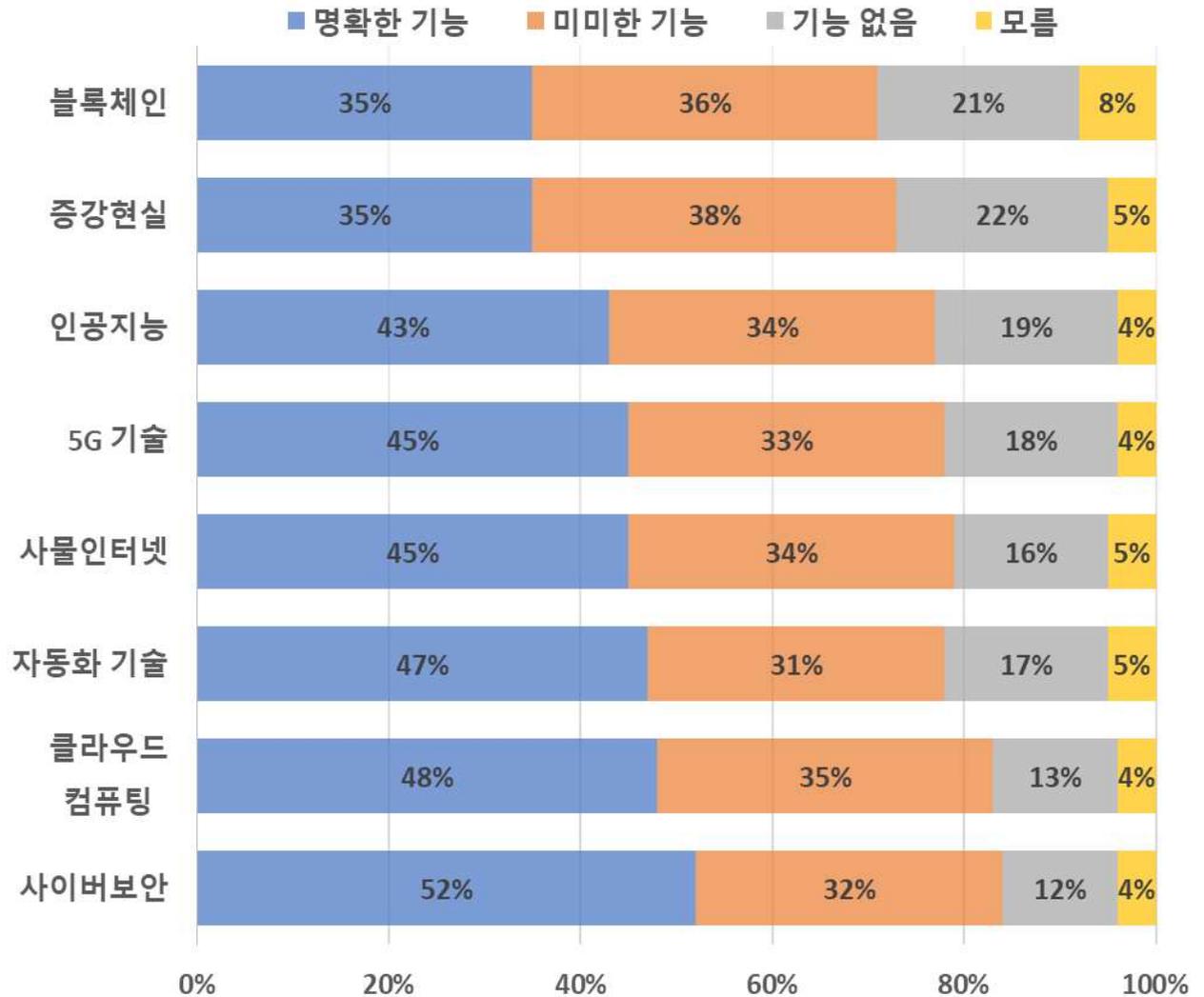
- 산업계에서는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 기술(Key Technology)로 사이버보안(Cybersecurity)과 같은 디지털화를 꼽음

✓ 주목받는 Top 3 신기술

| 구분 | '명확한 기능' 응답 |
|---------|-------------|
| 사이버보안 | 52% |
| 클라우드컴퓨팅 | 48% |
| 자동화 기술 | 47% |

- 코로나19 대유행이 촉발시킨 재택근무 및 e-commerce는 사이버보안은 물론 클라우드컴퓨팅의 보편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

코로나19 충격 극복을 위한 신기술에 대한 기대



[출처 : Globaldata, ICAK 정책지원센터]

2)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

(신기술에 대한 이해도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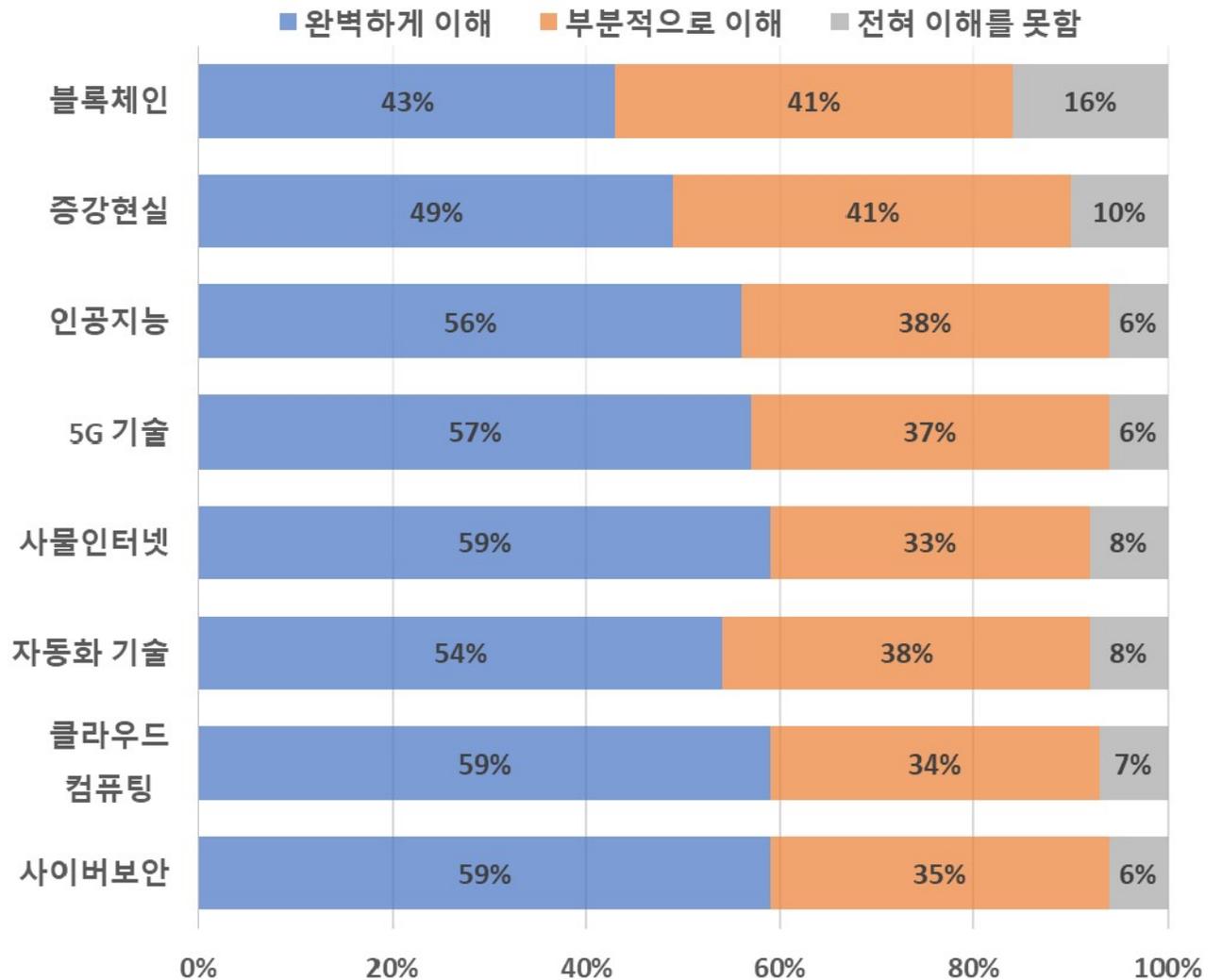
- 산업계 전반에서 이해도가 높은 Top 5 기술은 5G 기술을 제외하고, 대체적으로 명확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음

✓ 이해도 높은 Top 5 기술

| 구분 | '이해' 응답 |
|---------|---------|
| 사이버보안 | 94% |
| 5G 기술 | 94% |
| 클라우드컴퓨팅 | 93% |
| 자동화 기술 | 92% |
| 사물인터넷 | 92% |

- 하지만, 증강 현실 및 블록체인과 같은 기술은 해당 기술 및 서비스 Vendor가 기업체 임원 교육시 이해도 부족이라는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음

신기술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(Understanding)



[출처 : Globaldata, ICAK 정책지원센터]

2)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

(신기술 등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준비도)

- 응답자의 80% 가량이 본인이 재직 중인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위한 준비가 됐다고 응답함

✓ 준비도 응답 상위 Top 3 산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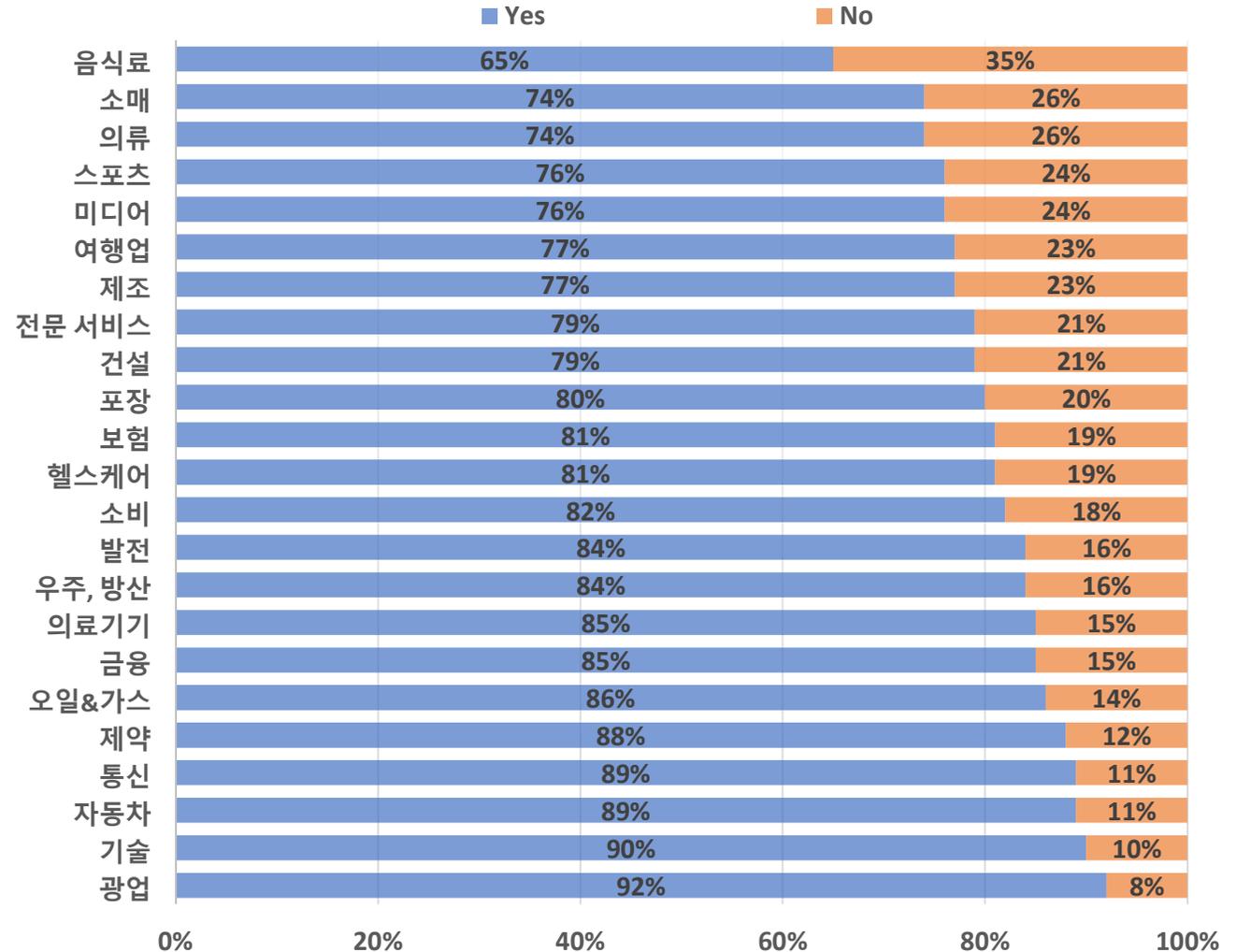
| 구분 | 결과 |
|-----|-----|
| 광업 | 92% |
| 기술 | 90% |
| 자동차 | 89% |

✓ 준비도 응답 하위 Top 5 산업

| 구분 | 결과 |
|-----|-----|
| 의류 | 74% |
| 소매 | 74% |
| 음식료 | 65% |

- 하지만, 많은 전문가들이 기업이 인식하고 있는 디지털 혁신을 위한 준비 정도가 과대평가(overestimate)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음

산업별 디지털 혁신에 대한 준비도(Readiness)



[출처 : Globaldata, ICAK 정책지원센터]

2)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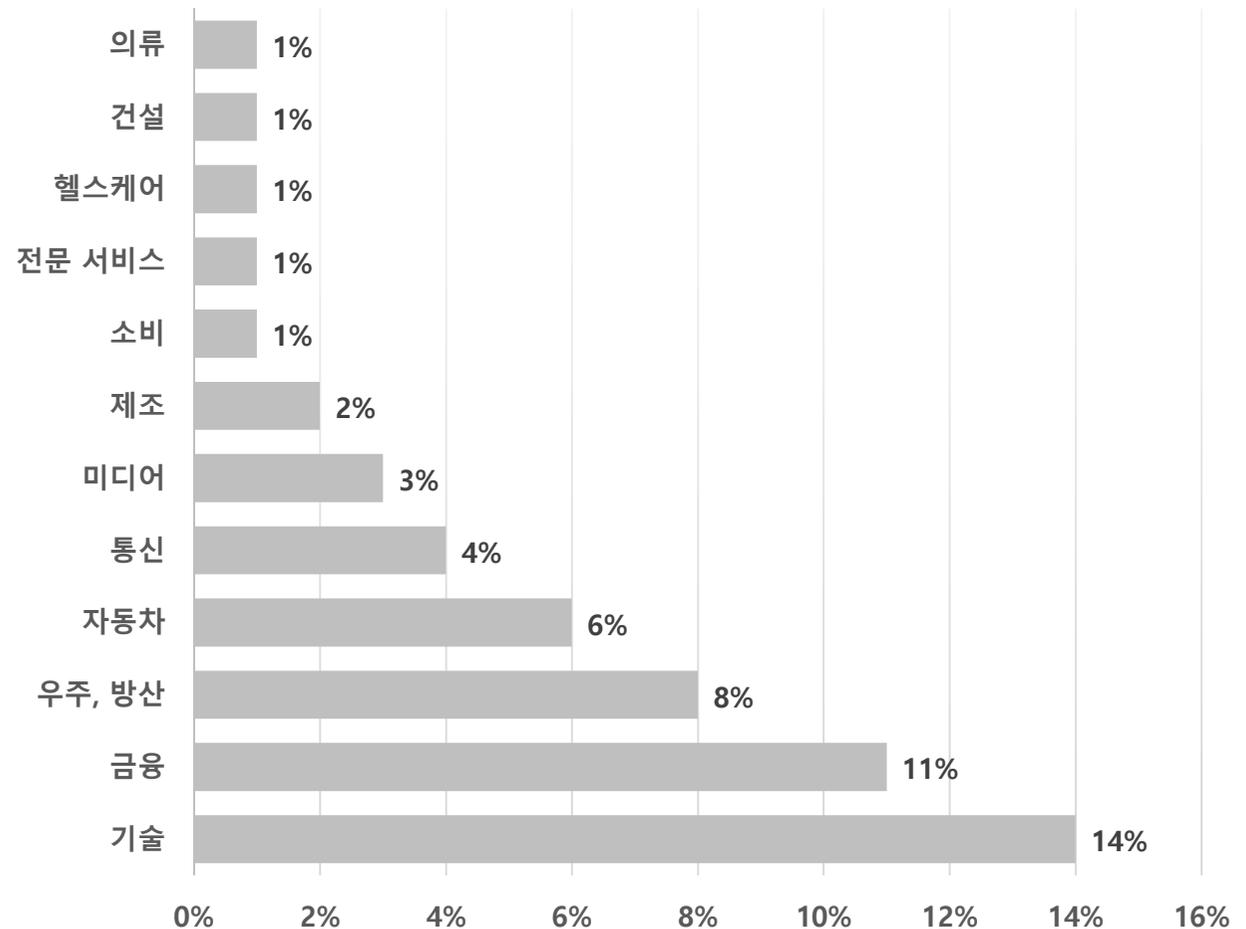
(신기술 적용 리더)

- 주요 산업 중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, 활용하고 있는 산업군에 대한 설문 결과, 기술 산업, 금융, 우주 및 방산 분야, 자동차, 통신 산업으로 나타남
- 반면, 대표적인 코로나19 충격에 의한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고 응답한 산업, 즉 의류, 건설, 전문서비스, 소비 분야 산업은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결과가 나옴

✓ 신기술 적용 리더 Top 3

| 구분 | 결과 |
|--------|-----|
| 기술 | 14% |
| 금융 | 11% |
| 우주, 방산 | 8% |

산업별 신기술 적용 리더(Leading adopter)



[출처 : Globaldata, ICAK 정책지원센터]

2)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

(신기술 분야 투자 계획)

- 의료기기, 광업 분야는 신기술 투자를 늘릴 계획임을 응답한 결과가 50%를 상회

✓ 적극적 투자 예상 산업 Top 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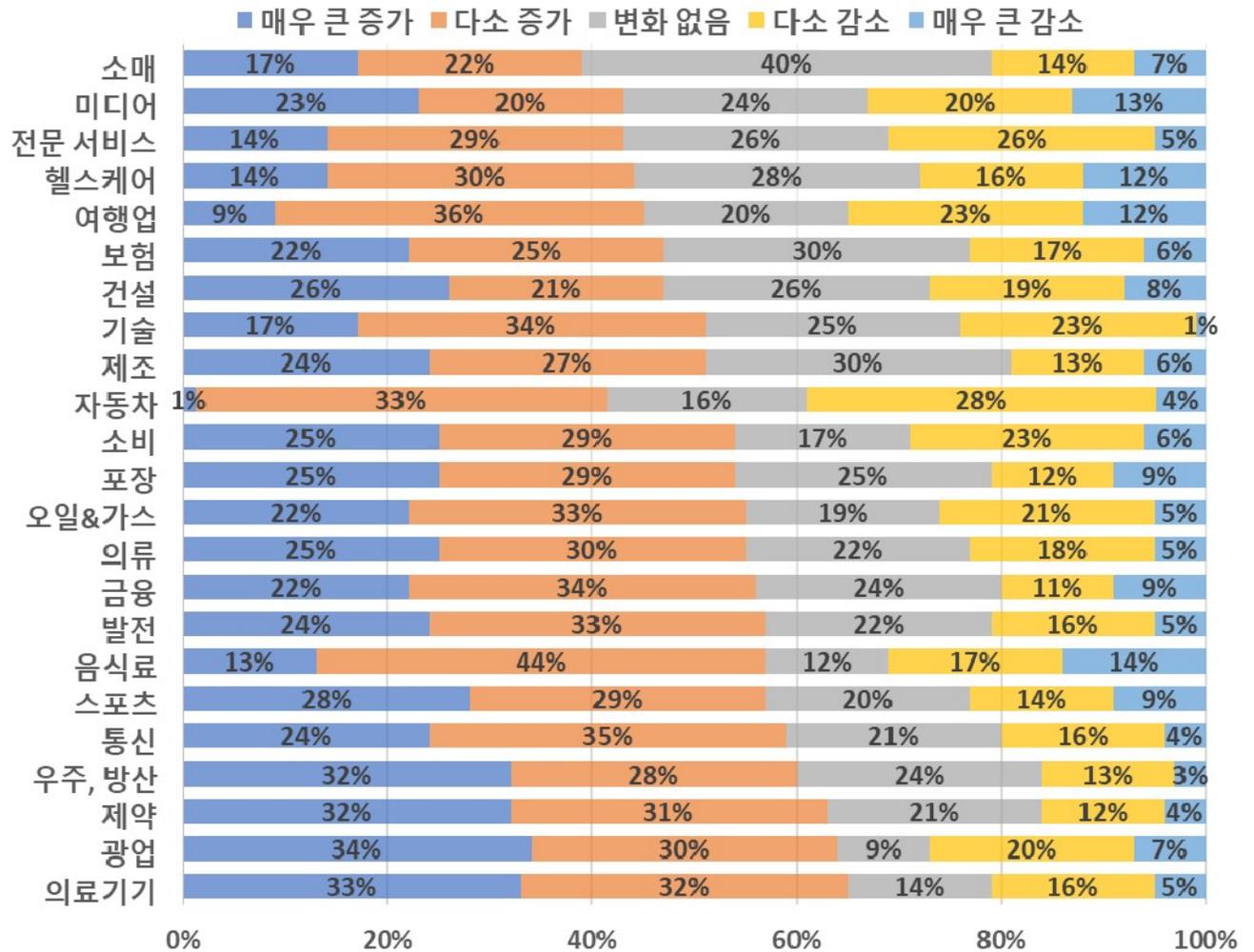
| 구분 | '증가' 응답 |
|--------|---------|
| 의료기기 | 65% |
| 광업 | 64% |
| 제약 | 63% |
| 우주, 방산 | 60% |
| 통신 | 59% |

- 반면, 건설, 보험, 여행 분야는 투자 계획이 없거나, 오히려 감소할 계획할 수 있다는 응답 다수

✓ 소극적 투자 예산 사업 Top 5

| 구분 | '증가' 응답 |
|--------|---------|
| 소매 | 39% |
| 미디어 | 43% |
| 전문 서비스 | 43% |
| 헬스케어 | 44% |
| 여행업 | 45% |

산업별 신기술 투자 정도



[출처 : Globaldata, ICAK 정책지원센터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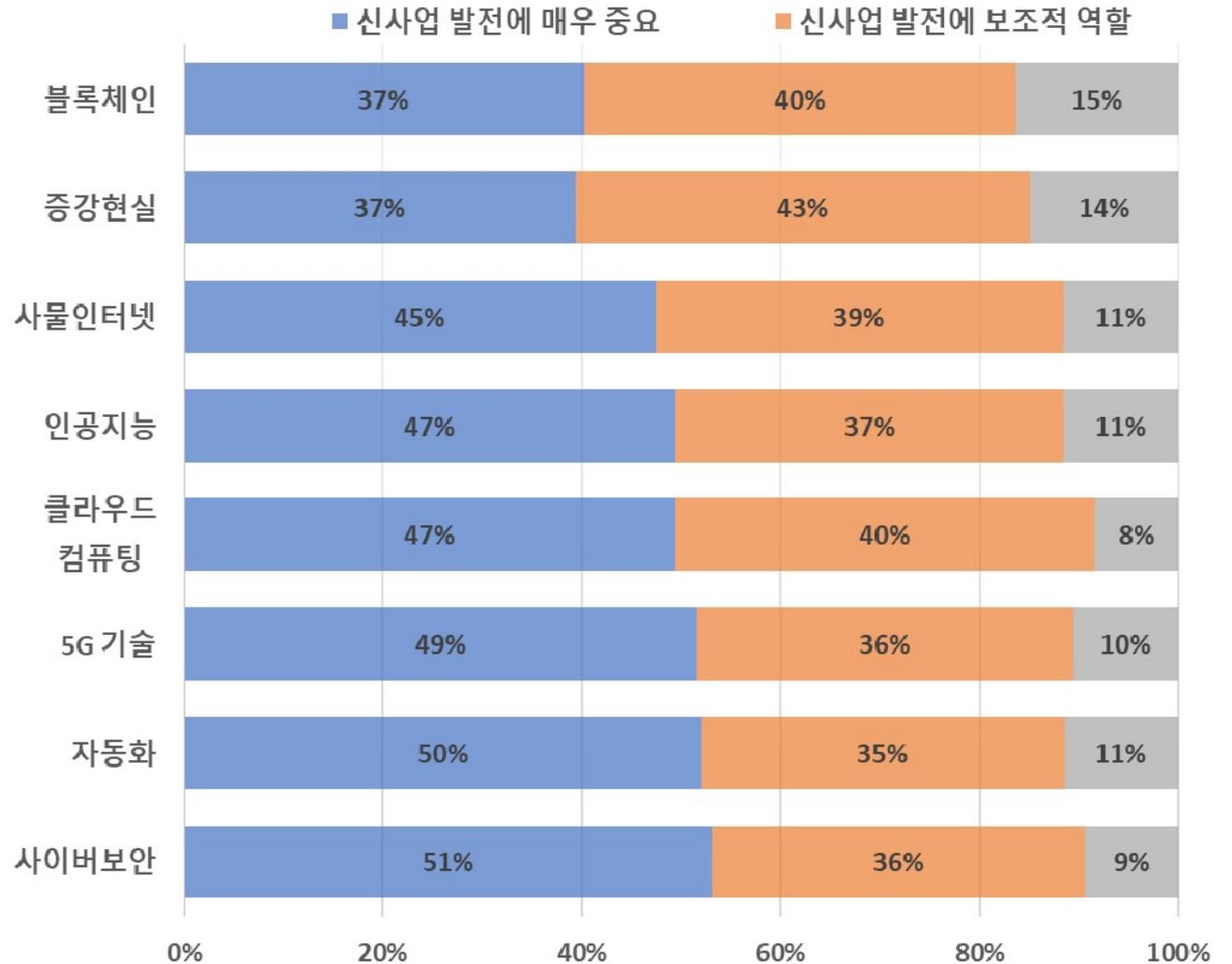
2)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

(향후 신사업 발전을 위한 신기술의 역할 정도)

- 사이버보안, 자동화, 5G 등 주요 신기술은 향후 각 산업별 신사업 추진시 매우 중요하거나 보조적 역할을 할 거라는 응답이 77~87% 수준임
- 즉, 주요 핵심 신기술이 미래 사업에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음
- ✓ 신사업 발전에 중요한 Top 5 신기술

| 구분 | '중요' 응답 |
|---------|---------|
| 사이버보안 | 51% |
| 자동화 | 50% |
| 5G 기술 | 49% |
| 클라우드컴퓨팅 | 47% |
| 인공지능 | 47% |

신사업 발전 관련 신기술의 역할 정도



[출처 : Globaldata, ICAK 정책지원센터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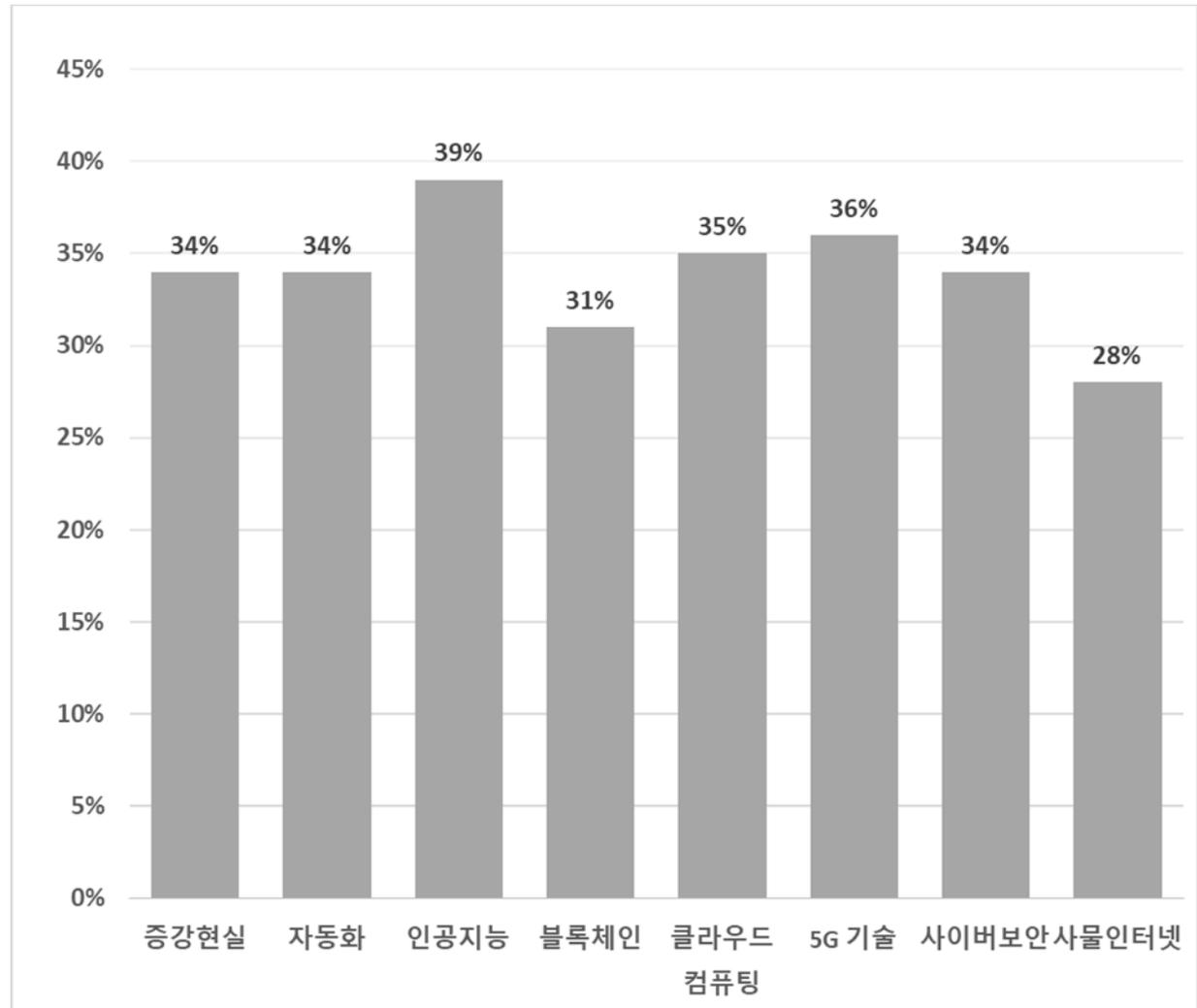
2)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산업별 영향 및 신기술 도입 이슈

(건설 산업의 혁신에 기여하는 신기술)

- 코로나19 충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 산업의 혁신 및 이를 통한 원가 절감,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신기술 적용은 필수임
- 특히 인공지능, 5G 기술, 클라우드 컴퓨팅, 사이버보안, 자동화 등이 건설 산업의 혁신 기여할 수 있는 정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
- ✓ 각 신기술이 건설 산업의 혁신에 기여할 수 있는 정도

| 구분 | 결과 |
|----------|-----|
| 인공지능 | 39% |
| 5G 기술 | 36% |
| 클라우드 컴퓨팅 | 35% |
| 사이버보안 | 34% |
| 자동화 | 34% |

각 신기술이 기여할 수 있는 건설 산업의 혁신 정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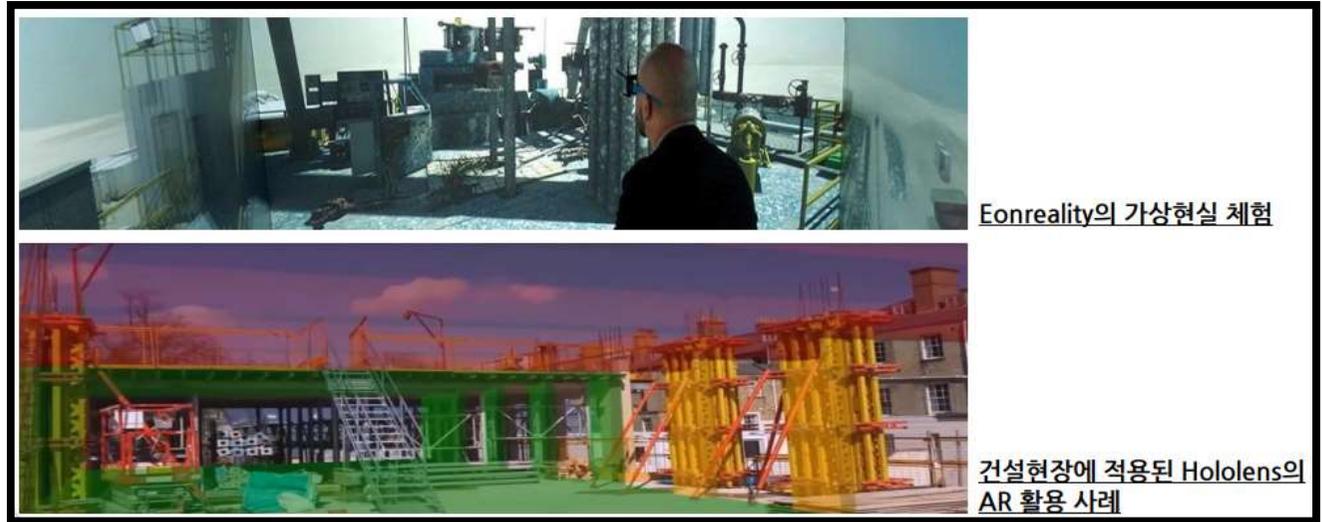


[출처 : Globaldata, ICAK 정책지원센터]

3) 주요 신기술 적용 사례

VR&AR

- BIM 모델 기반의 가상 건축물 체험을 통해 설계를 변경하고 변경된 내용을 즉시 확인할 수 있음
- 도면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발주자 및 최종 사용자의 사업 참여도를 제고할 수 있음



지능형 건설장비

- Komatsu는 지능형 건설장비를 토해 센서와 통신 단말을 통해 건설기계 데이터를 송신하는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



3) 주요 신기술 적용 사례

Modular Construction

- BIM으로 설계된 구성요소들이 3D 프린팅 기술을 통해 공장에서 자동 생산 → 현장은 조립 위주
- 중국 Broad Group China사는 사전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해 19일만에 57층 빌딩 완공
- 두바이 시청의 혁신 센터는 면적 640m², 높이 9.5m의 복층 건물로 세계 최대 규모의 3D 프린팅 건축물

가양동 모듈러 주택



자료 : 한국건설기술연구원

중국 스카이 미니 시티



자료 : <http://www.lavozdaily.com/2015/06/mini-sky-city-el-milagro-chino/>

10일만에 완공한 의료시설



3) 주요 신기술 적용 사례

3D Printing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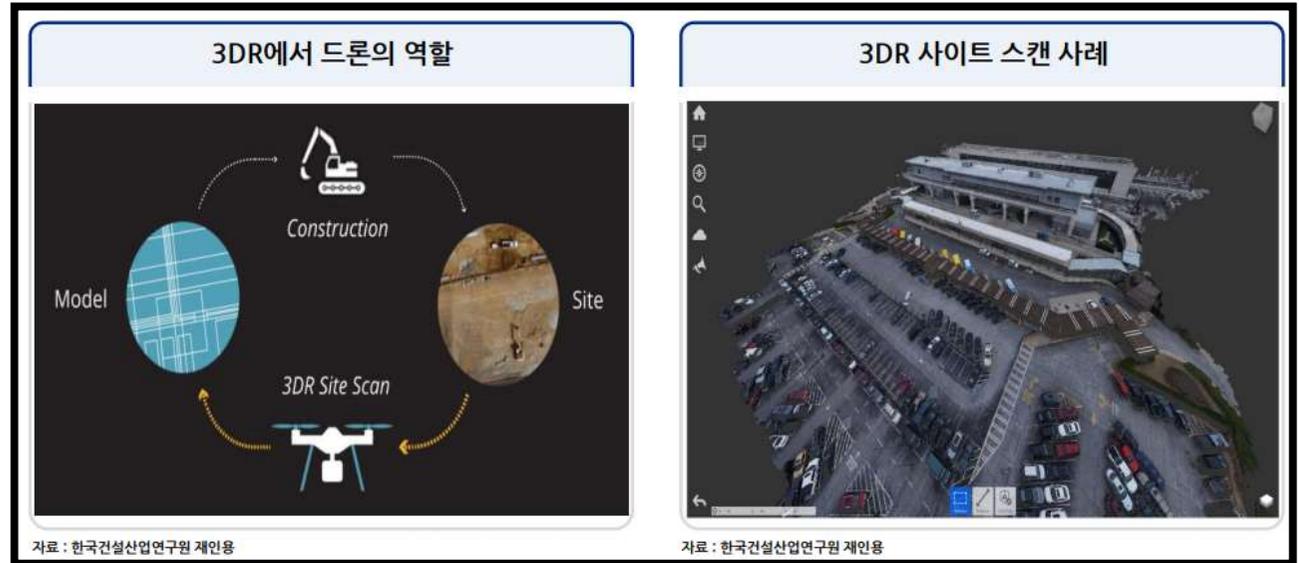
- 모듈러 공법과 연계 또는 시설물을 현장에서 직접 프린팅
- MX3D사는 암스테르담에 운하를 잇는 금속 재질의 7.3m 다리를 3D 프린팅을 이용해 건설
- 두바이 시청의 혁신 센터는 면적 640m², 높이 9.5m의 복층 건물로 세계 최대 규모의 3D 프린팅 건축물



3) 주요 신기술 적용 사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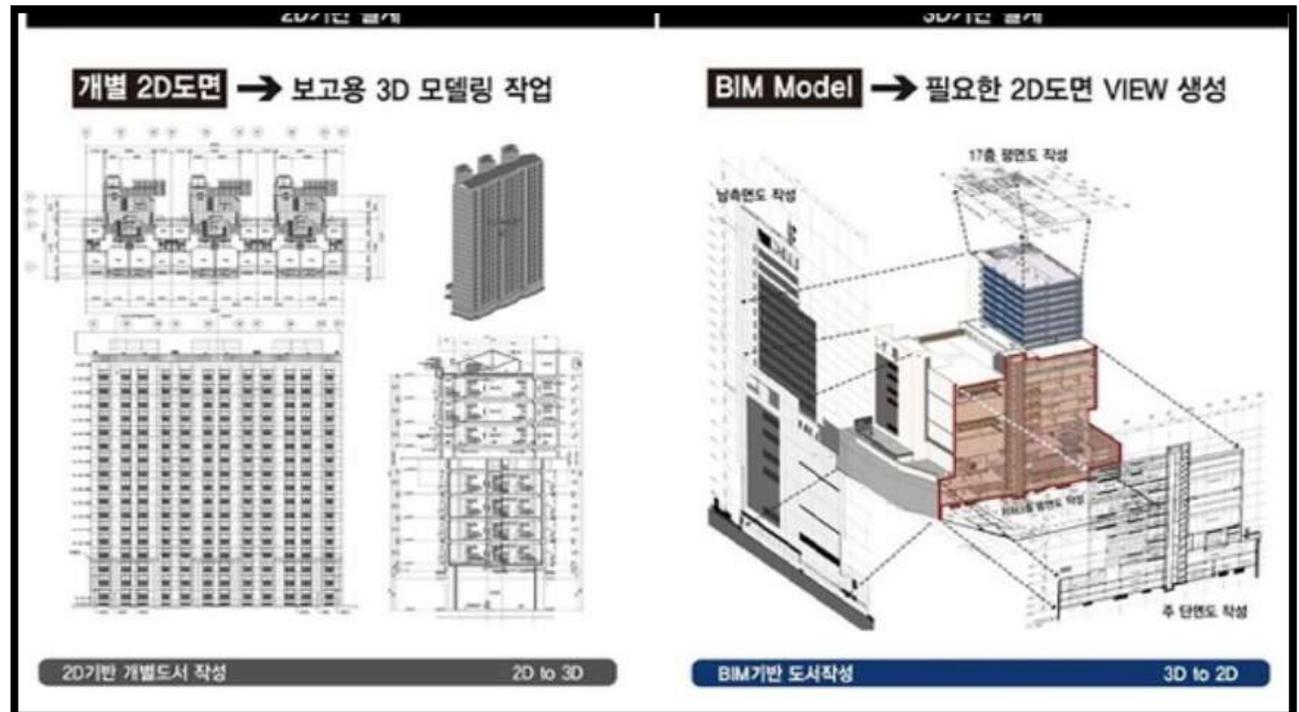
Drone

- 이미지, 비디오, 지형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현장의 자산관리 및 하도급관리에 활용
- 드론 기술로 대체 가능한 인프라 분야 금액은 452억불 수준임
- 특히,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의 경우 설계 및 건설과정 뿐만 아니라 유지 및 보수 단계에서도 드론의 활용 범위가 확대



BIM

- BIM은 건설 프로세스의 최적화와 생산성 개선에 효과적인 플랫폼
- 사업 정보와 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참여자간의 협업 체계의 구축에 활용될 수 있음



4) 우리 기업 주요 신사업 계획

| 기업 | 구분 | 주요 내용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|
| A사 | 조류발전 | 국내 유일의 지지물 구조 설치 경험 및 기술 보유 |
| | 원전 해체 | 선진사와 제휴를 통한 해체기술 확보 노력 |
| | 그린바이오 스마트 시티 | 지자체와 농업바이오웰빙 특구 내 도시 + 농업 복합도시 개발(약 30만평) |
| | 플랫폼 | 데이터센터 |
| B사 | 디지털 Developer | Developer 사업 확대 등 수익성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고도화 |
| C사 | 드론 제조 및 소프트웨어 개발 | 드론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스타트업에 지분 30% 투자 |
| D사 | 기술 기반 수주 | 모듈 제작 확대. PC 빌딩 제작 등 제조업화 기술 활용 |
| | 자동화 | 자동 용접. 자동케이블 설치. 로봇 개발, 오토 라우팅 등 |
| | 프로세스 혁신 | 기자재 조기 확정 체제 및 프로세스 혁신 |
| E사 | 해외 모듈업체 인수 | 폴란드 및 영국 기업 인수 |
| | 자산운용사 인수 | 부동산전문운용사 인수 |
| | Precast Concrete 사업 | 지자체와 Precast Concrete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 체결 |
| | 데이터센터 | 자산운용사와 협업하여 관련 경험을 축적할 계획 |

[출처 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, ICAK 정책지원센터]



Part 6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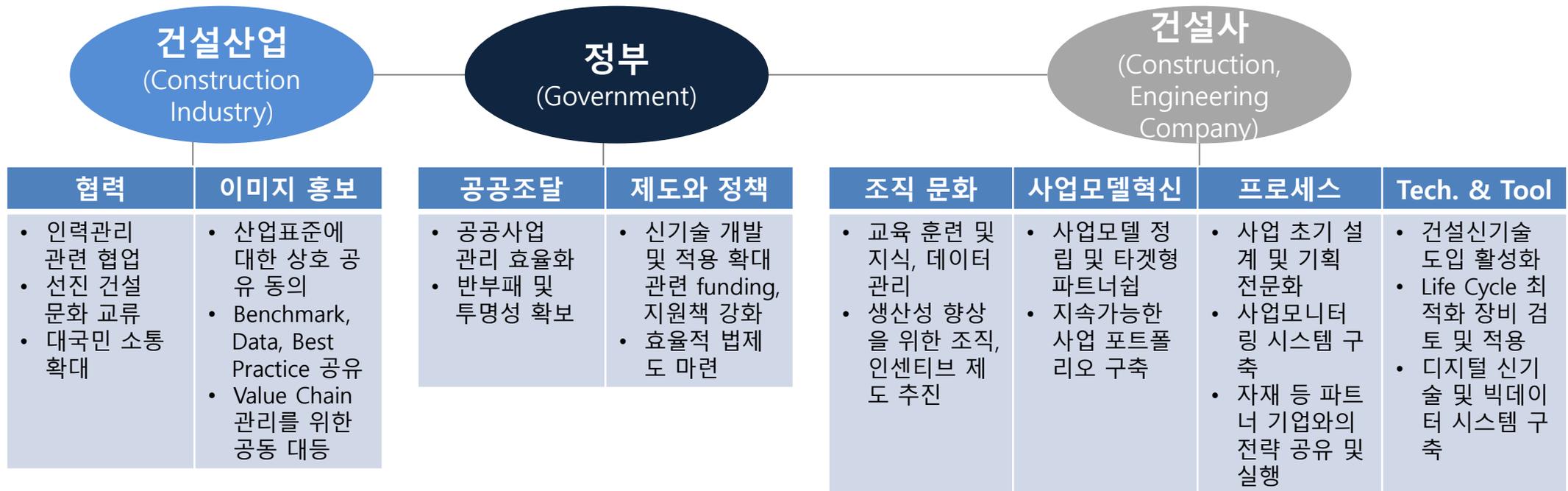
결론 및 시사점

결론 및 시사점

- 코로나19로 역성장에 빠졌던 세계건설시장이 회복세에 진입하여, '21년에는 '20년 대비 4.8% 성장한 11.3조불로 전망
- 단,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저유가, 유럽·신흥국과의 경쟁 심화,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역 파괴 등 다양한 이슈가 뉴노멀(New-Normal)화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
- 플랜트 전방 산업인 에너지 업체들이 '21년부터 Oil & Gas 분야 CAPEX를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OPEC+의 감산 지속, 중동 주요국의 경기 부양책 및 인프라 투자, 국제유가의 하방 경직성은 중동 발주 여건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힘
- 코로나19 충격 및 신기술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, 응답자의 80% 가량이 본인이 재직 중인 기업이 디지털 혁신을 위한 준비가 됐다고 응답함
- 코로나19 충격에 의한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건설업은 신기술 적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파악됨
- 결과적으로, 코로나19 충격에도 불구하고 해외건설 수주 및 사업관리는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, 향후 지속성장을 위해선 신기술 도입 등 혁신이 필요함

결론 및 시사점

- 해외건설산업이 코로나19 충격을 극복하고 혁신을 위해 단기·중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보고자 함
- ✓ **건설사** : 과감한 신기술(인공지능, 5G 기술, 클라우드 컴퓨팅, 사이버보안, 자동화 등) 도입 및 언택트시대를 대비한 수주전략(투자개발형 등 수익성 위주 등)으로 전환 가속화
- ✓ **정부** : 우수한 K-방역 시스템 등을 활용한 국가 경쟁력 부각으로 글로벌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G2G사업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 필요 (출입국시 자가격리 면제, 팀코리아 적극 지원 등)
- ✓ **금융기관** : 초고위험국에 대한 수은의 특별계정 규모 증대 및 KIND의 적극적인 투자개발형 사업을 통한 Mega프로젝트 수주 확대
- ✓ **유관기관** : 해외건설협회 등을 중심으로 정보수집능력 강화 및 기업 규모별 특화된 지원사업 강화 등





감사합니다.

정지훈 책임연구원
02-3406-1054
jhjung@icak.or.kr